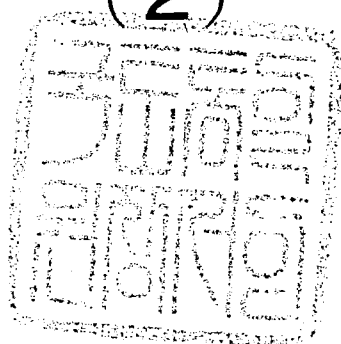


# 民主統一論

(中等教師班)

1973年度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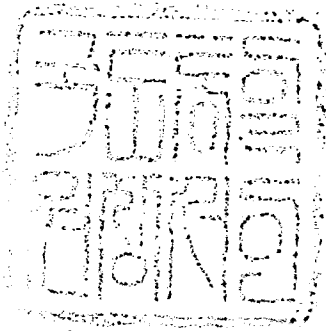


統一研修所

# 국토 통일

1970년 3월 1일

대통령 박정희 의장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  
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  
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  
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적 힘  
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  
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듯  
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  
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  
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目 次

I. 国民教育憲章 .....	7
第1章 序 說 .....	9
第2章 憲章의 教育學的 意義 .....	10
第3章 憲章의 基本精神 .....	12
第4章 憲章의 理念을 具現하는데 있어서의 留意點 .....	18
第5章 憲章의 具體的 生活目標 .....	22
II. 文教施策 .....	31
第1章 国民教育憲章 理念의 生活化로 “참다운 새 韓國人”을 育成하는 施策 .....	33
第2章 奨學의 一般方針 .....	36
1. 民族主体性的 涵養 .....	36
2. 維新教育体制의 確立 .....	38
3. 새마을教育의 深化 .....	39
4. 保健體育教育의 強化 .....	41
5.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	42
III. 民主主義論 .....	45
第1章 新生國의 政治的 發展과 傾向 .....	47
1. 類型에서 본 後進社會의 特徵 .....	47
2. 後進社會의 一般的 特徵 .....	51

V. 北韓實情 .....	115
第1章 北韓의 農業集團化 .....	117
1. 北韓의 農業體制 .....	117
2. 農業集團化의 過程 .....	119
3. 農業集團化에  따른 問題點과 展望 .....	123
VI. 共產主義 批判 .....	125
第1章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 .....	127
1. 序 言 .....	127
2. 共產主義의 基本哲學과 實際 .....	131
3. 共產主義의 政治理論과 實際 .....	143
4. 共產主義의 經濟理論과 實際 .....	172
5. 結 言 .....	199
第2章 蘇聯 共產主義 批判 .....	206
1. 序 論 .....	206
2. 프레 하노프主義 .....	208
3. 레닌主義 .....	213
4. 스탈린主義 .....	219
5. 흐루시 초프主義 .....	225
6. 브레즈네프~코시 킨路線 .....	230
7. 結 論 .....	237
第3章 中國 共產主義 批判 .....	239
1. 毛沢東思想路線의 過渡的 性格 .....	239

3. 레닌의 革命戰略·戰術 .....	279
4. 코민테른의 戰略·戰術 .....	283
5. 스탈린의 共產化戰略 戰術 .....	285
6. 東歐의 共產化戰略 .....	287
7. 毛沢東의 革命戰爭·戰術 .....	291
8. 毛沢東 革命戰略論의 亞流와 變種 .....	299
VIII. 統一方案 .....	303
第1章 分断國의 統一政策 .....	305
1. 序 言 .....	305
2. 獨逸의 統一政策 .....	305
3. 越南의 統一政策 .....	311
4. 中國의 統一政策 .....	317
5. 結 言 .....	320
IX. 教職科目 .....	323
第1章 教育의 社會化 .....	325
1. 社會의 教育學的 技能 및 過程 .....	325
2. 教育의 社會化 .....	330
3. 共產主義的 社會化와 그 對策 .....	339
第2章 統一教育 .....	342
1. 社會變遷과 教育過程 .....	342
2. 自由主義와 共產主義 比較 및 教育過程 .....	344

# I. 國民教育憲章

- 第 1 章 序 說
- 第 2 章 憲章의 教育學的 意義
- 第 3 章 憲章의 基本精神
- 第 4 章 憲章의 理念을 具現하는데  
있어서의 留意點
- 第 5 章 憲章의 具體的 生活目標

## 第 1 章 序 說

國民教育 憲章은 國民 全體의 意思가 集約 表現된 歷史的 章典이다. 앞으로 오랜 期間 동안 國民倫理의 基盤으로서 國民教育의 指標가 될 이 憲章은 6 個月 以上이나 되는 長時日에 걸쳐 國民各階各層의 意見을 總網羅하여 慎重을 期한 審議 끝에 1968年 12月 5日 制定 宣布 되었다.

돌이켜 보면, 1960年代의 祖國近代化 課業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兩 次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成功的으로 遂行되어 감에 따라 前에 없던 經濟成長이 이루어졌고 그 結果로 國民의 所得水準이 크게 上昇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物量的인 經濟成長이 이룩되면 될수록 이를 뒷받침해야 할 새로운 精神姿勢가 더욱 要請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동안 외쳐졌던 第2 經濟 運動이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急激한 經濟成長을 뒷받침하여야 할 個人의 創意와 努力, 그리고 全民族의 協同力을 加一層 涵養 發揮하여 國家建設에 自進參與케 할 「새로운 國民像」의 必要性을 切感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時代的·全國民의 要請에 따라 우리 全體가 念願하는 바를 하나의 指標로 集約하여 明文化한 것이 바로 國民教育 憲章이다. 이것은 各階各層의 要望에 의하여 國民의 總意가 網羅된 것인 만큼 그 어떤 特殊한 階層만의 것일 수 없는 全國民의 것이며 그러기에 國民教育 憲章인 것이다. 이 憲章은 決코 누가 누구에게 強要하는 強制 規範이 아니라 國民속에서 우리나라고 國民의 衆智가 엉켜서 이룩된 自律的인 國民倫理의 大綱이라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憲章은 支配者인 天皇이 被支配者인 國民에게 一方的으로 命令하고 指示하는 이른바 日本의 教育勅語와는 本質的으로 그 性格을 달리한다. 卽 그 制定 宣布의 主体가 教育勅語는 支配者인 天皇인데



術에만 汲汲하다는 것은 마치 目的地 없이 彷徨하는 바다 위의 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的 先決課題는 教育의 技術과 方法이 무엇 때문에 必要하고 무엇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냐고 하는 根本的인 質問에 대하여 올바른 解答을 提示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來 韓國의 支配的인 教育理論은 教育에 있어서의 方向意識 내지는 目的意識 即 人格形成의 重要性을 소홀히 하고 거의 學生教育의 方法과 技術에 關聯되는 것에만 치우쳐 왔다. 그 結果로 이 나라 教育界는 方法論 一辺倒로 기울어지고 말았으며, 마침내는 「方向없는 教育」으로 變質되어 갔다. 이리하여 人間教育에 있어서의 보다 本質的인 側面을 忘却하였으며, 結果的으로 人間形成이라고 하는 教育의 보다 根本的인 使命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나라 教育이 近視眼的으로 教育의 技術과 方法에만 置重한데 대하여 뜻있는 教育者들과 學者들은, 教育의 理念 내지는 目的의 定立과 發展이 時急하다는 事實을 力說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韓國 教育界의 새로운, 그리고 올바른 움직임이 結實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國民教育 憲章이라고 할 수 있다.

國民教育 憲章은 우리 國民의 價値體系를 確立하고 規範意識을 強化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依拠하여 教育의 方法과 技術을 發展시켜야 할 指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韓國教育이 指向해야 할 基本的인 指針에 不過한 것이며, 그 具體的인 目標까지가 393字라는 制限된 字句 속에 充分히 提示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우리는 憲章의 制定 宣布를 契機로 오직 教育技術에만 置重해온 지난날의 盲點과 矛盾을 크게 是正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다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歷史的, 社会的 내지는 自然的 与件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그 어렵고도 不利한 難関을 克服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創造과 開拓을 이룩하는데 成功한 國民들의 標本이다.

우리가 지금 새 歷史를 創造해 나가는 自体가 바로 民族의 主体意識을 究揮하는 길인즉, 그것은 우리 民族이 물려받은 歷史的 遺産을 탓하거나 現在의 不利한 環境을 悲觀하는 態度로서는 不可能한 일이다. 오히려 이들 不利한 与件과 環境을 새로운 飛躍의 발판으로 살리고 힘찬 創造의 기틀로 바꿔 나가야 한다.

憲章의 한 자 한 자에는 民族中興의 새 歷史를 創造하자는 民族精神으로 一貫되어 있으며, 우리의 切實한 当面課題인 近代化의 促進도 抽象的인 人間의 近代化나 国籍없는 漠然한 近代化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있는 우리 民族 自身이 近代化되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그저 남을 模倣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의 主体性を 통하여 이루어지는 近代化라야만 하는 만큼 이를 위해 民族의 主体性を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明白히 하려고 注力하였다.

그러나 主体性이란 概念은 매우 抽象的인 概念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定義를 내리기는 어려운 概念이다. 그러나 憲章의 393字는 곧 民族主体性を 確立하는 길을 具體的으로 說明한 것이고, 알기 쉽게 풀이한 글이다. 특히 「祖上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自主獨立의 姿勢를 確立하고, 밖으로 人類共榮에 이바지할 때다」, 「우리의 処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敬愛와 信義에 뿌리박은 相扶相助의 傳統을 이어받아」, 「스스로, 國家建設에 參與하고 奉仕하는 國民精神을 드높인다」, 「信念과 矜持를 지닌 勤勉한 國民으로서, 民族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努力으로 새 歷史를 創造하자」 등은 더욱 그러한 精神을 強調한 部分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變動이 심한 韓國에 있어서 教育이 取하여야 할 올바른 姿勢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教育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變化에 対応할 수 있도록 잘 準備케 해주어야 하겠다. 그러나, 그와 同時에 教育은 그들에게 變化가 混亂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價值意識과 原理意識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그 價值와 原理를 찾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解答은 簡單하다. 主体意識을 堅持하고 우리 民族의 歷史와 傳統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方向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한 나라의 歷史와 어떠한 文化의 成長過程을 들추어 볼 때에는 언제나 最高의 真理와 最高의 善과 最高의 美에 대한 사람들의 意識이 保存되어 있었을 때에만 民族과 文化가 살아 남고 크게 發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價值는 모든 偉大한 哲學과 宗教에 있어서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本質主義 教育이 強調하는 점이며, 여기에 곧 本質主義 教育의 重要性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傳統에만 置重하여 改革과 進歩와 變化의 側面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要는 兩者間의 適切한 均衡과 調和와 綜合 止揚이 重要한 것이다. 一部 教育者들은 復古主義에 열여지고 있는 흠이 있으나 이는 警戒해야 할 問題이다.

우리는 溫故知新하기 위하여 繼續 努力해야 하겠다. 그 동안 우리는 溫故라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으며, 知新하는 일에만 지나치게 專念했었다. 이제 우리는 忠武公과 같은 어른의 거룩한 精神을 이어받아 後世教育의 指針으로 삼기 위하여 특히 이에 대한 集中的인 研究와 實踐을 피해야만 한다.

### 3. 民主主義의 發展(個人과 國家의 調和)

國民教育 憲章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또 한 가지 重要한 精神은.

物學的 欲求와 文化的 欲求를 充足시켜 가면서 自己實現을 이룩할 수 있는 社會 또는 集團 가운데서 가장 強力하고 影響力이 큰 것은 國家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家族이나 部族이 보다 重要的 役割을 한 때도 있었고 將次는 어떤 國際機構가 보다 큰 役割을 하고 影響을 미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나 現在로서는 亦是 國家가 人間的 集團 가운데서 가장 支配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民族에게도 지난 오랜 歷史를 더듬어 보면 先人들 가운데 愛國精神과 國民精神을 萬遺憾없이 發揮한 事例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 代表的인 事例를 우리는 新羅時代의 三國을 統一하는 大業을 完遂한 文武大王과 李忠武公 같은 어른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慶州 石窠庵의 大仙의 視線이 모인 거센 波瀾 밑에 大王岩이 솟아있고 十字로 파인 바위 사이에는 큰 돌이 덮여 있으며 그 위로 들고나는 물결이 千餘年을 부서져 왔다. 大王岩에 덮인 큰 돌 밑에는 花郎의 一員인 文武大王이 한 줌의 재로 된 채 모시어져 있다. 이것이 文武大王의 海中陵寢인 것이다. 이 海中陵寢은 文武大王이 世上을 떠날 때 남긴 간절한 遺詔에 따라 그가 죽은지 10年만에 火葬하여 東海바다 大王岩에 骨藏하여 만든 것이다.

王의 遺詔를 읽노라면 오늘에도 句句節節 가슴속을 울린다. 自身이 죽은 後에라도 바다 속에 머물러 新羅를 威脅하는 帝國 日本으로부터 祖國을 지키겠다는 悲壯한 決心에 의한 것이었다.

「化龍護國護仙」이 간절한 文武大王의 念願이었다. 自己 自身이 바다속의 龍이 되어 사랑하는 祖國과 真理인 仙法을 끝까지 守護하겠다는 悲願에서 그렇게 하였다. 豪華스러운 王陵을 만들기 위하여 國庫를 蕩盡하거나 國民에게 苛酷한 賦役이 있을까 하여 그는 愛國愛民의 至誠스러운 精神에서 이렇게 特異한 葬禮를 치르게 하였다.

면 意味있는 行爲가 實踐되기 어렵다는 데서 憲章의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同時에 憲章 속에서 提示한 規範의 精神과 具體的 行動의 內容을 옳게 理解하고 받든다는 것은 實踐의 前提條件이라고 말한다.

이에 있어서는 거기에 關聯된 수 많은 古典과 現代의 文獻 및 作品을 廣範圍하게 蒐集하고 研究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制限된 經驗이나 思想만으로는 보다 充實하고 次元 높은 行動을 定立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國民教育 憲章속에 提示된 規範들은 그것이 매우 簡單하고 알기 쉬운 概念들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그 規範들을 깊게 그리고 正確하게 理解하려면 그리 單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例컨데, 「敬愛」와 같은 概念이 그 代表的인 것인데 그것은 東西古今の 偉大한 宗教思想의 本質을 담고 있는 精神인 同時에 孝道의 精神도 內包되어 있는 매우 包括的인 規範인 것이다.

## 2. 歷史上 偉大한 스승을 研究하여야 한다.

그 동안 이 나라 教育界에서는 지나칠 程度로 教育思想의 分野는 소홀히 했었다는 點은 앞에서 言及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教育이 質的으로 低下되는 큰 要因이었다. 特히 國民教育 憲章과 옳은 生活를 가르치려는 努力을 集中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教育者의 올바른 精神姿勢가 問題가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教育은 人格과 人格과의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거니와 現代 教育의 가장 큰 盲點인 人間不在 現象을 우리가 克服하고 解決하기 前에는 子女들에게 참된 人間教育을 實施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人間教育의 課題야 말로 現代의 이른바 科學的인 教育學의 理論만으로는 解決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教育史나

하게 된다.

人間의 삶에 있어서 가장 本質的인 現象들은 결코 實驗이나 統計를 통해서 把握할 수는 없다. 人間의 人格의 核心을 건드리는 모든 問題들은 결코 實驗될 수 없으며, 人間存在의 無意識層에 根柢한 情緒나 意志에 관한 現象은 그것을 分別할 수 있는 基準이 不分明하기 때문에 數量化하기 어렵다.

따라서 教師로서는 教育史를 통해서 지난날의 스승들이 學生을 人格的으로 感化시킨 힘이 무엇인지를 體得하여야 한다. 한 걸음 나아가서 偉大한 文學과 宗教等を 공부함으로써 뛰어난 天才들이 人生의 複雜한 問題를 解決하는 길을 그들의 뛰어난 洞察力으로써 提示한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 4. 憲章은 教育活動의 全體 領域에서 가르쳐져야 한다.

初期에는 國民教育 憲章을 어느 時間에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若干의 混亂이 있었던 것이 事實이고, 아직도 이 問題는 제대로 解決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國民教育 憲章은 그 性格上 마땅히 學生들의 學習活動 全體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또한 實踐되어야 한다. 다만 學習分野의 性格 如何에 따라서 強弱 내지는 多寡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于先 가장 그 精神이 많이 反映되어야 할 教科分野는 말할 나위도 없이 道德科일 것이고, 其他 社會科나 國語科나 科學科나 美術·音樂科 그리고 體育科等에서도 골고루 強調되어야 한다. 그리고 教科指導 外에도 特別活動이라든지 모든 行事に 있어서는 特히 憲章의 精神이 높이 받아들여지도록 指導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留意할 事項은 教科指導等に 있어서 國民教育 憲章의 理念을 指導하기 위하여 많은 時間을 割愛하는 나머지 教育의 進度에 支障이

<p>얼 ( 傳統 )</p>	<p>神 姿 勢 確 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의 文化 遺產 의 價 值 을 理 解 하 고 保 護 發 展</li> <li>( 例 ) ○ 弘 益 人 間</li> <li>○ 世 宗 大 王 의 治 績</li> <li>○ 李 忠 武 公 의 護 國 精 神</li> <li>○ 3 . 1 獨 立 精 神 等</li> <li>○ 思 想 , 歷 史 , 美 風 , 良 俗 , 文 學 , 美 術 , 音 樂 , 舞 踊 等 의 繼 承 發 展</li> </ul>
<p>라 . 自 主 獨 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依 他 , 事 大 , 模 倣 의 止 揚</li> <li>○ 自 慢 心 , 自 暴 自 棄 , 自 虐 의 警 戒</li> <li>○ 스스로 自 己 의 運 命 開 拓</li> <li>○ 自 治 能 力 의 涵 養</li> <li>○ 經 濟 的 自 立 과 政 治 的 獨 立</li> <li>○ 民 族 的 自 尊 心 과 自 負 心 의 涵 養</li> </ul>
<p>마 . 人 類 共 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 國 國 民 으 로 서 世 界 史 的 使 命 의 自 覺</li> <li>○ 外 國 文 化 의 理 解 와 鑑 賞</li> <li>○ 世 界 市 民 精 神 과 國 際 的 人 類 愛</li> <li>○ 自 由 愛 護 國 家 와 의 和 親 協 力</li> <li>○ 國 軍 派 越 의 意 義</li> <li>○ 韓 國 文 化 의 發 展 을 통 한 世 界 文 化 에 의 寄 與</li> </ul>

2. 個 人 의 完 成

德 目	具 體 的 分 析
<p>가 . 誠 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 格 의 바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礎的 技術의 習得</li> <li>○ 現代科學 技術의 理解 및 適用</li> <li>○ 生産技術의 繼續的 發展</li> </ul>
바. 素質啓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我의 實現 (自己 才質의 高度實現을 통한)</li> <li>○ 趣味의 伸張</li> <li>○ 自己의 能力과 適性의 早期 發見</li> <li>○ 賢明한 職業의 選擇</li> </ul>

3. 民主人(社會人)

德 目	具 體 的 分 析
가. 公益과 秩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私利私慾의 抑制과 公益의 優先</li> <li>○ 互惠平等 精神의 涵養</li> <li>○ 公衆道德의 遵守</li> <li>○ 遵法精神의 涵養</li> <li>○ 感情의 抑制과 理性에 依한 行動</li> </ul>
나. 敬愛와 信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間의 尊嚴性 認識</li> <li>○ 恭敬, 友愛, 사랑, 믿음의 增進</li> <li>○ 父母 섬김</li> <li>○ 兄弟間의 友愛</li> <li>○ 親友間의 믿음 (友情과 義理)</li> <li>○ 慈善, 同情, 寬大, 信賴</li> <li>○ 義理, 信用, 廉恥</li> <li>○ 不信과 對立의 解消</li> <li>○ 家庭生活의 向上, 家庭에 對한 愛着</li> <li>○ 禮節의 遵守: 姿勢, 人事, 上下의 区分, 言語, 行</li> </ul>



4. 國民精神 ( 國民共同體 意識 )

德 目	具 體 的 分 析
가. 나와 나라의 關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君臣의 忠僕이라는 自覺</li> <li>○ 國民協同體 意識이 強한 사람 ( 共同運命體의 一員 )</li> <li>○ 祖國愛, 同胞愛, 國土愛, 鄉土愛</li> <li>○ 國旗, 國家, 國家元首에 對한 尊敬</li> <li>○ 戰歿遺家族에 對한 尊敬 및 援護</li> <li>○ 國軍에 對한 感謝와 慰問</li> <li>○ 先烈의 遺德追慕 및 護國精神의 繼承 ( 顯忠祠 參拜等 )</li> </ul>
나. 自由, 權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由와 權利의 올바른 認識</li> <li>○ 責任과 義務는 自由와 權利에 先行</li> </ul>
다. 責任, 義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子女로서의 責任과 義務</li> <li>○ 學生으로서의 責任과 義務</li> <li>○ 鄉土 ( 마을 ) 人으로서의 責任과 義務</li> <li>○ 國民으로서의 責任과 義務 : 教育, 納稅, 兵役 等</li> <li>○ 그 밖의 보다 더 積極的이고 道義的인 責任과 義務</li> </ul>
라. 參與와 奉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主人 精神</li> <li>○ 責任 意識</li> <li>○ 家庭에서의 參與와 奉仕精神</li> <li>○ 마을에서의 參與와 奉仕精神</li> <li>○ 社會秩序와 建設에 對한 關心과 積極的인 協調</li> </ul>
마. 反共, 統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勝共 統一의 信念</li> <li>○ 共産黨의 宣傳 粉碎</li> <li>○ 間接侵略의 防止</li> <li>○ 共産黨의 再侵 警戒</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浮虛와 요행을 버리고 着實한 努力</li> <li>○ 虛禮虛飾 廢止</li> <li>○ 企業精神의 昂揚</li> <li>○ 職業倫理의 確立</li> <li>○ 儀禮 簡素化의 實踐</li> <li>○ 職業에 貴賤이 없음을 理解</li> </ul>
라. 勤 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勤勉한 習性 涵養</li> <li>○ 時間의 節約</li> <li>○ 勞動의 神聖性</li> <li>○ 勞動自體의 즐거움</li> </ul>
마. 餘暇의 善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健全한 레크리에이션에 參與</li> <li>○ 家庭에서의 餘暇 善用</li> <li>○ 健全한 娛樂과 運動의 勵行</li> <li>○ 職場에서의 餘暇 善用</li> <li>○ 健全한 讀書生活</li> </ul>

6. 創造人

德 目	具 體 的 分 析
가. 오늘에 되살려 ( 傳統, 韓國文 化의 發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훌륭한 傳統과 文化遺産의 尊重</li> <li>○ 傳統을 現代에 맞도록 發展</li> <li>○ 未來에 대한 새로운 秘傳</li> </ul>
나. 우리의 處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國의 與件에 맞는 生活의 當爲</li> <li>○ 우리의 處地에 대한 올바른 認識</li> <li>○ 不利한 處地의 克服</li> </ul>
다. 創 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고 嶄新한 思考</li> </ul>

## Ⅱ. 文 教 施 策

第 1 章 國民教育憲章 理念의 生活化로  
“참다운 새 韓國人”을 育成하  
는 施策

第 2 章 獎學의 一般方針

## 第1章 国民教育憲章 理念의 生活化로

### “참다운 새 韓國人”을 育成하는 施策

#### 1. 教育의 理念과 實踐要綱으로서의 国民教育憲章 理念의 生活化

(1) 解放後 4半世紀동안 우리나라의 教育은 国籍없는 教育이란 말로 表現되어 있음과 같이 그 指標를 어디에다 設定했으며 또한 어떤 理念에 의해서 教育이 實施되어 왔는지 多少 漠然한 점이 없지 않았다. 우리는 때늦은 감은 있으나 1968年 12月 5日 宣布된 国民教育憲章을 우리 教育의 理念과 實踐要綱으로 集約한 教育章典으로 삼고 이를 生活化하는데 全力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国民教育憲章」을 起点으로 우리 教育의 理念的·實踐的 基盤이 이루어졌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온 國民이 그 理念의 具現으로 이를 生活化하기까지에는 継続적인 研究와 努力이 必要한 것이다.

(2) 특히 우리는 오늘날 民族中興의 새 歷史 創造를 위한, 10月維新 時代에 살고 있으며, 이 때야말로 온 國民이 共同運命體의 一員이라는 連帶意識을 갖고 透徹한 民族意識과 國家觀을 確立하여 國民紀綱의 基調로 삼고 協同 團結의 社會氣風을 振作시켜 나가야 하며, 이렇게 하여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의 批判보다는 實踐을, 躊躇보다는 勇氣를 갖고 創造와 開拓의 隊列에 앞장서야 할 時代에 살고 있는 것이다. 朴 大統領께서는 国民教育憲章 宣布 第4周年 記念式 致辭에서

『10月 維新의 精神이 国民教育憲章의 理念과 그 基調를 같이하는 것이며, 이 憲章理念의 生活化는 곧 維新課業을 主体的으로 實踐하는 첫 길이라고 믿습니다』고 말씀하시고, 国民教育憲章이 「民族中興」을 우리의 使命으로 規定하고 「公益과 秩序를 앞세우며 能率과 實質을 崇尚하여 우리의 處地를 躍進의 발판으로 삼아」 새 歷史를 創造해 나갈 것을

첫째, 우리는 民主國民으로서 살고 있다. 自由民主主義가 共產主義보다 優越하다는 確固한 信念은 國家保衛와 國家發展을 위한 原動力이 된다. 特히 우리는 觀念的인 西歐的 民主主義를 脫皮하고 이 나라 風土에 맞는 새로운 韓國 民主主義를 制度化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韓國 民主主義 土着化는 지금부터 우리 國民들에게 지워진 責務인 것이다.

둘째, 全人的인 人間이라는 觀點에서 이미 우리의 教育은 知, 德, 體만으로는 維新課業 가운데 絶對 比重을 차지하는 近代 産業社會를 建設하여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國民을 教育시키는데는 未洽하며 모든 國民이 무엇인가 生業으로 삼을 수 있는 技術習得이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따라서 現代的인 全人的 人間이란 職業人으로서의 學問, 技術이 必要하며 온 國民이 科學文明의 發達에 適用해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技術까지를 兼備한 사람을 말한다.

셋째, 近代化는 合理的·能率的·生産的 思考와 行動에서 이루어 진다. 우리社會에는 아직도 不合理·非能率的·非生産的인 陋習이 구석구석에 아 있으며, 그것은 國民의 前近代的인 生活環境과 마음 속의 不條理에서 起因한다. 그러므로 10月 維新은 모든 國民을 이러한 現代的인 새 價值觀에 透徹케 함으로써 비로소 그 完遂가 保障될 것이다.

라. 우리는 歷史的인 一大 革新期에 살면서 “나와 우리”, “나와 國家”, “나와 民族”이라는 透徹한 共同運命體 意識과 아울러 現代에 살면서 祖 祖國近代化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生活觀念을 가진 韓國人을 育成 하자는데 基本 目標가 있는 것이다.

### 3. 教育體制의 刷新과 “國籍있는 教育”의 強化

#### 가. 教育 體制의 刷新

“참다운 새 韓國人”의 育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教育의 모든 體制가 整備되고 刷新되어야 한다. 舊態依然한 教育行政, 學校經營,

우리의 運命 開拓을 위한 自主・自立・自助하는 獨立精神인 것이며 祖 國統一에 對備한 民族 主体勢力을 形成해 나가는 愛國精神이다.

民族 正統性이란 우리가 바로 南北對話를 推進해감에 있어서 半万年 歷史의 悠久한 傳統과 文化遺産 및 얼을 이어 받은 <우리 民族의 主体勢力>임을 뜻한다. 民族 傳統性的 自覺이야 말로 오늘의 우리 國民들의 總力安保 態勢를 確立함에 있어 矜持를 가지고 自發적으로 그에 參與할 수 있는 精神的인 契機를 마련해 줄 것이다.

#### 가. 國家・民族意識의 鼓吹

維新課業 遂行的 精神的 支柱는 온 國民이 利己的 個人主義를 止揚하고 社會적으로 連帶意識을 굳게 가지며 文化的으로 民族의 情緒와 祖上의 빛나는 얼을 繼承 培養하는데 있다. 따라서 國家와 民族의 利益을 앞세우고 國家中心, 民族中心의 次元에서 바로 내가 主体的인 國民 내지 民族의 一員이라는 強力한 共同運命體 意識을 透徹히 심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國史 및 國語教育 等を 強調하여야 한다.

#### 나. 安保教育 体制의 強化

安保教育이란 國家保衛에 이바지하는 教育을 뜻하며 國家保衛란 主權과 國土를 지키는 일을 말한다.

우리의 安保는 國民總和에서 더욱 鉄桶같은 完璧을 기해야 하며 總力에 의한 國家保衛와 民族의 正統性은 무엇보다 安定과 秩序의 土台 위에서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一旦 有事時에 對備하고 나아가 統一을 指向한 總力安保 体制의 確立을 위하여 앞으로도 繼承 軍事教育에 徹底를 기한다.

#### 다. 反共教育의 強化

唯一思想으로 體制화된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本性에 비추어 南北對話를 推進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共產主義 社會의 正體에 대한 批判的 眼目과 自由 民主社會의 優越性에 대한 透徹한 信念을 기르고 國家安保를

### 3. 새마을 教育의 深化

— 勤勉 · 自助 · 協同精神의 生活化, —

새마을 教育이란 國民教育 憲章의 理念아래 學校教育을 통하여 學生과 鄉土社會 住民들에게 勤勉 · 自助 · 協同의 새마을精神을 涵養하고 이를 우리 民族의 國民性으로 昇華시킴으로써, 恆久的인 鄉土開發과 國家發展의 原動力으로 삼는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마을教育의 深化를 위하여 教育課程 運營, 學習指導, 學校開放, 成人教育, 奉仕活動, 鄉土社會의 教育, 文化活動의 調整 및 主導에 있어서의 創意性 發揮와 計劃的인 實踐에 最善을 다함으로써 鄉土開發의 센터가 되는 일은 실로 “國籍있는 教育”을 推進하는 立場에서나 이 나라의 教育風土를 刷新하고 國家發展과 平和統一에 直結되는 教育의 革新運動이라는 見地에서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 가. 教育過程 運營의 鄉土化

새마을精神의 生活化는 教育課程의 全領域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바 鄉土社會의 各種 生生한 課題들을 教育課程에 果敢히 導入하여 勞作과 實踐을 통해 着實히 改善 解決되도록 運營할 것이며, 鄉土社會의 人的 · 物的 · 文化的 資源은 鄉土開發을 위한 善 教育의 資料로 活用하여 學習의 效果를 크게 거둘 수 있도록 指導方法을 多樣化한다.

#### 나. 成人教育의 擴充

이제 우리 教育者는 다만 8百萬 靑少年의 스승에서 5千萬 겨레의 스승이 된 自負와 矜持를 갖고 祖國 近代化를 통한 民族中興의 새 歷史創造의 先導的 役割을 擔當하여야 하며 學校教育의 社會化 機能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모든 施設을 開放 活用하고 農閑期를 利用한 “새마을 學校” 開設 등을 통한 鄉土住民의 낡은 意識構造와 生活改善 및 所得增大를 指向한 成人教育에 힘쓴다.

- 6) 學校는 그 郷土社會의 科學·生産技術의 振興을 통하여 所得增大를 위한 指導와 示範的인 役割을 한다. (科學·生産教育)
- 7) 學校는 모든 施設을 郷土社會 開發을 위한 諸活動의 센터를 開放한다. (學校開放)
- 8) 學校는 郷土社會의 教育, 文化活動을 調整하고 그 推進의 主導的 役割을 擔當한다. (文化活動 主導)  
 ※새마을 教育 推進上의 留意點.  
  - 1) 教育課程의 正常的 運營을 沮害해서는 안된다.
  - 2) 學校教育和 새마을 教育이 別個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學校教育의 全領域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3) 모든 奉仕活動은 教育的인 配慮가 前提되어야 한다.
  - 4) 조용한 活動 雰圍氣를 維持하면서 推進해야 한다.
  - 5) 外形的이고·展示的이고·煽動的인 推進이 아니고 分析的이고 차분한 活動이 되어야 한다.
  - 6) 모든 教育活動은 새마을精神과 關聯하여 指導하여야 한다.
  - 7) 基礎學力 管理를 徹底히 해야 한다.
  - 8) 敎員의 勤務能力을 考慮해야 한다.
  - 9) 他機關의 協調는 깊은 教育的 配慮가 있고 난 뒤에 實施한다.
  - 10) 學校의 実情이나 教育的인 面을 無視한 劃一性을 避해야 한다.

#### 4. 保健·體育 教育의 強化

— “誠實한 마음과 튼튼한 몸.” —

“體力이 곧 国力.”이라는 올바른 體育觀 아래 保健·體育 教育이 人間



되기 때문임을 銘心해야 한다.

가. 実験・実習・劳作・技能 教育의 強化

実験・実習을 통한 科学技術의 基礎 原理를 体得하고 探究力 및 創意力을 開發하며 劳作하는 習性和 技能을 尊重하는 教育風土를 造成하기 위하여 実験 実習 施設 및 機構의 整備 活用과 그 管理에 徹底를 기하고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重点的 投資를 優先한다.

나. 指導方法의 改善

科学技術 教育 成果의 極大化를 위하여 先進 國家에서 開發된 새로운 科学教育 方法에 依據, 実験・実習 爲主로 教材를 再構成하고 特히 基本原理 教育에 徹底를 기하며, 아울러 科学技術 擔當 教師의 資質 向上과 教育方法의 多樣한 開發 및 그 最適化에 注力한다.

다. 産学協同 体制의 強化

80年代初에 國民總生産이 中進國 上位圈에 들어설 밝은 未來像을 指向하는 維新課業 遂行에는 優秀한 生産技術 教育을 받은 人材의 養成이 무엇보다도 強調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教育機關과 모든 公・私立 研究機關 및 生産企業체와의 積極的인 協同体制 確立이 必要하다. 모든 教育機關 特히 實業教育機關의 自体教育 強化는 勿論 優秀한 施設과 技術은 具備한 校外施設을 活用하여 보다 熟鍊된 生産技術人을 養成함과 同時에 研究와 奉仕를 郷土産業과 國家經濟 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生産教育에 注力한다.

### Ⅲ. 民主主義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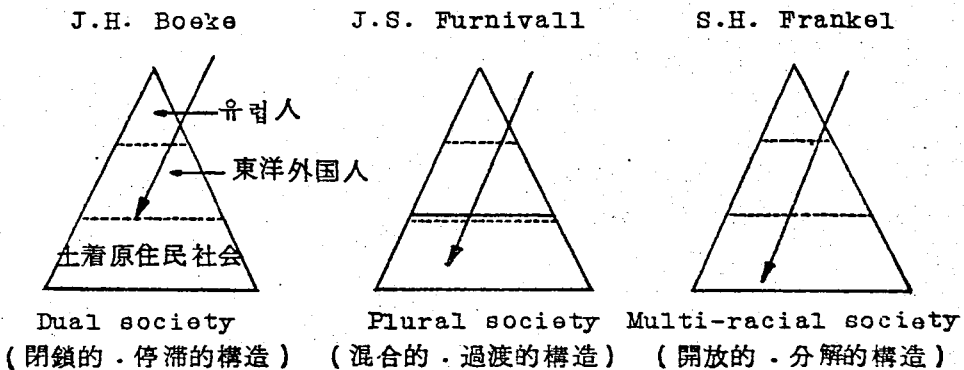
#### 第 1 章 新生國の政治的發展と 傾向

# 第1章 新生國의 政治的 發展과 傾向

## 1. 類型에서 본 後進社會의 特徵

(1) 부우케 ( J.H.Boeke ) 가 인도네시아, 휘니발 ( J.S.Furnivall ) 이 버어마, 그리고 프랑켈 ( S.H.Frankel ) 이 남아프리카를 각각 研究하여 後進社會의 構造的 類型을 提示하고 있다.

부우케가 研究한 인도네시아의 社會는 輸入된 유럽資本主義社會 ( an imported western capitalism ) 와 土着의 前資本主義的 農村社會 ( a precapitalistic agrarian community ) 가 各其 固有의 2개의 다른 社會經濟體制로 竝存하며, 兩者 사이에 한편에서 또한편으로 移行하는 過渡的 關係가 存在하지 않는 二重社會 ( dual society ) 또는 二重經濟 ( dual economy ) 다. 이와 같은 부우케의 社會二元主義 ( social dualism ) 에 있어서는 土着의 體制는 外來的인 體制가 주는 近代化的 分解作用에 對하여 頑強한 抵抗을 나타내며, 土着體制의 周圍에서 多少間의 分解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核心에 있어서는 固有의 體制를 保有함을 말해 준다. 土着體制의 이 頑強한 抵抗은 아시아社會의



하여 競争하는 반면에, 原住民社會을 蚕食하여 地方經濟를 掌握하며, 土着民과 近代世界와를 遮斷시키는 緩衝器의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經濟的 利害의 對立과 人種的·宗教的 反感에 依하여 強化된 社會的 緊張과 分裂이 複合社會의 本質的 特徵이다.

三重의 人種的 階級으로 構成되는 複合社會에는 各 集團은 固有의 宗教·言語·思想·慣習을 가지며 거기에는 統一된 共通의 社會意思是 存在하지 않는다. 그리고 東洋外國人의 社會·經濟的 役割에 依하여 外部的인 衝擊에 依하여 일어나는 構造的 變化는 急激한 分解過程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比較的 安定的인 過渡的 樣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부우케와 휘니발의 分岐點은 결국 東洋外國人의 社會·經濟的 役割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즉, 부우케가 東洋外國人 經濟가 別個의 社會·經濟體制를 形成하지 않고 유럽資本主義體制의 單純한 派生物이라고 본 데 對하여, 휘니발은 前資本主義와 高度資本主義와를 架橋하는 媒介的 機能을 한다고 보았다.

(3) 후랑겔 (S.H. Frankel) : 후랑겔은 多人種社會 (multiracial society)의 理論을 展開한다. 후랑겔이 研究한 南아프리카의 社會는 인도네시아나 버마와 같은 東南아시아의 社會보다도 近代的 資本主義의 심한 衝擊에 依하여 急速히 分解過程을 걷고 있는 社會다. 즉, 封建的 내지 家父長的인 意圖를 가지는 組織 및 近代的인 開放的 經濟社會와의 中間에 있는 社會다. 따라서 開放的·分解的 構造를 가지는 社會다. 그리고 후랑겔이 社會의 人種的 構成에 着眼하여 人種의 差異가 一種의 産業化의 카스트 (industrial caste)를 構成하여 人種 때문에 生産力의 發展이 制約된다는 것을 指摘했다는 點에서 휘니발의 複合社會의 特徵과 類似性을 가진다. 그러나 휘니발의 社會에 있어서는 分解過程이 急激하지 않고 比較的 安定的이며, 따라서 社會構造가 立體的인 點에 對하여 후랑겔에 있어서는 資本主義의 浸透作用으로

治權力이 革命的 變動의 産物인 새로운 엘리트에 依하여 行使되는 社會를 말하고 있다.

## 2. 後進社會의 一般的 特徵

콜만 ( James S. Coleman ) 은 先進社會 ( advanced society ) 를 近代社會 ( modern society ) , 後進社會를 近代化의 變化過程에 突入한 過渡的 社會 ( transitional society ) 로 각각 定義하고, 近代社會에 對하여 相對的인 後進社會의 共通的 一般的 特徵을 說明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近代社會의 一般的 特徵은 相對的 高度의 都市化, 高度의 文字解得率, 高位의 個人所得, 廣範한 地理的·社會的 流動性, 經濟의 高度의 商業化와 産業化, 媒介體의 廣範하며 浸透的인 組織網 및 廣範한 社會的·經濟的·政治的 參與로서 要約된다.

近代社會가 이와 같은 特徵을 가지기 때문에 이 社會的 基盤위에 세워진 近代的 政治體系 ( modern political system ) 는 政治構造 ( political structure ) 와 統治構造 ( governmental structure ) 가 高度로 分化되어 明確性과 機能的 分化를 가지면서도 하나의 政治體系로서 各其 政治的·執行的 機能을 爲하여 調整的 役割을 하며 統合性을 가진다는 데 近代的 政治體系의 特性이 있다.

이에 對하여 그는 後進社會의 共通的인 一般的 特徵을 ① 社會的·經濟的·政治的 過程의 混合性, ② 統合性의 欠如, ③ 傳統的인 大衆과 유럽化된 엘리트 사이의 커다란 罅의 3개로 要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特徵은 각기 다음과 같은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1) 社會的·經濟的·政治的 過程의 混合性으로 부터 論하기로 한다. 後進社會는 農業的 經濟構造를 가지며, 國民 大多數가 文盲이며 國民所得이 低位에 있다. 뿐만 아니라 地理的 流動性이 都市에서는 相對的으로 高位에 있으나 나머지 다른 農村에서는 低位에 있다. 그러므로



### 3. 政治過程에서 본 特徵

파이 ( Lucian pye ) 는 政治文化에 主眼點을 두고 유럽과 對照的으로 非유럽的 政治過程 ( non-western political process ) 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17個 要素로 說明하고 있다.

① 政治的 領域과 社會的 領域의 未分化를 든다. 傳統社會는 言語·宗教·人種 또는 種族에 있어 多元的 構造를 가지며, 結社가 이들 前近代的인 要素를 基盤으로 組織되어 宗團主義的 ( communal ) 組織形態를 取하여 基本的인 政治關係가 宗團主義的 性格을 가진다. 그러므로 社會的 身分이 政治權力, 影響力 및 權威의 基盤이 되어 政治關係가 社會的·人格的 人間關係에 依하여 大體로 支配된다.

② 政黨이 世界觀 및 共同社會의 生活樣式을 表現하는 傾向이 있음을 指摘한다. 이것은 政黨이 具體的인 原則이나 政策을 위하여 組織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構造의 前近代的 要素로 因한 多元性을 反映하여 共同社會를 基盤으로 하는 共同社會政黨 ( community political party ) 의 組織形態, 이를테면 政治가 宗團主義的 테두리 ( communal framework of politics ) 를 取하기 때문에 具體的인 問題解決을 위한 政策보다도 全一體로서의 共同社會의 抽象的인 世界觀이나 生活樣式을 表現하게 됨을 말한다.

③ 政治過程이 同僚集團의 優越性에 의하여 特徵지워짐을 든다. 이것은 傳統社會에서는 社會的 機能이 分化되어 있지 않아 固有의 政治的 領域을 欠如하며, 또 政黨이 生活樣式이나 世界觀을 表現하므로 政策決定에 있어서 人格的인 同僚集團이 單位가 됨을 말한다.

④ 政策決定에 있어서의 指導者의 高度의 自律性을 든다. 政治가 宗團主義的 테두리를 가지며, 政黨이 世界觀이나 生活樣式을 表現하므로 成員의 政治的 忠誠心은 政策目標에 對한 一致보다도 純粹한 集團에의

獨立을 爭取한 以後에도 繼續 政治的 指導權을 繼承하고 있으나, 이미 新世代는 이들을 舊世代로 보며, 따라서 現實政治에 있어 不可欠의 指導者로 보지 않음을 말해 준다.

⑨ 政治的 見解에 關한 엘리트와 大衆 사이의 罅을 든다. 舊植民地時代에 있어서 유럽文化의 土着地에의 移植이 地域的으로나 人的으로 보아 不均等한 結果, 中央과 地方 또는 傳統的인 大衆과 유럽化된 엘리트 사이에 커다란 罅이 생기므로써 이들 사이에 政治行動의 合法的인 手段과 方法에 關하여 見解의 一致를 欠如하고 있음을 말한다.

⑩ 政治的 決定이 政治的 討論과 無緣함을 든다. 이미 列挙한 여러 가지 特徵, 즉 政治關係와 人格의 人間關係의 未分化, 政黨의 世界觀表現, 政策決定에 있어서의 指導者의 自律性, 政治的 競爭이 지니는 排他的인 對立性, 單一政治의 罅 등으로 政治的 決定이 社會에서의 討議過程이나 輿論과는 無關係하게 이루어짐을 말한다.

⑪ 高度의 役割의 代行性( substitutability of roles )을 든다. 非유럽的인 後進社會에서는 社會的 機能의 未分化로 役割體系( role system )가 確立되어 있지 않으며, 特히 政黨의 未發達로 政治過程에 있어서 政黨이나 利益集團보다도 官僚나 軍이 支配的인 役割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役割體系의 未確立에서 오는 이들 制度的 集團의 役割의 代行性은 役割의 葛藤과 社會的 不安을 反映하는 것이다.

⑫ 機能的으로 分化된 利益集團의 欠如를 든다. 이것은 役割 또는 機能의 未分化로 機能的으로 分化된 專門的이며 具體的인 特定한 役割을 遂行할 組織化된 利益集團이 적음을 말해 준다.

⑬ 指導者가 未分化的인 全一者로서의 國民에게 呼訴해야 함을 든다. 이것 역시 社會的인 未分化 및 政治的 宗團主義的 性格 때문에 政黨이나 그 指導者가 分化된 具體的인 利益의 呼訴보다도 하나로서의 國民에게 政治的으로 呼訴하게 됨을 말해 준다.



統一을 爲한 象徴은 오히려 宗教的·傳統的 또는 카리스마的인 것과 結付된다. 이와 같은 非制度的 領導力의 必要性은 카리스마的 指導者의 登場을 刺戟한다.

⑰ 政治過程이 政治的 媒介者 ( political broker ) 를 欠如함을 指摘한다. 代議制의 運營을 爲해서는 政治的 媒介者가 必要하다. 政策 및 行政의 問題가 이들 媒介者에 의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說明된다. 異質的인 利益의 對立이 競争的인 政黨 및 利益集團의 指導者 또는 影響力 있는 人士를 媒介者로 하여 解說되고 討議되는 過程을 통하여 國家利益으로 統合된다. 그러나 新生國에서는 이들 政治的 媒介者가 政治的 爭議點을 解說하느니 보다는 엘리트의 意思를 엘리트의 立場에서 國民에게 傳達하는데 不過하며, 機能的으로 分化된 利益集團의 出現을 刺戟하게끔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다.

#### 4. 政治的 不安定과 政治體系의 多樣性

實質的으로나 潛在的으로 國際政治에 있어 權力の 中心으로 되어온 美國, 蘇聯, 中共, 그리고 유럽과는 달리 西·阿, 中東 및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地域은 統合性的 欠如, 經濟的 貧困, 그리고 文化的 異質性 속에 權力の 真空狀態를 이루었다. 이들 後進地域의 가장 뚜렷한 特徵은 政治的 不安定에 있다.

回顧컨데 1958 年은 新生諸國에 있어 民主憲政이 崩壞하는 해였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는 一部國家가 民主政治를 拋棄하였고, 아시아에 있어서는 파키스탄, 버마에 있어서는 軍部가 執權하였고, 인도네시아는 權威主義的 支配를 한층 더 強化하였다. 泰國에서는 송그람 ( Pibul Songram ) 에 代身한 타나랏트 ( Sarit Thanarat ) 가 獨裁政治를 強化하였다. 中東에서는 나세르 ( G. A. Nasser ) 의 支配下에 統一아랍共和國이 樹立되고, 이라크에서는 카심 ( A. K. Kassim ) 將軍이 執權하였고, 레바논과 요르단도 다같이 政治的 不安에 威脅되고 있었다. 사하라以南 아프리카

Brecher 의 政治體系의 分類

아 시 아		中 東		라틴아메리카	
民主主義 (英美모넬)	蘇聯 및 中共모넬	그 밖의 權威 主義	民主主義	民主的	權威主 義 的
日 本 國 度 韓 印 필리핀 말레이아 지 실	中 北 越 韓 盟	軍 部 獨 裁 民 間 獨 裁 市 民 軍 部 獨 裁 絕 對 君 主 政	民主主義 이스라엘 레바논	民主的 우루과이	權威主 義 的 쿠 바
		泰 國 버마 파키스탄	非共產主義 의 權威 主義 各 種 形 態 의 軍 事 政 權 이 집 트 이 이 터 에 시 리 아	君主 立憲君 主 政 사우디 아라비 아	
		越 南 인도 네시 아		君主 立憲君 主 政 이 란 요르단	

가 通行되고 있다. 이것을 뢰벤슈타인은 新大統領制 (neopresidentialism) 라 불렀다. 新大統領制라는 權威主義 政治는 歷史的으로는 나폴레옹 1世, 그리고 南美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낫세르政權과 旧李承晩政權도 이에 속한다.

後進國에 있어서의 權威主義 政治는 카리스마의 指導者와 結付된다. 낫세르, 움크르마, 수카르노, 네루, 그리고 韓國에 있어서 李承晩大統領은 이들 카리스마的 指導者에 속한다. 막스 웨브는 支配의 理想型의 하나로써 傳統的 支配 및 合法的 支配와 더불어 카리스마的 支配樣式을 들었다. 그러므로 그에 있어 카리스마는 超歷史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터 (David E. Apter) 는 歷史的 過程으로서의 카리스마의 概念을 提起하여 後進國에 있어서 카리스마의 積極的 役割을 分散的 에너지의 統合에 구하고 있다. 變化過程에 있는 後進國에 있어 民族主義는 異質的인 要素를 克服하고 새로이 民族을 形成하는 過程이다. 人種·宗教·言語 등 여러 異質性에도 不拘하고 民族主義運動이 統一된 運動의 形態를 취하는 것은 對外的으로는 外國支配로부터의 解放,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前近代性으로 부터의 解放이라는 共通目標을 가진다는 데 主要動機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目標達成을 위하여 巨대한 國民大衆의 에너지를 요한다. 이 에너지의 造出을 위해서는 카리스마的 指導者의 登場을 또한 刺戟하게 된다. 이 카리스마的 指導者는 知識層의 出身이다.

오늘날의 政治는 知識層의 政治이다. 카우츠키 (John Kautsky) 에 의하면 蘇聯의 共產獨裁는 黨의 獨裁가 아니라 黨을 움직이는 知識層의 獨裁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政治는 이데올로기의 差異, 또는 先·後進性의 差異를 不問에 붙이고 知識層에 의하여 左右되고 있다. 그러나 後進國의 知識層은 실즈 (E. Shils) 가指摘하듯 對立主義 (oppositionalism) 의 惡德이 旧植民地時代 以來 培養되어 왔다.

## IV. 國際情勢와 韓國

第 1 章 美國의 對外政策

第 2 章 蘇聯의 對外政策

第 3 章 中共의 對外政策

第 4 章 日本의 對外政策

# 第 1 章 美国의 对外政策

## 1. 美国의 世界政策

### 가. 變化한 世界情勢

닉슨 美国大統領은 1970年 2月 18日 그의 첫 外交敎書에서 國際關係에 있어서 戰後時代는 끝났다고 強調하면서 世界情勢의 變化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첫째로 유럽과 日本이 經濟力과 政治的 生動力을 回復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相應하는 役割을 賦与하기 위하여 西欧 및 日本과 美国間에 役割의 再調整을 必要로 하고 있다.

둘째로 過去 植民帝國的 解体로 인하여 생긴 新生諸國들의 自助의 能力이 增大하여 이들이 漸次 自己의 安保와 福祉를 스스로 堪當할 수 있게되었다.

세째로 共產圈의 分裂로 인하여 共產國家中에는 美国과 그 友邦에 대한 挑戰에 国力과 資源을 기우리던 態度를 바꾸어서 世界革命의 追求보다는 그들 自國의 國家利益을 優先하여 追求하는 傾向이 생기게 되었다.

네째 戰略的 軍事力에 있어서 美国이 絶對的인 優位性을 確保하고 있던 狀態가 終末을 告하게 되었으며 美国과 蘇聯을 核武力에 있어서 戰略的 均衡을 維持하게 되었다.

다섯째 美国民들 間에 다른 나라들이 世界的 리더십의 責任을 分擔해야 할 때가 왔다는 確信이 漸次로 增大하였으며 따라서 美国의 役割을 보다 責任性 있는 狀態에서 그리고 制限된 狀態에서 維持하여야 한다는 輿論이 支配的이다.

### 나. 새로운 对外政策 原理

以上과 같은 새로운 情勢 造成에 따라서 美国은 새로운 对外政

領의 1972年 2月 9日의 外交敎書에서 紹介해 보았다.

美國은 이러한 原理에 立脚하여 1971年 여름 中共과의 劇的인 和解를 위한 政策을 決定하였으며 1972年 2月 下旬 닉슨 美國大統領의 中共訪問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蘇聯과는 1971年 2月 海底에서의 大量破壞武器의 實驗을 禁하는 條約에 合意하였고 9月에는 伯林에 관한 4 大國條約을 締結하여 伯林이 다시는 國際的 對決의 場所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成功하였다.

이어서 1972年 5月 닉슨은 蘇聯訪問의 準備가 이루어진 것이다. 닉슨大統領의 蘇聯訪問은 勿論 中共訪問에 이은 것이기는 하나 美·蘇關係의 再調整을 통하여 世界的 緊張緩和의 基礎를 마련하는 決定的인 契機가 되었다.

美·蘇 兩首腦는 1972年 5月 29日의 共同聲明에서 12個項에 걸친 「美合衆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 共和國聯邦과의 關係의 基本原則」을 發表하였다.

여기서 美·蘇兩國은 核時代에 있어서 平和共存을 바탕으로 相互關係를 處理하는 外에는 다른 代案이 없다는 事實을 確認하고 美·蘇間의 理念上 및 社會體制上의 差異를 主權平等, 內政不干涉 및 互惠의 原則에 立脚하여 正常關係를 發展시키는데 障礙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美·蘇兩國은 核武器의 優勢한 保有者로서 國際關係에서 危險스러운 軍事的 對決을 피하기 위해 努力을 해야 할 義務가 있으며 그리고 다른 유엔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과 더불어 國際緊張을 增大시킬 紛爭이나 狀況이 일어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할 特別한 責任이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要컨대 美國은 오늘날 世界政治의 多元化 傾向에도 不拘하고 弱極의 으로는 蘇聯과 美國 두 나라가 世界平和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한다는

아시아에만 適用되는 것은 아니었다.

닉슨大統領의 70年代의 美國 對外政策이 中共과의 關係設定에서 始作되고 그 政策의 基本이 닉슨·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닉슨·독트린은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基底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닉슨·독트린은 특히 美國이 아시아에 있어서 現狀維持政策을 밝힌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中共, 越盟 그리고 蘇聯과의 協商의 基盤을 마련하게 되었다.

닉슨大統領은 이러한 事實과 關聯하여 1972年2月9日의 外交敎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國의 基本的인 利害關係와 깊은 歷史的인 關与는 美國으로 하여금 太平洋國家로서 繼續 存在해 주기를 要請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 友邦國들의 날로 커가는 國力과 自信을 反映하는 아시아情勢에의 美國의 關与는 새로운 形態를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安全保障과 進歩를 保障하는데 있어서 美國의 資源計劃 그리고 軍事力이 唯一한 手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事實에 맞지도 않으며 또 所望스러운 길도 아니라고 하고, 아시아問題에 關係가 있는 美國, 蘇聯, 日本 및 中共이 이 地域의 安定을 위한 새로운 政治構造를 創設하는데 一定한 役割을 할 것이며 이를 可能케 하기 위하여 美國이 積極的으로 나서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은 아시아에 있어서 安定을 위한 政治構造를 創設함에 있어서 日本, 蘇聯 및 中共등이 參與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美國의 積極的인 役割이란 點을 잊지 않고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點이 닉슨·독트린에서 強調되지 않고 있으나 美國政策의 基本이 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있을 수 있는 損害를 미리 카버해 놓았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蘇聯의 아시아 浸透에 대하여 美·中共이 共同으로 反對한다는 뜻에서, 上記 上海共同聲明에서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의 霸權의 追求를 反對한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美國이 中共과 새로운 關係를 設定한 것이 單純히 中共과의 關係를 改善하였다는 말로서는 說明이 不足하며 上記와 같은 美國의 對蘇世界政策的인 立場에서 解釈하여야 할 것이다. 즉 1972年 2月下旬의 上海共同聲明은 蘇聯을 假想敵으로 規定하는 美·中共의 對蘇政策의 表示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美國은 이 共同聲明으로 一次的으로는 蘇聯, 二次的으로는 日本을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牽制한다는 뜻에서 美國의 對中共政策 속에서의 아시아政策的 次元을 窺見한다.

즉 美國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公約은 지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現狀을 維持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시아地域에 있어서 蘇聯의 浸透와 勢力膨脹을 막기 위해서는 中共의 對蘇牽制 勢力으로서의 協力が 必要하기 때문에 上記한 上海共同聲明이 나온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上海共同聲明에서 中共이 日本의 軍國主義復活과 對外膨脹을 反對한다고 하였고, 美國은 日本과의 現在의 緊密한 紐帶關係를 維持 發展시킨다고 하였다. 여기서 美·中共은 現存하는 美·日安保條約이 곧 中共이 원하는 日本의 軍國主義復活과 對外膨脹을 反對하는 手段이라는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美·中共의 上海共同聲明은 一次的으로는 蘇聯의 浸透를 막고 二次的으로는 日本의 膨脹을 牽制하기 위한 것이라는 解釋이 可能하다.

美國의 對中共政策은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等政策的 考慮에서 展開되고 있는 面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美國도 日本과의 安保條約關係를 中共으로부터 既定事實로 認定 받았으며, 이 美·日安保條約이 美國의 아시아政策의 軍事的인 面에서 基本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73年3月17日 當時의 美國防長官은 日本 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美國의 世界的 軍事戰略에는 越南戰爭 締結에도 不拘하고 變化가 없다고 하고, 美·日安保條約이 性格을 軍事的인 것으로 부터 單純한 友好精神의 宣言的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國際的인 均衡에 대해 深刻한 不安定 要因이 된다. 따라서 美·日安保條約은 美國이 日本 및 아시아의 他同盟國에 대해서 防衛公約을 다하기 위해서이며 이런 점에서 아시아安保의 礎石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美·日安保條約은 美國의 아시아戰略이 中樞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 3. 美國의 對韓政策

美國의 對韓政策의 基本은 韓半島 全部가 美國의 國家利益과 軍事戰略上 敵對的인 關係에 있는 나라의 影響下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立場은 第2次大戰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美國이 極東政策의 基本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蘇聯이 地中海, 中東, 印度洋 등으로 進出해온 現狀에서는 이 以上 더 勢力均衡에 있어서 不利하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戰略的 價值는 越南戰爭以後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越南戰爭 終結과 더불어 美國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軍事力的 姿勢의 修正이 論議되고 있고 地上兵力의 減縮이 進行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본대로 地中海·印度洋등에 蘇聯의 海軍力이 나타났고 韓半島의 東海가 蘇聯의 極東基地에 沿海 있다는 事實을 勘案한다면 韓半島의 現狀維持는 대단히 큰 戰略的 重要性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런 點은 現在의 中·蘇關係의 性格上 美國의 支援을 받는 韓國의 存在는 中共에 대해 保護壁과 같은 役割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韓國의 位置가 日本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에서 본다면 韓·美防衛條約과 韓國의 存在는 이미 韓·美兩國만의 關係事가 아니라 日本, 中共의 關係事인 同時에 蘇聯의 關心事일 것이다.

## 第 2 章 蘇聯의 對外政策

### 1. 蘇聯의 對아시아政策基本路線

現代의 意味에서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의 基本路線은 傳統的인 南進政策,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한 아시아諸國과의 關係改善政策 및 強大國間의 關係調整을 優先視하고 있으나 對中共牽制·包圍政策은 現今도 拋棄하고 있지 않다는 3大政策으로 集約시킬 수 있겠다.

첫째 傳統的인 南進政策이라 함은 帝政러시아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一貫되어 오고 있는 政策類型으로서 아시아地域內에 不凍港을 掌握하여 南으로의 勢力膨脹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有利한 條件을 構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으로서는 어떠한 環境의 變化가 아시아地域에 招來한다 하더라도 결코 同政策을 讓步 내지는 拋棄할 수 없다는 論理가 成立된다.

둘째 平和共存政策이라 함은 自己國家 利益의 獲得을 위한 蘇聯外交政策의 基本路線으로서 흐루시초프 以來 現 브레즈네프體制에 이르기까지 異質的인 社會體制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現實的인 戰略이다. 그리

相互 矛盾關係를 如何히 調整하느냐가 問題로 되고 있음도 否定할 수는 없다.

이러한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 採択하고 있는 現實適應理論이 브레즈네프의 原則의 柔軟的實施로 侵略者에 대해서는 非妥協의임과 同時에 流動的인 國際環境에 適應한다는 現實面에 重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現今 推進되고 있는 蘇聯平和共存政策의 一環으로서의 對아시아政策에서 重要的 것은 그들의 基本的인 理論은 社會主義原則의 固守라고 하겠지만 한편 그 原則의 柔軟的인 實施過程에 露呈되고 있는 多様な 戰略과 戰術의 擴大傾向이다. 말하자면 蘇聯이 追求하고 있는 對아시아政策의 目的은 스탈린時代와 같이 共產主義 イデオロギ의 直接的인 移植에 대한 緊要性보다는 現實的인 狀況으로 是認하고 이들 國家와 關係改善을 위한 積極的인 接近策을 企圖함에 있다. 이것은 現 蘇聯 指導層에 의해 強調되고 있는 國家優先主義原則에 立脚한 現實主義政策인바 最近 急激하게 變化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의 國際政治秩序라는 狀況 속에서 蘇聯이 追求하고 있는 目的과 手段間의 相互作用에 있어 보다 合理的인 接近方法을 摸索해 보려는 証示라고 하겠다.

세계 蘇聯의 對아시아政策 遂行過程에서 最惡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것은 中共의 存在이다. 따라서 中·蘇間의 對立과 競合關係는 兩國사이에 基本的인 敵對行爲의 修正 또는 調整이 成立되지 않는 限 相互 衝突을 면키 힘든 것이 現狀況이다. 其實 蘇聯은 中共과의 對立이 極甚해졌던 60年代初부터 아시아, 특히 東南亞地域國家와의 關係改善을 활발히 推進시켰던 바 이에 대한 아시아諸國의 受容態度는 극히 好調的이었다.

그것은 前記한 바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한 蘇聯의 柔軟的 現實政策에 대해 大部分의 아시아國家들은 同條的이었고, 反面 教條主義的이고도 好戰的인 中共의 對外政策路線에 대해 그들의 反應은 非友好的이며 非

策을 遂行하는 過程上에 露呈되고 있는 對外行爲에는 確實히 流動性  
과 柔軟性이 隨伴되고 있음이 特徵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南進政策의 類型을 살펴보면 帝政러시아 때에 強調되어온 領  
土膨脹政策을 통한 슬라브支配圈의 擴張計劃 推進이 戰後 冷戰體制下에  
서의 스탈린時代에는 積極性을 띤 一連의 侵略政策으로 一貫되어 갔  
지만 平和共存을 바탕으로 한 政策的인 轉換期에 접어들면서 부터 南  
進政策의 主目的을 領土의 擴張을 設定하는 것 보다는 現實的인 잇슈  
의 解決을 위한 國家間의 關係調整 내지는 改善에로 그 方向을 돌리  
고 있음이 現狀況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政策的 配慮의 裏面에는 아  
직도 蘇聯의 宿願인 海軍基地의 確保를 위한 必死的인 努力이 現存하  
고 있다는 事實을 排除할 수는 없다.

한편 社會主義 宗主國의 權威와 리더십을 大前提로 한 所謂 「兄弟  
國間의 紐帶關係를 維持強化하여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統一을 完遂하기  
위해」民族解放鬭爭을 積極的으로 支援한다는 것은 現 蘇聯對外政策의  
基本方針임에 틀림 없다.

其實 크레믈린을 中心으로 한 單一支配體制의 形成時期에 있어서 同  
政策은 余他 社會主義國家에 適用되어 온 不動的인 것이었으며 그 一  
環으로 韓半島를 赤化統一시키기 위한 對北韓支援政策은 蘇聯의 立場에  
서 볼 때에도 死活的인 關係에 있었다. 그러나 國際的 環境要因의  
變化 즉 政治的 多元化의 急變한 趨勢를 実感하게 된 蘇聯은 前記  
한 바 民族解放鬭爭支援을 國際的 責務로 是認하긴 하나 그와 같은  
「責務」履行만이 國利增進을 위한 唯一한 政策으로 看做하지 않으려는  
傾向이 顯著해지고 있다. 그 理由는 첫째 現蘇聯對外政策의 基本方向  
이 國際的 環境趨勢에 適應하여 自國을 위한 最大值의 收獲을 獲得하  
려는 現實主義原則에 立脚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蘇聯의 流動的인 現實主義 政策의 本質과 內容이 最小의

的에 利用하려는 意圖에 대해 中共이나 北韓의 反應은 肯定的이었음은 勿論 그러한 蘇聯의 政策만이 그들의 國利와 一致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中·蘇間의 激甚한 對立, 特히 國境紛爭으로 兩國間의 利害得失을 둘러싼 不調和關係와 對蘇牽制를 目的中的의 하나로 새로운 政策 轉換을 斷行한 中共의 對美接近과 自主路線을 宣言한 北韓의 對蘇關係를 再檢討하는 한편 自力更生原則에 立脚한 國內政治力을 再整備 強化하고 있는 傾向이 濃厚해짐에 따라 蘇聯의 對北韓政策도 終前과 같은 固定的인 틀에서 벗어나 보다 柔軟的인 政策配慮가 先行되기에 이르렀다.

例컨대 蘇聯이 北韓에 대한 直接的인 經濟援助 및 軍事援助가 1971年부터 公式的으로 中止되고 間接的인 援助가 相互貿易의 形態로 提供되고 있다는 事實은 앞서 言及한 北韓·蘇聯關係의 不均衡性을 立証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現實的인 事例를 勘案할 때 蘇聯의 對韓半島關與戰略 過程上에 數多한 制約性과 沮害要因이 가로놓여 있다고 보는바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由를 들어 說明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行動主体인 強大國, 特히 美國, 中共, 日本과의 競合的 共存關係에서 볼 때 蘇聯의 位置와 役割은 對等關係에 있는 것이지 결코 어느 한나라 보다 優位의 立場에서 現存均衡과 秩序를 破壞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韓半島問題에 관한 限 美國, 中共, 日本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關係되고 있기 때문에 蘇聯이 一方的으로 能動的인 態度 表明을 한다는 것은 現狀況下에서는 거의 不可能하다는 力学關係가 成立된다.

두번째는 中·蘇對立關係에서 惹起되고 있는 沮害要因이다. 最近 中共이 對外政策을 劃期的으로 轉換시키고 있는 主된 理由의 하나가 時代潮流에 適應한 不可避的인 政策配慮의 隨伴이라고 보겠지만 이와 關聯된 것으로서 優先視하고 있는 것이 對蘇牽制를 위한 多角的인 戰略

바 同声明의 底意에는 最強 軍事力保有국인 蘇聯이 美国과의 共存下에 國際問題의 政治的 調整을 위한 積極的인 參與意思가 內包되고 있다고 보겠다.

### 3. 南北韓의 對話와 蘇聯의 態度

最近 急激하게 進展을 보이고 있는 南北接觸의 變化狀況은 南北韓 國民들에게는 勿論 世界耳目의 焦點이 되고 있다. 特히 戰後 4半世紀 동안 分斷된 韓半島問題를 둘러싸고 相互衝突을 免키 힘들었던 強 大國들의 關心事가 至大해지고 있음은 明白한 事實이다. 南北關係 變化의 動因은 外在性과 內在性에서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變化를 招來케한 根本的인 契機는 韓半島에 直接 間接으로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美·日·蘇·中共이라는 4大強國의 力学關係 調整을 위한 協商테이블의 結實에서 緣由되고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世界秩序의 時代를 맞아 4大太平洋勢力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에 最大 關心을 돌리고 있는 바 昨年 2月27日 上海共同声明에서 美国과 中共은 各 其 南北韓의 緊張緩和을 통한 平和指向을 歡迎하고 있다. 또한 모스크바共同声明書에서도 美·蘇兩國은 特定國을 指稱하고 있지는 않지만 國際的 緊張事態의 誘發을 防止하기 위해 最大의 힘을 傾注한다는 原則에 相互 合意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日·中共間의 頂上會談에서도 一方的인 強大國에 의한 秩序破壞 行爲를 許容할 수 없음을 宣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韓半島를 圍繞한 4大強國의 態度가 緊張緩和 支持趨勢에 轉向되고 있다는 事實은 南北關係의 變化를 刺戟시켜 주고 있는 与件 提示와 直結되고 있다 하겠다. 즉 韓半島에 대한 4大強國의 關心事는 條件에 따라 各其 相異하다고 보겠지만 最小限 緊張을 抑止하고 平和指向的인 姿勢定立의 緊要性을 強調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一

세계 條件에서 蘇聯이 韓半島를 拋棄 내지는 讓步할 수 없는 理由 中의 하나가 對中共關係의 惡化로 인해 派生되고 있는 相互 競合關係 라고 본다. 蘇聯은 最近 幾年 사이에 中共의 北韓과의 接近이 活潑 해지고 特히 이데올로기面에서 北韓의 對中共偏重 傾向의 徵兆가 濃厚 해짐에 따라 格別한 神經을 쓰고 있음이 事實이다. 뿐만 아니라 中共의 對美·對日政策의 好轉에 따라 惹起되고 있는 諸環境變化등을 勘案해서라도 中共牽制를 위한 最大限의 戰略摸索이 不可避해지고 없음을 自認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蘇聯으로서 中共의 對韓半島影響力을 弱화시키기 위해서도 北韓과의 關係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은 勿論, 對美·對日關係의 調整을 통해서라도 中共을 牽制하려는 政策的 代案提示를 하게 될 것인바 이 경우 韓半島에 있어서의 中·蘇의 對立과 競合關係는 南北接觸을 沮害시키는 要因으로 變質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겠다. 네째 蘇聯의 對韓半島關与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重要한 條件은 日·中共政策과 關聯된 것이다. 其實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日·中共政策 如何에 따라 決定線이 設定될 수 있다고도 하겠다.

그것은 아시아地域에 位置하고 있는 日本이나 中共이 異質的인 余他 強大國의 아시아介入을 歡迎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可能한 限 아시아에서의 主導的인 位置에서 政治的 調整役割을 試圖하려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地理的으로 隣接해 있는 韓半島에 대한 日·中共의 關与는 歷史的으로 보나 現在 露呈되고 있는 狀況進展의 趨勢를 勘案할 때 보다 積極性을 띠는 것이 確實視되는 바 이 경우 蘇聯의 韓半島關与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낮아질 可能性이 있다고 보아진다. 다섯째 南北接觸과 蘇聯態度와의 相關關係는 緊張緩和와 平和指向的인 趨勢를 蘇聯 스스로가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限 相衝되지 않는다고 봄이 妥當하겠다. 즉 南北韓 自主 平和統一의 原則的인 合意에 대해서 蘇聯政府는 公式的으로 論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第2次

세계, 平和共存原則을 바탕으로 한 美·蘇의 超強核保有國은 緊張緩和의 趨勢에 따라 軍事力의 下向調整作業에 積極성을 띠고 있음이 現狀이다. 이것은 本來 政治的 目的을 위해 創設된 軍事力을 制限 내지는 減縮시켜 世界의 緊張度를 弱화시키기 위한 政治的 調整에 있어서의 美·蘇位置의 重要性 強調를 意味한다. 이런 觀點에서 美·蘇兩國의 韓半島의 緊張解消를 위한 調整役割은 南北對話推進의 뒷받침이 된다고 본다. 즉 南北關係의 先行條件인 戰爭 없는 平和의 論理를 合理化시킴에 있어 美·蘇의 平和破壞抑止作用은 아직도 尚存하고 있다고 보는 이른바 北韓의 「革命」과 「戰爭」을 拋棄케 하는데 큰 效果가 있다는 것이다.

네째, 蘇聯의 南北關係에 대한 影響力 行使에 있어 制約的인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은 中共의 存在이다. 韓半島에 있어 中·蘇對立 現象은 相互牽制를 위한 政治的 操作으로 얽혀 있다. 中共은 表面的으로는 對美·對日交涉을 통해 南北韓의 平和的 接近을 言及하고 있지만 實際的으로는 北韓과의 積極的인 紐帶強化를 통해 北韓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을 弱화시키려는 傾向이 濃厚해지고 있으며 反面 蘇聯은 對中共牽制 強化策의 一環으로 아시아諸國과의 關係正常化를 活潑히 推進시키고 있다. 要件대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을 樂觀的으로 評價한다는 것은 時期尚早라고 하겠지만 最小限 中共의 對半島關与作用이 強하면 強할수록 相對的으로 蘇聯의 對中共牽制作用도 積極성을 띠게 될 것이 確實하다.

이와 같은 中·蘇間의 相衝된 現象은 오히려 南北關係를 自律的으로 推進시킴에 있어 「失」보다는 「得」이 앞선다고 判斷된다.

마지막으로 南北韓의 接觸에 대한 蘇聯의 態度는 現時點에서 보아 肯定的이라고 보겠다. 그것은 韓半島를 圍繞한 4強國의 力学關係調整을 위한 相互間의 牽制作用으로 보나 또는 南北韓 自體의 平和的인 接近을 위한 努力이 進展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로 보아 결코 蘇聯에 不利한 與件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델이고, 將來 유럽經濟의 死活은 對中貿易量에 依存할 것으로 前提하고 中國의 巨大한 人口, 広濶한 領土, 獨特한 政治文化( political culture )를 革命의 潜在力으로 看做했다.

이런 假定에 立脚하여 레닌도 當時 中國에서 展開되고 있는 國民革命을 反帝鬪爭의 核心으로 看做하였고, 그래서 두차례에 걸친 카라칸 宣言( karakhan proposal )과 2段階 中國革命論은 中國實情에 附合되는 處事였다.

中國의 共產革命은 蘇聯의 支援에 依存했지만, 蘇聯의 支援에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井崗山鬪爭을 통한 獨自의 革命路線을 追求하여 蔣介石 政權의 脆弱點만을 꼬집으므로써, 全滅의 危機에서 蘇生發展을 期하고 共產主義의 土着化를 試圖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毛澤東思想은 元素로 化合된 共產主義 結晶으로된 民族主義로 反帝. 反封建 反資本主義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農民階級鬪爭의 綱領으로 設定하고 있다. 大衆의 支持를 얻어 黨이 統制하는 警察國家를 建設하고, 打天下思想에 의한 政治掛首( politics command )를 信奉, 工業과 農業의 社會主義化를 위해 먼저 反帝. 反封建. 反独占資本主義革命을 達成한다는 것이 毛澤東思想의 精髓라 할수 있다.

## 2. 基本外交政策

一般的으로 中共의 對外政策을 強·穩 兩側面에서 보는 主張이 있어왔다.

現中共은 傳統的인 中國帝國과 같이 防禦的이고 消極的인 對外立場을 취하는 穩建路線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見解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中共이 共產國家이므로 國際프롤레타리아革命을 追求하지만 힘의 限界性 때문에 現在까지는 美國의 封鎖政策과 蘇聯威脅의 防禦的 對處에 汲汲해 왔고, 蘇聯의 對外政策이 帝政러시아時代의 對外政策과 大同小異하다

스탈린은 共産党的 外交政策을 “蒸氣없는 물과 쇠로 만든 돌”에 比論했다 ( a stone made by iron and water without moisture ). 蘇聯外相을 지낸바 있는 비신스키 ( Andrey Y. Vyshinsky )에 의하면 『戰爭은 軍事力에 의한 戰爭임에 反해 外交는 平和的 方法에 의해 遂行되는 戰爭으로 이것은 海外에 派遣된 代表와 官吏가 遂行한다』고 規定했다.

中共이 發刊한 新語字典에 따르면, 『外交는 国内政權의 拡張으로 政治, 經濟, 社会, 文化等 諸般事項을 통해 國家間에 相關關係를 維持하는 것이며 外交政策과 外交는 計劃 自体와 實踐의 關係에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外交는 国内政治와 不可分の 關係를 지니고 있으며, 政治主權에 合致해서 決斷하고, 政治主權의 本質에 立脚한 路線에 따라 對外政策이 決定되는 것이지 결코 兩者択一格인 것이 아니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같은 概念에 따라 中共은 現世界를 發展하는 社会主義國家, 没落하는 資本主義國家, 戰後 植民地狀態에서 解放되어 急進的으로 發展하는 開發途上國家等 3大類型으로 分類하고 있다.

이들은 이 3大体制內에 4大敵對鬭爭이 展開되고 있다고 前提하는바, 社会主義와 資本主義의 對決, 資本主義國家內에 無産階級과 有産階級の 對決, 帝國主義 國家와 被壓迫國家의 對立, 帝國主義와 特權資本階級の 對決임으로 中共의 對外政策은 이 3大体制內의 4大敵對意識을 開發하는데 根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에 의해 中共은 社会主義國家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立脚하여 相互友好, 協力과 援助를 增進한다. 社会体制가 다른 國家에 대해서는 平和5原則 ( 領土保全, 主權尊重, 內政不干涉, 平等互惠, 平和共存 )에 根拠한 平和共存을 追求함과 同時에 被壓迫人民에 대한 革命鬭爭을 支援하는 統一戰線의 形成에 注

偏向된 一辺外交를 指向했다면 60年代는 中·蘇紛爭이 漸次 高潮. 激化됨에 따라 共產圈內에서의 中·蘇間에 主導權 爭奪을 展開했지만 그 結果는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에 물러 中共만이 孤立無援의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反해 70年代에 들어서는 中共은 開放外交로 平和共存을 擴大主張함으로써 中·蘇싸움이 全世界를 舞臺로 擴大되고 있다.

이런 側面에서 中共의 對外政策을 時代別로 나누어 보면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8段階로 分類할 수 있다.

第1期(1949~51) : 武力鬪爭期로 執權直後 國內秩序回復에 注力하고 對西方條約을 事實上 全部 廢棄하고 投資, 株式等 一切의 外國人의 權益을 沒收하므로써 竹의 張幕(Bamboo Curtain)을 내렸다.

毛沢東의 蘇聯訪問으로 30年 友好協力條約을 締結하여 經濟援助와 借款을 獲得, 中·蘇協력이 強化되었다.

蘇聯도 毛沢東思想을 아시아地域 共產革命의 指導理念으로 是認했지만, 中共은 韓國戰의 깊숙한 介入으로 國家安危가 흔들리고, 對蘇債務가 激增하는 惡循環을 招來케 되었다.

第2期(1952~54) : 再調整期라 할 수 있는 바 韓國戰爭의 經驗으로 軍事力에 의한 武力第一主義는 그 危險性에 비추어 实效性이 없었다. 더우기 蘇聯은 急成長하는 中共에 은근한 威脅을 느끼게 되고 鄧萊스美國務長官은 中立勢力包摂을 試圖함으로써 中共의 進路에 暗影을 던졌다. 이 같은 國際情勢에 対処키 위해 周恩來는 新生아시아, 아프리카諸國에 대한 接近을 위한 微笑外交를 展開함으로써 中·蘇가 亞·阿勢力包摂戰을 벌렸다. 이 같은 事項은 韓國戰休戰과 베트남問題의 解決을 가져왔고, 中共은 對隣接國外交를 強化, 印度를 비롯하여 버마, 인도네시아 등의 中立勢力과 友好를 增進할 수 있었다.

第3期(1954~57) : 반동體制外交로 中共政權 成立 以後 最初의

經濟的 落後性, 國府의 收復準備, 라오스事態에 대한 美國의 能動的 反應, 蘇聯이 티베트反政府派와 內通하고 印度는 中共의 秘密軍事通路를 遮斷함으로써 中共의 安保에 直接的인 威脅을 받고 있었다.

中共의 印度浸透는 美國의 強硬路線에 屈服하고, 쿠바事態로 中·蘇紛爭은 돌이킬 수 없는 線을 넘게 되었다.

第6期(1963~65): 第3世界에 대한 柔軟外交期로 두번째의 微笑外交路線을 指向한 케이스다. 周恩來는 亞·阿 13個國을 巡訪, 亞·阿 指導者에 대해 反美, 反蘇, 反印度 宣傳을 強化키 위해 第3世界에 대한 微笑外交를 展開했다. 中共은 알제리와 쿠바를 本拠地로 삼아 이 地域國家와의 紐帶強化를 試圖 프랑스 및 多數 아프리카國家들의 承認을 얻을 수 있었다. 越南의 고 딘·디엠政權의 失脚은 印支事態를 惡化시키고 越南戰 拮戰에 따른, 中·蘇對立은 海南島 近海의 規制令을 가져왔고, 中共指導層의 大論爭(the great struggle)으로 北韓, 越盟이 自主路線을 標榜하기에 이르렀다.

第7期(1966~69): 文化革命期의 造反外交期라 할 수 있다. 中共은 文化革命期의 國內不安으로 海外公館長을 召喚함으로써 스스로 對外孤立을 自招했다. 對內政權鬭爭, 中·蘇紛爭의 惡化등은 中共安保에 威脅을 加重시켰다. 체코事態는 共產國家의 共同威脅感을 불러일으켜 中共의 對共產外交回復에 도움을 주었으며 바르샤바會談의 再開를 希望케 했다. 珍寶島(Damansky)事件을 爲始한 작은 國境衝突은 中共이 對外關係를 迅速히 轉換해야 한다는 切迫性을 強化시켰다.

第8期(1970~): 柔軟外交의 세번째의 登場이라 할 수 있다. 中·蘇國境地方을 둘러싼 蘇聯의 直接的인 威脅, 美國의 退陣, 日本의 成長, 蘇聯의 아시아進出抑制를 위한 迅速한 戰略的 對峙가 바로 柔軟外交의 再開 動機라 할 수 있다.

또한 第3世界에 대한 主導權을 掌握함으로써 反美 反蘇運動을 強化하

호루시 초프의 非스탈린運動과 平和共存에 中共·北韓이 共히 反對하는 立場을 취했다. 60年代 中盤 越南戰을 支援하는 國際統一戰線 形成問題에 中共과 意見對立을 露呈시켜 中·蘇에 대해 自主路綫을 표했다. 또한 60年代 後盤은 文化革命으로 最惡의 地境이 되었으나 체코事態에 刺戟받아 69년부터 다시 密着關係를 回復, 最近에는 蘇聯보다 더 密着하고 있다고 본다. 事實上 中共과 北韓은 東洋式 共產體制로 一人指導體制를 굳히고 있으며 傳統的인 政治文化의 類似性 및 地政學的 關係의 密接性을 지닌 好戰的 唯一思想을 共히 開發하고 있다는 것도 看過할 수 있다.

最近 一連의 狀況을 考慮할 때 北韓의 中·蘇兩國에 對한 要求는 ①金日成체제의 安定, ②內政不干涉, ③北韓의 安保堅持, ④韓半島 赤化統一의 支援, ⑤經濟發展과 工業化의 促進, ⑥國際地位 伸張, ⑦國際的 統一戰線의 形成, ⑧國際共產主義運動에 參與해 줄 것등을 要求하고 있다고 假定할 수 있다. 이에 對해 最近 中共의 對韓半島姿勢는 ①文化革命 以後 內部 不純分子를 肅清하고 新體制를 整備하여 國際情勢 推移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②人民外交의 強化로 教條主義的 이데올로기를 離脫한 實用主義外交로 韓半島의 現狀固定化를 試圖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關係로 中共은 韓半島에 대해 ①유엔에 南北韓 同時招請의 試圖, ②日本의 韓半島大學進出抑制, ③유엔軍의 撤収, 언커크의 解体를 希望하지만, 暫定的으로 現狀을 默認할 姿勢로 임할 것이다. ④韓半島의 緊張緩和를 希求하고, 南北會談을 政治協商化할 것을 希望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中共은 韓半島問題에 대해 表面的으로는 北韓과 類似한 姿勢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美國을 비롯한 自由陣營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도 勝算없는 北韓의 強硬路綫은 支援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런 北韓의 固執을 억지로 抑制하지도 않을 것인바, 그 理由는 北韓의 反目を 願치 않기 때문이다.

關係를 積極 推進한다면 美國의 韓國에 대한 کم밋먼트 (commitment) 에 懷疑를 가져와 美國의 對韓關係에 問題點을 露呈시킬 憂慮도 있다. 이렇게 볼때 韓國이 北方에 대해 積極姿勢를 취할 때는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①美·日이 北韓과 中共에 接近하는 것을 積極적으로 牽制한다면 韓國이 好戰性國家라는 國際的 이미지를 흐리게 될 것이다. ②美·日의 對北接近을 韓國은 鄭重하게 反對하면서 東歐 또는 第3國을 통해 中共, 蘇聯에 대한 接近을 試圖하여 韓國도 北韓이 美·日에 接近한 만큼, 中共과 蘇聯에 接近을 摸索해야 될 것이다. ③또한 中·蘇에 대한 韓國의 接近은 北方의 挑發性을 牽制하는데 活用할 수 있고 美·日·中共·蘇 4強에 대한 韓國의 實利保護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韓國이 對北方外交에 있어 緊張緩和追求의 어프러치를 構想해 보면, ①南北對話의 繼續, ②統一問題를 潛伏시키고 南北間의 物的·人的 交流의 實施, ③이 段階가 成熟하면 北韓을 하나의 實體制로 認定할 것도 考慮해야 되고 極端的인 異質性이 交流를 통해 漸次 同質性으로 좁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統一의 可能性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④다음 段階로는 軍備縮少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軍備縮少問題는 至極히 데리케이트한 어려운 問題임을 銘心해야 한다.

美·中共의 關係改善, 美·蘇의 平和共存의 實現은 事實上 外交的 緊張緩和이지 軍備縮少에는 劃期的인 進展이 없었다.

美國의 韓半島에서의 退陣은 自動적으로 地政學的으로 韓國安保를 威脅할 것이다. 또한 美·中共關係가 不可分의 關係로 昇華될려면 北韓의 南侵可能性이 增大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도 韓國의 防衛力은 重要하다. 그러나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들의 緊張緩和가 正常的으로 發展된다면 強大國 相互間의 牽制와 均衡 (check and balance) 關係를 円滿히 維持할 수 있기 때문에 地政學的 問題는 韓國安保에 별다른 問題를 提起치 않을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吉田 茂(요시다·시게루)首相은 美國의 對日占領政治를 한술 더 떠서 日本의 對外政策方向을 全的으로 對美依存의 軌道에서 遂行한다는 原則을 固守하므로서 總司令部의 意圖에 迎合하고 그 歡心을 얻는 한편 그 代價로서 總司令部와의 折衝過程에서 맥아더 總司令官과 直接 交涉을 할수 있는 所謂 特權을 獲得하여 總司令官의 權力을 巧妙하게 利用하므로서 與党内에서 뿐만 아니라 国会内에서의 安定勢力을 構築하고 日本의 政治安定을 이룩하는데 成功하였다.

그와 同時에 經濟復興中心의 對内政策을 貫徹하여 主權이 回復된 1951年 9月 8日後의 高度經濟成長의 基礎를 닦는데만 專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時期의 日本의 對外政策은 完全히 外交不在의 對美依存의 方向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吉田首相의 對美依存外交라는 軌道에서 国内政治安定과 經濟復興面에 全的으로 置重하는 政策的 選擇은 不可避한 面도 있었으나 賢명한 政策方向이었다. 왜냐하면 國際的 狀況이 漸次로 日本經濟의 資本主義的 自立을 指向하는 吉田政治에 매우 有利하게 展開되었기 때문이다.

與党絶對多數下에서 第3次 吉田內閣이 癸足한 1949年은 나토(NATO)의 結成과 中華人民共和國 政府樹立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東西冷戰이 한층 激化된 해였고 이에 따라 美國의 對日政策의 目標은 占領初期의 政治的·經濟的 非軍事化, 財閥解体 및 共産黨과 社会黨活動의 合法化 등의 政策으로부터 轉換하지 않을 수 없었다.

即 美國은 日本을 極東戰略의 重要基地로서 確保하여야 할 狀況이 일어남으로서 日本의 經濟的 自立化를 위하여 經援을 提供하고 財閥의 解体措置를 解除하는 등 經濟的 非軍事化(重工業의 規模·性格을 平和的 需要의 限度로 制限한 措置)를 緩和해 나갔다. 特히 1950年 6月 對日講和問題로 日本을 訪問한 덜레스 美國務省顧問은 아시아情勢의 緊張을 理由로 하여 講和條約締結에 의한 主權回復條件으로서 「日本の

이러한 그의 意思表示은 美国政府当局을 놀라게 했다.

곧 東京으로 달려간 덜레스는 自由中國과 平和條約을 締結하여 國交를 回復할 것을 強力히 要求하였다. 自由中國은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 締結當時 中國代表로서 參加하여야 한다고 하는 美國의 主張에도 不拘하고 英, 仏等 主要各國이 反對하였기 때문에 除外된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은 國交回復의 相對로서 中共이나 自由中國가운데 한쪽을 選擇할 수 있도록 一任되어 있었다. 萬一 日本이 中共을 選擇할 경우, 美國이 構築해 놓은 아시아秩序는 崩壞될 것이 明白했다.

특히 韓半島에서는 休戰會談이 한참 進行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한 國際的 狀況 속에서 美國이 極力 反對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吉田首相의 對中共接近 表明의 底意에는 ①駐日美軍의 撤收를 沮止하여 安保를 確保하자라는 것이고 ②中共과 關係改善을 할 最小限의 餘地는 남겨 두어야 하겠다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

結局 이 問題는 덜레스 앞으로 보낸 所謂 吉田書翰으로 一段落되고 1952年 4月 28日 日·自由中國間 平和條約이 締結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中國通商視察議員團의 中共訪問을 許可하여 이들과 中共間에 1952年 6月 1日 第1次貿易協定이 締結되므로서 政·經分離 政策이라는 新外交用語를 創造해 냈다. 이와같은 方法으로 吉田首相은 對美追從外交 속에서 巧妙하게 政治的 및 經濟的 實利를 얻는 하나의 外交實例를 남겨 놓았던 것이다.

다. 日·蘇共同宣言 締結後의 對外政策의 方向

吉田의 退陣後 首相이 된 鳩山(하토야마)는 從來의 對美追從一 邊倒外交를 止揚하고 自主外交를 積極 展開하였다.

具體的인 方策으로서 中共 및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推進하는 한편 美國의 軍事力依存을 脫皮하기 위한 憲法改正에 의한 再軍備의 強化에 力點을 두었다.



으로 對美追從外交를 追求해 나갔다. 그는 「美・日間の 새로운 時代」라는 口號아래 美國과의 紐帶・協力關係의 堅持를 推進해 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日・中共間 民間貿易을 政・經分離政策의 繼統的인 追求로 擴大할 것도 考慮하고 있었다. 1958年 5月 2日 日本 長崎(나가사키)에서 中國國旗侮辱事件이 일어난 것을 契機로 하여 政・經分離政策에 의한 對中共關係 維持策은 中共政府當局의 對日報復措置에 따라 一方的으로 中斷되고 말았다. 따라서 岸首相으로서는 政・經分離政策의 追求를 拋棄하지 않을 수 없었다. 對美一辺倒追從外交는 그가 選択할 수 있는 唯一하게 남은 길이 되었다.

그리고 國內적으로는 對中共接近 可能性마저도 없게 버린 그의 外交行態에 대한 反撓로 일어난 財界와 革新勢力에 의하여 推進되고 있는 對中共接近 積極化의 움직임과 非武装中立化를 強力히 要求하는 이들의 에너지를 分散시켜야 할 必要性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中共과 國內革新勢力으로부터 加해지는 威脅要素를 除去하기 위해서 岸首相은 從前의 不平等하고 非自立的인 美・日安保條約을 改定하여 美國의 對日防衛義務가 明記되고 內亂鎮壓條項이 削除된 한편 事前協議條項이 新設된 當時 日本의 現實에 適合한 새로운 美・日安保條約(1960年 6月 23日 発効)을 締結하였다. 이로써 日本의 安全保障은 美・日紐帶・協力關係의 基盤위에서 再確認된 同時에 防衛費 負擔의 輕減으로 高度經濟成長에 더욱 迫車를 加하게 되므로써, 中共을 잃은 反面에 經濟的인 實利를 얻은 것이다.

新美・日安保條約이 批准된 後에도 繼統的으로 일어난 國會와 全學連(젠가꾸렌) 學生들의 反政府鬭爭이 熾烈해 짐으로서 마지막이 된 自由民主黨의 政治的 危機를 克服하기 위하여 岸首相은 물러나고 池田(이케다)가 首相이 되었다. 池田는 內閣을 発足시키자 곧 政・經分離政策을 復活시켰다. 그는 「所得倍增論」에 立脚한 經濟中心主義로서 美

準政府間貿易關係를 繼續하는 二重的 外交構造로 对外政策을 遂行하였다. 二重的 外交構造에 의한 兩面外交의 遂行은 佐藤政權부터 始作된 것이 아니고 1951年 以後 吉田政權以來의 对外政策의 方向이지만 그 特徵은 中共의 対日接近努力이 보다 強했던 從來의 日・中共關係와는 달리 日本의 對中共接近努力이 反對로 더 強했다는 것이다. 即 中共의 國際的地位가 向上됨에 따라 日本에 대하여 高姿勢를 취하므로써 佐藤政權은 逆勢에 물리게 된 것이다. 1968年 3月 L.T貿易(5年有効의 協定期間으로부터 1年有効期間으로 短縮되고 名稱도 M.T(覚書)貿易으로 改稱되어 貿易協定締結時에는 美・日安保條約과 日・自由中國條約을 非難하는 趣旨를 発表하는 節次를 거쳐 비로소 協定이 締結된 것이 그 좋은 例이다. 이러한 狀態는 田中內閣에 의한 日・中共關係의 正常化가 實現될 때 까지 繼續되었다.

結局 佐藤首相도 1971年 7月 15日의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 受諾發表前까지는 吉田前首相이 敷設한 對美追從外交의 軌道에서 經濟大國 日本의 对外政策方向을 修正하지 못했다.

## 2. 70年代 对外政策의 方向

### 가. 佐藤內閣後期の 对外政策의 方向

닉슨 大統領의 中共訪問 受諾發表는 冷戰으로 對決하던 時代의 終熄을 告하는 것이었다. 美・蘇兩極의 支配體制는 美・蘇・中共・EC(유럽 共同體) 諸國等으로 分極되어 勢力均衡에 의한 平和共存으로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새로운 國際秩序가 形成된 것이다.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 受諾에 대하여 事前協議를 받지 못한 佐藤政府는 國際道義上 背信을 當했다는 不快感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러한 對美不信感은 곧 그러나 隱密하게 自主的인 對中國交正常化에의 길로 가게 했다. 即 中共側의 國交回復에 관한 5原則을 認定한다는 前提

自主的으로 周恩来 中共首相과 1972年 9月 29日 前文 및 9個項으로 된 共同声明에 調印하므로서 兩國간의 国交를 回復하였다.

그와 同時에 日·自由中国間 国交關係는 自由中国 外交部에 의한 日本과의 外交断絶宣言으로 終熄되었다. 이 日·中共国交正常化 實現에 있어서 鳩山首相에 의한 日·蘇 共同宣言이 締結되었던 때 以上으로 政党派閥을 超越하여 1972年 11月 8日 衆議院 本會議에서 全員一致로 贊成議決하였다.

비록 美·中共接近이라는 对外的 与件的 激變으로 인하여 實現可能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自主的」으로 对中共外交를 遂行하여 實現시켰다는 것은 日本의 日本外交路線 指向에 새로운 轉機를 이루었다는 点에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日·中共国交正常化의 實現은 샌프란시스코体制 即 ①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에 의한 西方側 陣營과의 单独講和 ②美·日安保條約에 의한 美軍駐留의 繼續 ③台灣을 中国의 正統政府로 認定한 日·自由中国平和條約의 締結 ④韓國을 韓半島의 正統政府로 認定한 韓·日基本條約의 締結等 이 네가지 기둥가운데 첫째 기둥과 세째 기둥이 무너져 나갔다는 点에서 앞으로 남은 美·日安保條約과 韓·日基本關係條約이 무너져나갈 可能性問題가 자주 提起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日·中共国交正常化의 實現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 있어서 美·蘇·中·日의 4角關係가 形成되게 된 契機가 된 것이다. 即 美·中共接近으로 美·蘇·中の 3角關係가 形成되었고 이 3角關係 속에서 对外政策을 遂行해 나갔다가 日·中共国交正常化로 美·蘇·中·日의 4角關係가 形成되므로서 美·蘇·中共의 3国과 对等한 立場에서 对外政策을 追求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田中政權의 对外政策方向은 自主的으로 多辺外交路線을 繼續 追求해 나가고 있다. 即 美·日, 日·蘇, 日·中共의 3者關係를 等距

的으로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韓·日基本条約을 韓·日關係의 基盤으로 하여 相互紐帶·協力關係를 持續해 나갈 것이다. 그 理由는 ①大韓民國의 共產化는 日本의 安保에 緊要한 威脅要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②韓·美相互防衛条約과 美·日安保条約은 勢力均衡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要件이므로 平和共存關係 아래에서도 解消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韓·美·日 南方3角關係는 原則적으로 崩壞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③地理적으로 日本에 隣接되어 있는 韓國과의 經濟·文化交流가 容易하고 經費를 節減시킬 수 있다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記述한 바를 綜合해 보면 日本의 对外政策方向은 對美依存外交에서 出發하여 對美追從外交 및 政·經分離政策追求로 繼續하다가 自主外交指向段階를 거쳐 自主的 多邊外交路線에서 對外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4大強國의 하나로 成長한 決定的인 要因은 經濟大國으로서 美·蘇에 다음 가는 世界第3位의 經濟力을 保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 V. 北 韓 實 情

## 第 1 章 北 韓 的 農 業 集 團 化

# 第 1 章 北 韓 的 農 業 集 團 化

## 1. 北 韓 的 農 業 體 制

### 가. 所 有 制 度 와 經 營 體 系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의 基礎는 生産手段의 私的인 所有를 否定하는 데서부터 始作된다. 마르크스~레닌의 이와같은 基本原則에 따라서 北韓은 解放과 더불어 社會主義的 經濟體制를 構築하기 위하여 모든 生産手段에 대한 國公有化作業을 展開하였는데 農業에 있어서도 土地改革을 起點으로 하여 個別 農民의 土地와 生産手段을 沒收하여 國公有化함으로써 農業의 集團化를 完成한 것이다.

따라서 現在 北韓의 土地와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는 國有와 國有의 性格을 가진 協同組合的 所有의 두 形態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所有制度를 바탕으로 北韓의 農業經營體系는 國家農牧場, 農機械作業所, 灌溉管理所 및 協同農場으로 區分되고 있다.

國家農牧場이라는 것은 土地와 生産手段을 國家가 所有한 基礎위에서 國家의 唯一한 計劃에 의하여 農場을 經營하고 그 結果 生産된 生産物은 全部 國家(또는 協同農場)의 所有로 되는 經營形態를 말한다. 이 國家農牧場은 國家採算制를 基礎로 하여 國家가 生産者에 대하여 報酬를 支拂하는 것이 特徵이며, 그 總數는 191個 程度에 達하고 있다.

農機械作業所는 協同農場의 生産組織과 勞動組織에 直接 參加함으로써 協同農場의 生産計劃과 經營組織을 支援하고 있다. 1970年 現在 農機械作業所數는 178個로서 41,250台的 트랙타와 13,000台的 貨物自動車를 保有하고 있다.

農機械作業所의 經營方法은 協同農場과의 契約에 의하여 作業을 遂行하고 協同農場이 支拂한 作業料를 받아 獨立採算制로 運營되고 있다.

委 農業部の 統制를 받게 되어 있으며 農業委員會는 党的 統制에 따라 国营國家農牧場을 直接 管理하는 한편, 各道의 道農村經理委員會를 指導 監督한다.

道農村經理委員會는 道營國家農牧場의 經營을 直接 指導, 管理하며 郡 協同農場經營委員會의 事業을 指導 監督한다.

各 協同農場과 農機械作業所 및 灌溉管理所는 郡 協同農場經營委員會가 生産活動과 支援活動을 指導 監督한다.

個別 協同農場의 管理委員長은 協同農場의 成員이 選出하며, 里黨委員會의 指示監督을 받아 下部 生産部門과 支援部門을 管理하고 있는데 管理体制에 있어서 上級機關과 該當級 黨委員會의 二重의인 指導과 監督을 받는 特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實際 生産에 參與하는 個別 經營單位는 創意性이나 融通性을 전혀 發揮할 수 없을 程度로 硬直되어 있다는 것이다.

## 2. 農業의 集團化 過程

北韓은 前記한 바와 같이 社會主義的 農業生産體系를 確立하기 위하여 農業의 集團化政策을 強力히 追求하였다.

分断과 더불어 北韓은 所謂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的 革命段階」의 過渡期에서 1946年 3月 土地改革을 實施하고, 1946年 9月 「土地·灌溉管理令」을 公布함으로써 「耕作地制」를 基礎로한 個人農時代를 거쳐 漸次 農業協同組合을 中心으로한 集團農業體制를 構築하였다.

그러나 農業의 集團化推進은 中農以上の 北韓農民으로부터의 거센 抵抗에 부딪치게 되어 執權層은 結局 強制와 威脅으로 集團化를 強行하였으며, 그 結果 社會主義諸國中에서도 가장 急速하게 農業의 集團化를 完了하였는데 1958年부터는 社會主義 農業體制의 整備期에 突入하였다 北韓에 있어서 社會主義化 過渡期의 農業協同組合의 形態는 다음의

幹部들을 育成 配置하여 每年 1~2 회씩 數千名의 中央과 地方의 優秀한 幹部를 動員하여 所謂「政治教養」과 「集中指導」를 實施하였다. 反面 協同組合의 加入에 抵抗하는 農民에게는 強制收買事業을 徹底히 實施하여 饑餓化·孤立化시키는 政策을 敢行하였다. 특히 1954年 겨울과 1955年 봄의 「強制收買事件」이 證明하고 있는 바와같이 協同化에 應하지 않는 農民에게는 生産量以上の 收買量을 賦課하여 種子까지 내놓아도 不足할 程度로 強壓的인 收奪을 敢行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1955年末에는 農家戶數上으로는 49% 耕地面積上으로는 48.6%의 農業集團化를 2年間に 推進하였다.

1955年 12月 勞動党中央委 全員會議에서 所謂「農村과 都市에 社會主義的 改造事業을 強化하는데 대한 諸方案」을 決議하고 協同化를 強行하여 協同組合化에 反對하는 農民들은 反革命 異質分子로 몰려 土地를 沒收당하고 離農, 轉職, 肅清됨으로서 1957年末까지 農業의 集團化는 事實上 終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強壓的인 方法으로 形成된 農業協同組合을 整備하기 위하여 1958年 10月 農業協同組合의 統合을 實施, 初期의 1個組合당 40~100戶, 總組合數 13,300個를 平均農家戶數 300戶, 組合數 3,843個로 改編하였다.

그後 北韓은 農業協同組合의 名稱을 協同農場으로 改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協同組合의 現況은 다음 表와 같다.



## 3. 農業集團化에 따른 問題點과 展望

共產主義理論에 의하더라도 農業의 集團化 즉 社會主義的 協同化는 工業化 過程이 充分히 成熟하여 農機械를 供給할 수 있는 經濟的 基盤이 갖추어졌을 때에 進行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北韓은 이러한 條件을 度外視하고 農業의 集團化를 急速히 推進하였기 때문에 北韓의 農民들로 부터 頑強한 抵抗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農業의 集團化 過程에서 나타난 主要問題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協同組合의 運營上 問題點이다. 本來 社會主義下에서의 모든 經濟活動은 計劃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強壓的인 方法에 의하여 集團化가 急速히 推進됨으로서 協同組合의 生産과 運營을 위한 計劃化 水準이 極히 낮은 狀態에 머물러 있어 試行錯誤를 反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生産을 위한 力量이 分散되어 있었다는 問題點이다. 즉 土地를 沒收당한 中農以上の 農民들은 繼續해서 北韓의 權力集團에 抵抗하면서 協同組合을 통한 農業生産에 努力을 集中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는, 組合員이 組合에 提供한 勞動의 量과 質이 同一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그들이 말하는 所謂 「勞動에 의한 分配法則」을 實際로 適用하기가 極히 어려웠다는 問題點인데 이는 非單 過渡期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正確히 解決되지 않고 있는 問題라 하겠다.

따라서 農業의 集團化에 의하여 北韓이 當面한 最大의 問題는 農民의 生産意慾 減退에 따르는 農業生産性의 鈍化인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비단 農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北韓의 經濟全般에서 나타나는 現象이다.

北韓은 이러한 問題點을 打開하고 生産性을 向上시키기 위한 方途로서 첫째는, 農村에 黨組織을 強化하고 政治敎養을 實施하여 農民들을 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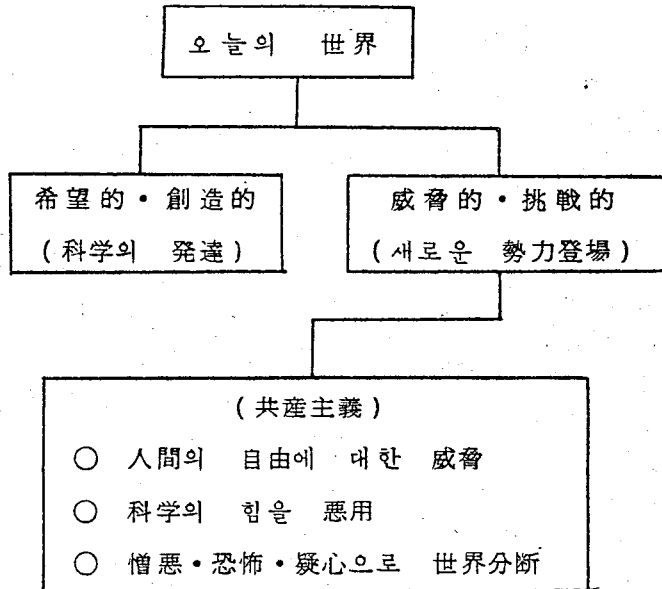
## VI. 共產主義批判

- 第 1 章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際
- 第 2 章 蘇聯 共產主義 批判
- 第 3 章 中國 共產主義 批判
- 第 4 章 東歐 共產主義 批判
- 第 5 章 中·蘇紛爭

# 第1章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

## 1. 序 言

본 講義案은 平和統一研究所가 各界 專門家의 意見을 綜合하고 그 것을 다시 各 大學 國民倫理担当教授의 諮問을 받아 完成한 것으로서 그 主要内容은 共產主義의 哲學, 政治 그리고 結論等 네 領域으로 構成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人類歷史上 가장 希望的이고 創造的인 世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가장 威脅的이고 挑戰的인 世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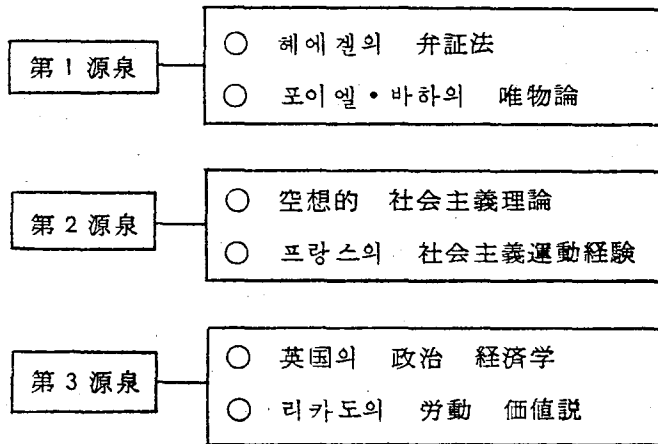
希望的이고 創造的인 世界라 함은 지난 半世紀동안 이룩해 놓은 科學의 成果가 人類의 全歷史 發展過程을 통해 이룩해 놓은 것 보다 훨씬 華麗하고 많은 進展을 보였기 때문이요, 反面에 가장 威脅的이고

서운 災殃이 뒤따르고 있다.

共産黨宣言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은 쇠사슬 以外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勝利의 世界만이 있다. 모든 나라의 勞動者들이여 團結하라!』고 외쳤던 暴力煽動의 회오리 바람은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豫測하지 못했던 帝政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하여 共産主義革命의 도구마로 번하고 말았다. 오늘날 모스크바를 拠点으로 일어난 이 世界革命의 忘想은 東部유럽, 中國大陸, 그리고 太平洋에 隣接한 東南亞에서 그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韓國의 6.25와 같은 悲劇을 招來했으며 그 可恐할 破壞의 本質은 只속도 變質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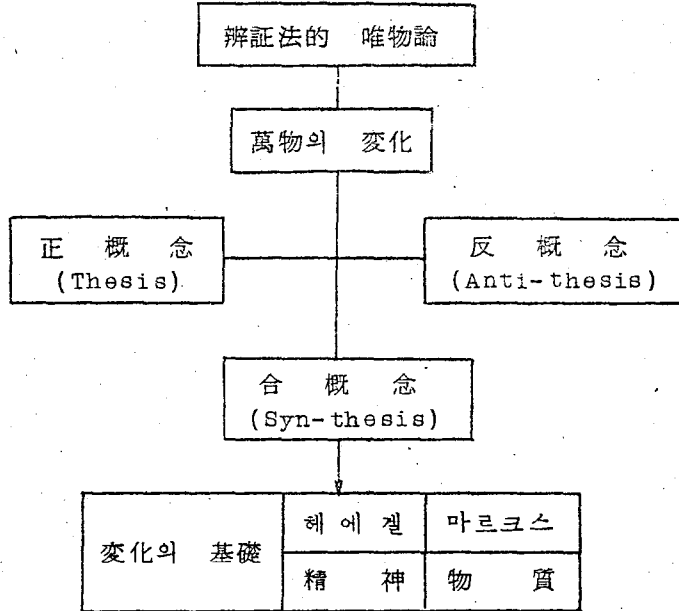
이것은 真正 世界平和에 重大한 威脅인 것이며, 自由体制에 대해서는 深刻한 挑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 共産主義라는 「幽靈」은 도대체 어떤 敎理를 믿고 우리의 將來까지를 威脅하고 있는 것이겠는가?



칼·마르크스는 共産主義理論의 源泉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共産主義는 勿論이요, 社會主義도 칼·마르크스가 創造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결코 아니다.

는 全体로서 考察되어야 하며 그 一部分의 어떤 要素를 別途로 보아서 는 안된다는 點을 미리 말해 두는 바이다.



## 2. 共產主義 基本哲学과 實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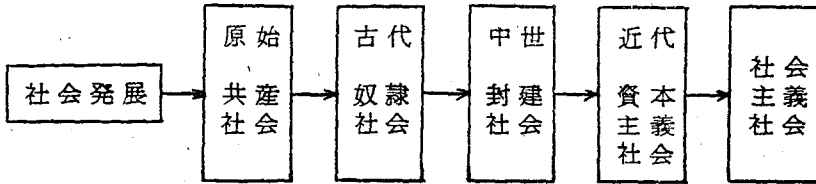
### 가. 共產主義 基本哲学

共產主義의 基本哲学은 크게 「辯證法的 唯物論」과 「史的 唯物論」으로 集約하여 說明할 수 있다.

「辯證法的 唯物論」은 모든 歷史, 思想, 存在의 原動力이 衝突 또는 矛盾으로 부터 出發한다는 「矛盾의 原理」에 따라 發展시킨 헤에겔의 辯證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独自の인 立場에서 体系化한 것이다.

헤에겔은 宇宙에 存在하는 萬物은 恆常 變化하고 있다는 前提下에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은 登場한다고 보았다.

即, 『하나의 「概念」 Thesis)은 이것으로 부터 發展된 「다른 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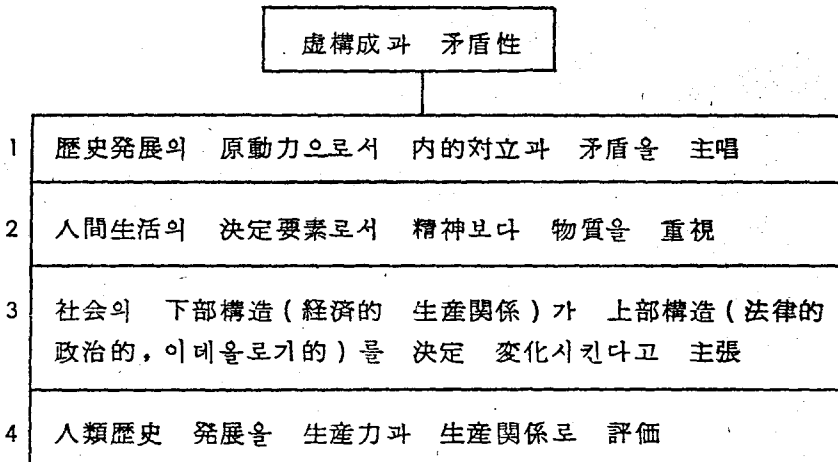


※ 生産力, 生産關係에 따라 發展

다. 社会發展

또한 人間社会는 生産力과 生産關係에 따라 段階的으로 發展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人類 歷史를 物質的 生産力의 發展過程이라고 前提하고 原始共產社会, 古代奴隸社会, 中世封建社会, 近代資本主義社会 그리고 生産手段을 共產手段을 共有하는 社会主義社会를 거쳐 窮極的으로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消費하는』 共産主義社会로 段階的으로 發展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矛盾의 概念을 反對의 概念과 混同하고 있다. 論理的인 概念으로서는 矛盾과 反對는 嚴格히 區別되는 것이다.

예컨대 男女關係라든가, 電氣에서 말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決코 矛盾關係가 아닌 反對關係이며, 이 두가지는 서로 補完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眞正한 意味의 矛盾關係란 非現實的 觀念의 世界에서만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1950 年代의 共產圈内部에서도 이 問題를 두고 哲學論爭을 야기시킨 事實이 있다. 當時의 蘇聯의 哲學者들은 矛盾이 發展의 原動力이라는 辯證法을 根本적으로 修正하여야 할 必要性 때문에 社會主義段階에서는 矛盾이 解消되어야 한다는 것을 骨子로 한 社會主義下에서의 矛盾問題를 크게 提起하였던 것이다.

「矛盾」辯證法の 虛構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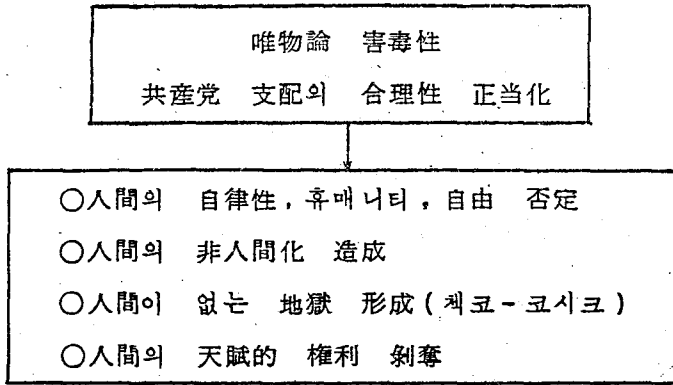
- 共產政權 樹立 段階에서만 適用
- 「矛盾」辯證法 論理에 의거 共產政權 否定問題가 提起
- 平和共存論 → 「矛盾」辯證法の 拋棄

또한 矛盾辯證法の 虛構性은 共產主義者들의 政權樹立段階에서만 適用되고 있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權力을 掌握한 후에도 矛盾의 論理에 따르면 共產政權은 早晚間 否定당해야 合當하기 때문이다.

호루시초프가 主唱한 平和共存論도 嚴密한 意味에서 矛盾의 辯證法을 拋棄한 結果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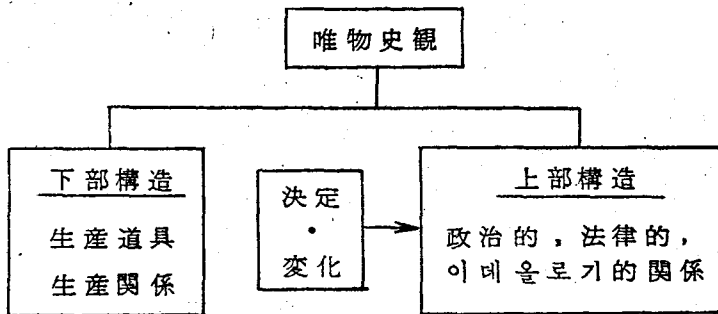
萬一 共產陣營과 自由世界와의 關係를 敵對的 矛盾의 關係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唯物論의 害毒은 무엇보다도 非人間化를 促進하여 共産黨支配의 合理性을 正当化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오늘날 共産主義者들은 人間的 自律성과 휴머니티와 自由 그리고 能動的 主体性を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人間的 非人間化를 造成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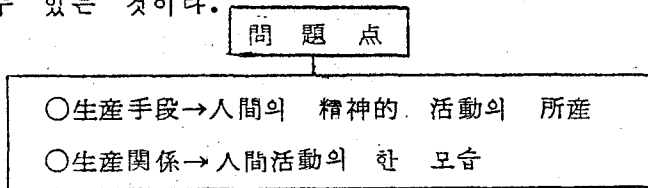
체코의 哲學者 코시크 (Kosik)는 良心의 自由마저 剝奪하는 共産主義야 말로 人類의 유토피아가 아니고 人間이 없는 地獄이라고 糾彈한 바 있다. 더우기 人間的 天賦的 權利인 宗教를 迷信이요 痲醉劑요 阿片이라 非難하며 科學이 發達하면 宗教가 自然히 消滅된다고 主張하였으나 現實은 이와 正反對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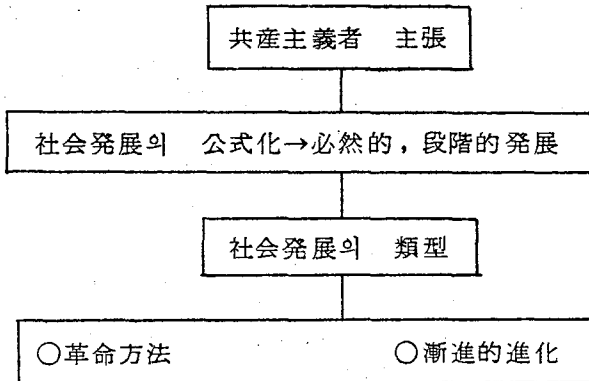


더우기 共產主義者들이 부르조아革命段階에 있어서는 經濟的인 下部構造를 政治的인 上部構造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음 段階인 社會主義革命段階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政治革命等 上部構造를 優先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여기에 共產主義哲學이 政權을 獲得하기 위한 政權哲學이라는 結論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問題는 共產主義者들이 唯物史觀을 通하여 生産手段이 人間의 精神的 活動이 所産이라는 點을 否認하고 또한 生産關係의 變化가 複雜한 人間 活動中의 하나의 모습에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人間의 이데올로기가 生産關係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斷定한 點에 있다.



#### 4) 批判IV 社會發展의 五段階說

넷째로, 共產主義者는 앞서 說明한 바와 같이 人類歷史를 物質 生産力의 段階的 發展過程이라 보고 5段階說을 盲信하고 있다.

千年王 國說이 깃들고 있다 하겠다.

그렇게 볼진데 마르크스가 約束한 最後段階로서의 共產主義社會는 勞動者 農民을 眩惑하는 한갓 幻想의 世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小結論

共產主義者들은 矛盾의 辨證法을 共產政權 爭取 段階에만 適用하였다.

以上으로 共產主義 基本哲學의 概要와 그에 對한 論理的 矛盾性과 虛構性을 대충 살펴 보았다.

여기서 이를 綜合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導出할 수 있다.

첫째, 共產主義者들은 矛盾이 發展의 原動力이라고 본 辨證法을 共產主義政權奪取 段階에만 適用하였다.

共產主義者들은 「革命意識」, 「革命精神」을 強調하므로서,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인 唯物論을 스스로 否定했다. 또한 그것이 人間社會에 미친 害毒性은 너무나 크다.

둘째, 共產主義者들은 革命意識, 革命精神 等 이데올로기의 側面을 強調함으로써 人間生活의 決定要素로서 物質을 내세운 소위 「唯物論」을 스스로 否定하고 있다.

또한 「唯物論」은 共產黨支配의 合理性을 正當化 시키려는 手段으로 使用되어 왔을 뿐 人間社會에 끼친 害毒性은 너무도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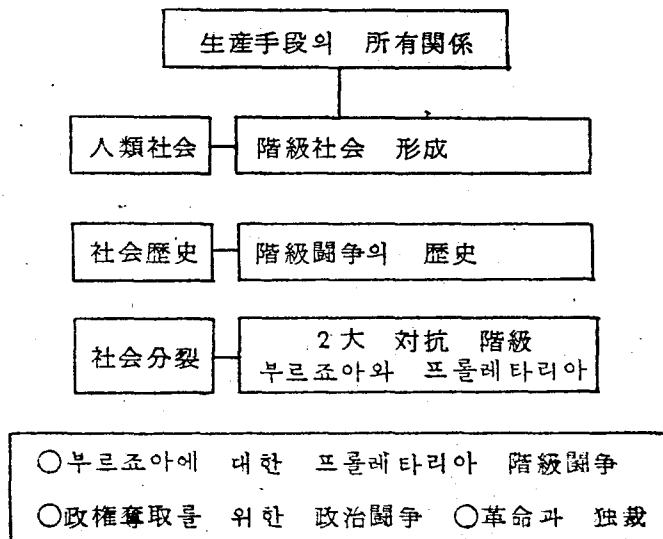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共產主義는 一種의 새로운 神들을 誕生시켰다고 結論지을 수 있겠다.

마르크스·엥겔스 그리고 레닌 等 有限한 人間에 의하여 主張된 理論과 學說이 狂神的인 共產主義者들에게 마치 人類 救援의 福音書나 聖典처럼 여겨지고 있으니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에게는 새로운 現代的 神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그들의 主義와 思想을 繼承하여 그 나름대로 政治哲學으로 받아들인 毛沢東思想, 그리고 金日成 唯一思想도 各其 絶對不可侵의 價值性과 永遠性을 強要하고 있으니 이 또한 第二의 새로운 宗教요 神들이라 것이다.

### 3. 共產主義 政治理論과 實際

共產主義 政治理論은 「階級鬭爭論」 「暴力革命論」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等 마르크스의 中心思想과 더불어 「前衛黨論」 그리고 「國家死滅論」 等の 順序로 說明하고자 한다.



1) 批判 I, 社会歷史를 階級鬭爭史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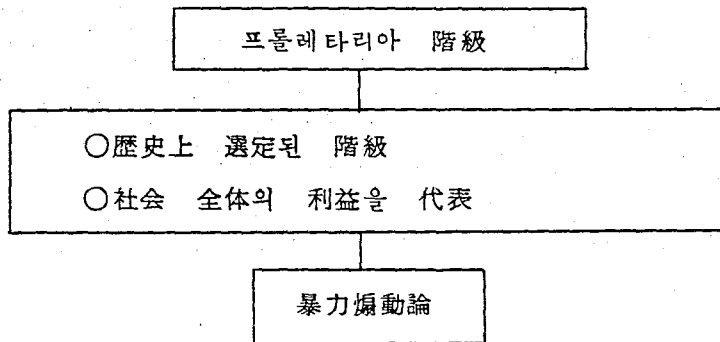
그러면 이 階級鬭爭論이 지니고 있는 矛盾點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共產主義者들은 『모든 社会의 歷史를 對立關係로 理解하며 階級鬭爭의 歷史』라고 斷定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現實의 階級關係는 마르크스가 主張한 것처럼 搾取者와 被搾取者라는 두개의 階級間의 鬭爭으로만 볼 수 없으며, 오히려 多様하고 複雜한 關係인 것이다.

어떤 問題를 두고 對立하는 두가지 集團이 다른 問題에 있어서는 서로 聯合하여 다른 集團과 對立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階級間에는 相互協調의 側面도 있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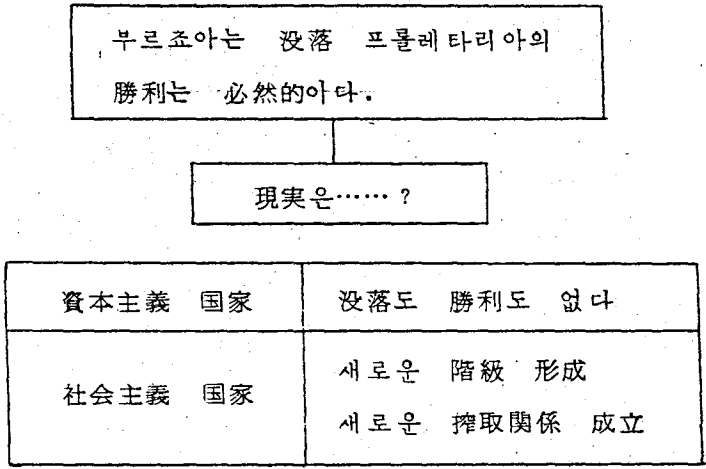
마르크스主義者이며 獨逸의 社会民主党 指導者 카알·카우츠키가 그의 <階級協調論>에서 『오늘날 社会에는 階級鬭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實質적으로 階級과 階級과의 協調가 純化되어가는 傾向이 크게 나타난다』고 指摘한 바와 같이 政府에 依한 社会施策等으로 勞動組合의 組織이 発達되고 勞動者들의 生活水準이 크게 向上되어 結局 階級の 對立보다 勞働間의 協調가 이루어지는 實情임으로 社会歷史를 階級鬭爭史로만 斷定한 마르크스主義는 人間社会의 肯定的 側面을 意識적으로 度外視하고 否定的 側面만을 強調하였다는데 그 矛盾이 있는 것이다.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現實은 그 反對의 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先進工業國家의 社會構造는 피라미트型이 아니라 다이아몬드型으로 變化되어 가고 있으며 小數의 富裕階級과 小數의 貧困階級間에는 大量의 中間階層이 形成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더우기 中間階層中에서 企業이 經營에 參與하는 경우는 勿論 여러가지 利害關係에서 보면 오히려 資本家階級과 結付되는 수가 많은 것이 오늘날의 現實이며 또한 先進資本主義 諸國을 政策的으로 中間階層을 育成하고 있는 實情이다.



4) 批判IV,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이다.

共產主義者들은 부르조아는 沒落되고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資本主義社會의 現實을 볼때, 거기에는 부르조아의 沒落은 勿論 勞働者階級の 勝利로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暴力과 革命으로 政權을 잡은 社會主義國家에서 前 尤고의 副統領이었던 밀로반·질라스의 말대로 새로운 特權階級이 形成되고 그들에 依한 새로운 搾取關係가 일어나고 있는 實情이다.

그들은 人爲的인 暴力革命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의 手中에서 生産力과 政治權力을 奪取하고 끝내는 프롤레타리아政權을 樹立하여 社會構造의 轉換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主唱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暴力革命의 戰略的 展開를 爲해서 勤勞者의 大多數가 革命의 必要性을 充分히 理解하고 그를 爲하여 스스로의 生命을 犧牲 시킬 覺悟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라. 暴力革命論 批判

暴力의 適用

프롤레타리아 革命 過程	必須的 手段
프롤레타리아 政權 掌握後	戰術的 手段

1) 批判 I, 暴力의 必須性

그러면 暴力革命論이 지니고 있는 虛構성과 矛盾性은 어디에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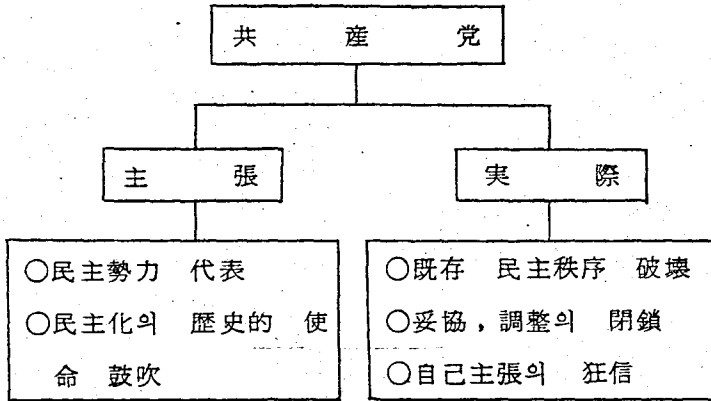
첫째, 共産主義자들은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있어서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 않고 없어서는 안될 必須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革命이 남은 政治制度가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制約하게 되면서부터 發端하였던 事實을 잘 알고 있다.

歷史上 革命의 主体로서 새로이 登場한 勢力은 暴力을 革命의 道具로서 活用하였으나 그것은 一時的인 現象이고 暴力을 使用하는 境遇에는 現實 肯定的인 考慮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은 暴力을 崇拜하여 프롤레타리아 革命過程에서 必須的인 手段으로 適用함은 勿論 政權을 掌握한 후에도 이를 戰術的인 手段으로 繼續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國에서 革命을 煽動하는 暴力的 戰術로 밖에 볼 수 없으며 窮極의 으로 世界를 無秩序한 革命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어 世界의 赤化를 企圖한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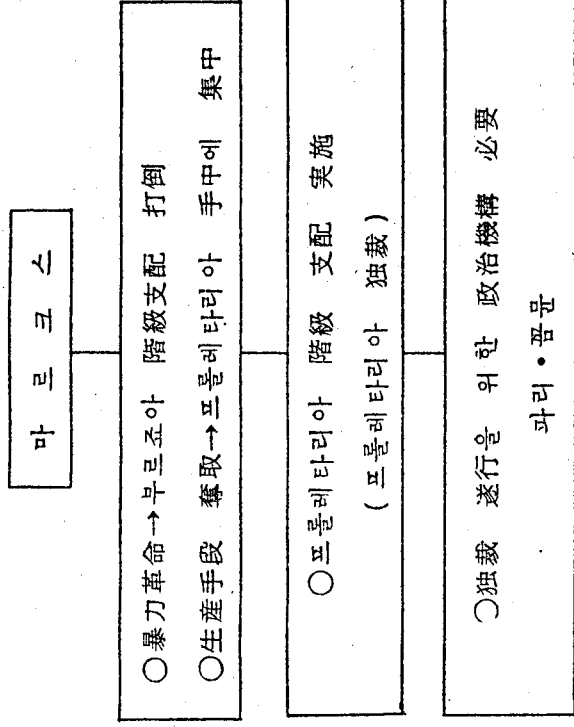


3) 批判Ⅲ, 共產黨의 使命을 過大評價

셋째로,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 階級政黨인 共產黨의 歷史的 使命을 過大評價하였다.

결국으로는 共產黨이 그 나라의 民主勢力을 代弁하고 民主化의 歷史的 使命을 지니고 있는듯이 主張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自由롭고도 合法的인 選舉節次를 통하여 樹立된 既存民主秩序를 破壞하고 이데올로기만을 固執한 나머지 妥協과 調整의 길을 스스로 閉鎖하고 있으며 또한 自己의 主張을 狂信하고 相對方을 全적으로 無視하는 偏狹한 思考方式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主張을 絶對 眞理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毛沢東이나 金日成 등에서 한 없는 眞理를 캐내는 것이다.



라.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다음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論에 대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簡單히 말해서 暴力革命으로서 부르조아지의 階級支配를 打倒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에 依한 階級支配를 이룩하고 同時に 부르조아階級の 手中에서 모든 生産手段을 메앗아 組織化된 프롤레타리아의 手中에 集中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階級の 獨裁를 實現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어떤 形態의 政治機構를 通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重要な 問題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71年の 파리·프룬이야 말로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適合한 政治機構라고 生覺하였던 것이다.



하며

셋째로, 帝國主義와 싸우기 爲하여 革命을 武裝化하고 革命軍隊를 組織化하는 것 等이라 하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獨裁는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配形態라고 하며 共產主義者들은 既存의 國家機關 代身 大衆을 널리 包摂하기 爲하여 소비에트制度를 採択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바. 프롤레타리아獨裁論 批判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唯一政黨, 即 共產黨에  
依한 獨裁政治이다.

- 國民에 對한 政策強要 機關
- 政權의 核心 機關
- 國家 機關의 指導勢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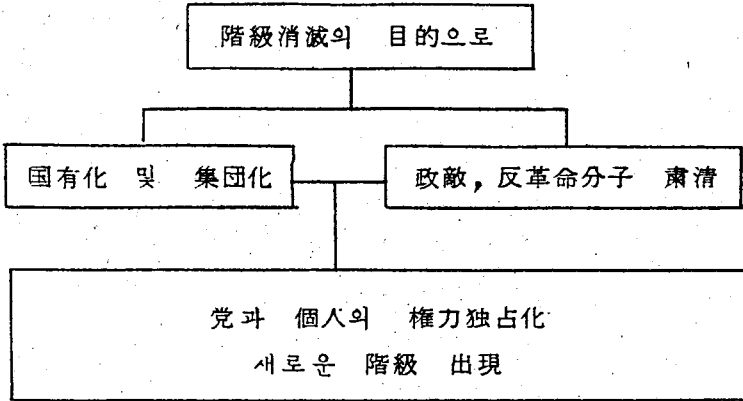
共產主義政府 = 黨의 政府  
(질라스)

1) 批判 I, 競爭的 政黨的 存在를 不許

그러면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의 矛盾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配形態로서 프롤레타리아階級政黨 以外의 어떤 競爭的인 政黨도 그 存在를 斷乎히 排除하고 있다. 蘇聯共產黨 規約에 依하면 『黨은 社會 組織과 政治組織의 最高形態이며 소비에트社會의 指導的 核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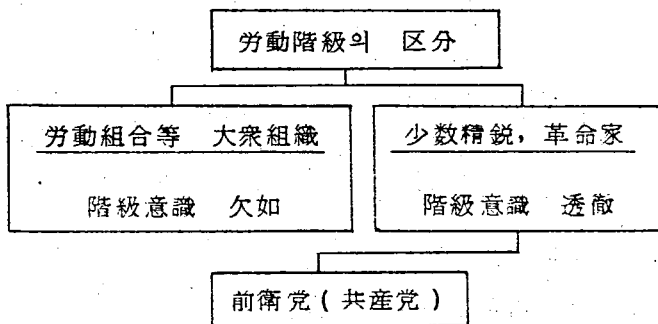
民主政治와는 本質적으로 다른 反民主政治的인 것이다.



3) 批判Ⅲ, 새로운 主從關係의 出現

셋째,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새로운 主從關係를 誕生시켰다. 共産黨은 프롤레타리아獨裁로서 擄取와 被擄取의 階級消滅을 目的으로 私有財産을 沒收하여 国有化 또는 集團化를 試圖하였다.

한편 政敵의 肅清, 反革命分子의 掃蕩, 旧指導者의 除去 等 너무나 많은 人命을 犧牲시켜 黨과 個人의 權力을 独占化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擄取階級을 造作해 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政治權力이 都市와 農村의 勤勞人民에게 있다고 宣傳하며 滿場一致制로 끝나 버리는 소비에트式 選舉를 世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의 虛構性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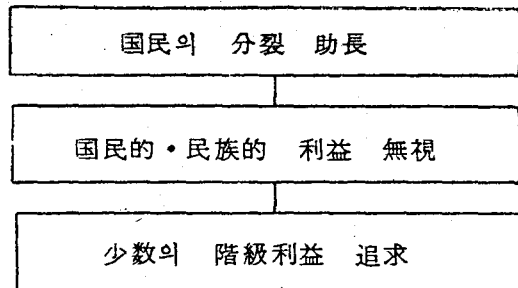


넷째로, 프롤레타리아 階級組織의 最高 形態라는 것이며.

다섯째로, 一体의 分派를 許諾하지 않는 單一意思의 統一体라는 것이  
고

그밖에 党의 發展原理로서 批判과 自我批判을 活用한다는 것 等이다.

아. 前衛党論 批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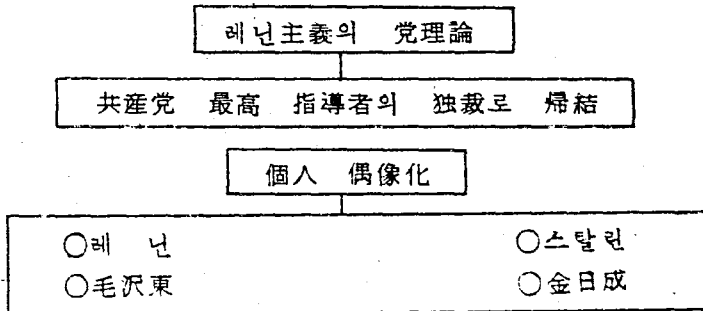


1) 批判 I, 国民的 民族的 利益의 無視

그러면 階級鬭爭의 前衛組織으로서의 共産党理論의 虛構成은 어디에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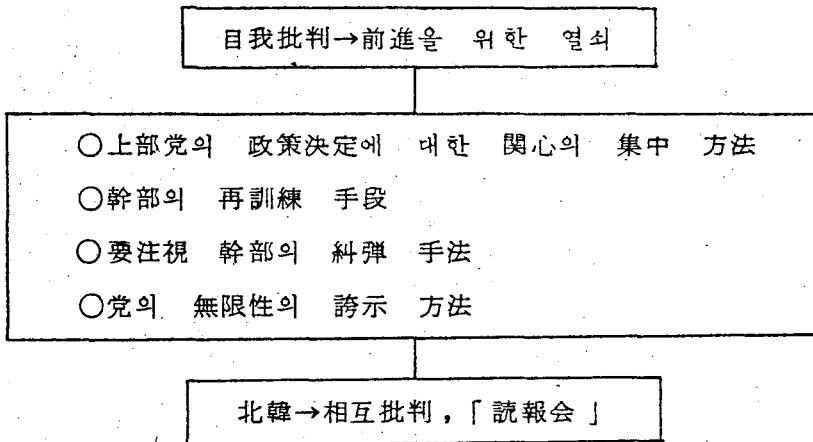
첫째, 아무리 階級을 主導하는 階級政党일지라도 国民的, 民族的, 利益  
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모든 國家의 總力을 集結하고 있  
는 現實을 볼때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党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国民의 分裂을 助長하고 階級的 利益에 国民的, 民族的 利益에 優先하  
는 少數의 階級 利益의 追求로 밖에 볼 수 없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共産主義 國家에서는 이러한 事例는 볼 수 없을 뿐더러 共産黨 指導部에는 『誤謬란 있을 수 없다』는 所謂 「無誤謬性」과 「絶對性」을 내세우고 있는 現實인 것이다. 때문에 共産黨의 所謂 民主主義 中央集權制는 獨裁를 偽裝하기 위한 民主主義라는 用語의 濫用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 4) 批判IV, 自我批判

넷째로, 共産黨이 곧잘 使用하는 自我批判에 對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蘇聯의 政治理論家 살리코프는 『批判과 自我批判없이는 自身の 隊列속에 숨어 있는 敵을 摘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프롤레타리아革命을 準備하고 遂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自我批判을 前進을 위한 열쇠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共産黨이 그렇게 所重하게 生覺하는 自我批判도 民主政黨에서 말하는 發展을 위한 自己反省과는 本質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들은 自我批判을 다음과 같은 目的에서 使用하고 있다.

첫째는 上級黨部에서 이미 決定한 政策을 完遂하기 위하여 모든 關

에 「國家死滅論」을 中心으로 한 命題만을 紹介하기로 하겠다.

于先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國家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擄取하고 暴力으로 支配하기 위한 組織에 不過하며, 그 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擄取와 被擄取의 階級關係가 消滅되면 國家도 當然히 消滅되며 프롤레타리아 獨裁 政權이 樹立되면 生産手段의 共有化가 이루어져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區別이 消滅됨과 同時에 抑壓階級도 存在하지 않게 되므로써 國家도 必然的으로 消滅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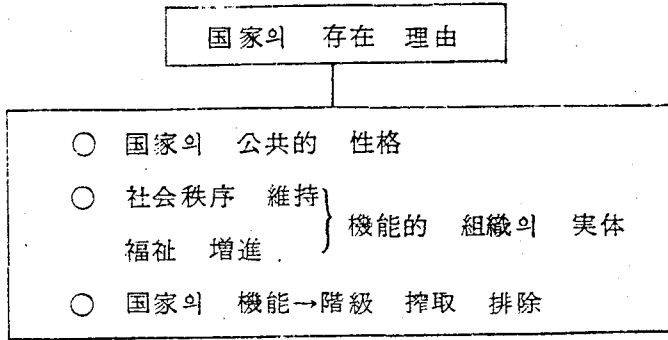
一部 無政府主義者들도 國家를 모든 惡의 源泉이라고 断定하고 이것을 容恕없이 永遠히 破壞해 버려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지만 이 點에서 共産主義者들의 國家論과 一脈 相通한다고 볼 수 있다.

레  년

國家 死滅 過程

1 段階	○共産社会에 의 過渡期的 國家(半國家)
2 段階	○共産社会의 第1段階 國家의 不完全한 死滅(부르조아의 權利의 殘滓存在)
3 段階	○共産社会의 高段階로 突入 國家의 完全한 死滅

차. 國家死滅論 批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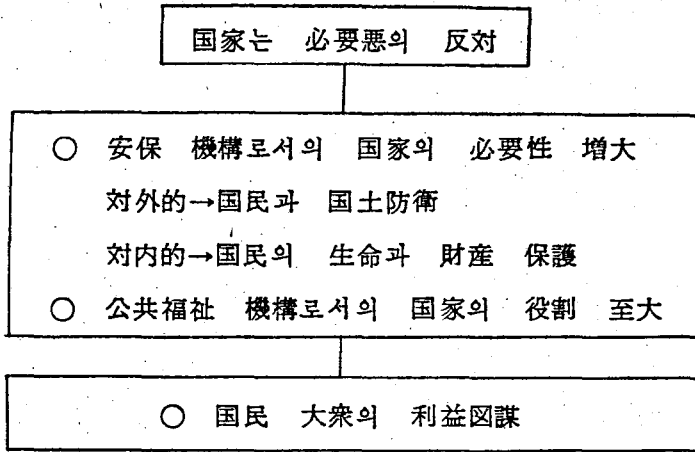
1) 批判 I,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의 支配機構

그러면 國家死滅論의 矛盾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國家를 단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支配·榨取하기 위한 機構라고 主張하고 있다는 點에 있다.

우리들의 經驗的 事實에서 判斷한다면 國家의 存在理由는 被支配階級の 抑壓機關으로서 存在했기 보다는 實로 人間 全體를 위하여 그것이 普遍的 價値를 가진 機能을 遂行해 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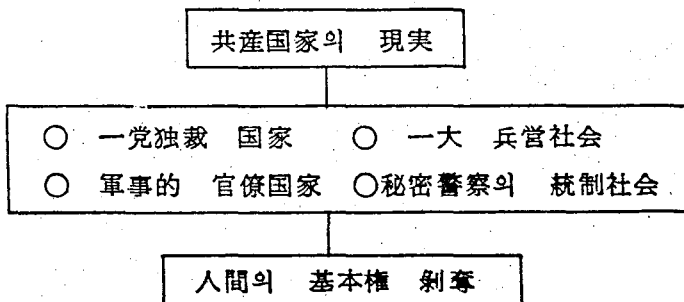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國家의 存在理由는 그의 公共的 性格에 있는 것이므로 社會의 秩序 維持와 國民福祉 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機能的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國家는 階級の 榨取觀으로서 存立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階級間的 榨取를 排除하는 方向에서 그 技能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3) 批判Ⅲ, 必然的 惡으로서의 国家

세째로 共産主義者들은 国家를 必然的이고 絶對的인 惡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国家는 人間이 만든 것이며 人間의 個性과 尊嚴性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의 創造的 努力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国家는 必要惡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对인 것이다.

外部勢力으로 부터의 侵略에 対処하여 对外的으로는 国民과 国土를 防衛하며 对内的으로는 国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安保機構로서의 国家의 必要性은 날이 갈수록 增大해 가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教育·保健·社会保障制度·交通·通信 等 公共福祉機構로서의 国家의 役割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国家는 支配階級의 利益보다 오히려 国民大衆의 利益을 더 크게 配慮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共産主義者들이 모든 社會의 歷史를 無慈悲한 階級鬭爭의 歷史로 본 것은 現代社會에 있어서 實質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階級과 階級間의 協調가 醇化되어 가고 있음을 外面하고 人間社會의 肯定的 側面보다 否定的 側面을 自己들의 鬭爭目的을 위하여 擴大 強調한 것에 不過하다.

② 共産主義者들이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利益만 社會全體 利益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階級 獨裁實現을 위한 政治的 煽動說이다.

둘째, 共産主義者들이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利益만이 社會 全體의 利益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階級獨裁 實現을 위한 政治的 煽動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③ 共産主義者들이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 않고 階級獨裁의 必須的인 것으로 主張하는 것은 妥協할 줄 모르는 그들의 思考 行態를 代辨해 주고 있다.

셋째, 共産主義者들이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의 必須的인 手段으로 主張하는 것은 妥協할 줄 모르는 그들의 狂的인 思考行態를 代弁해 주고 있다.

그들은 이 暴力을 獨裁政權 樹立後에도 繼續 活用하므로써 共産社會에 是 恐怖的인 肅清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일곱째, 共産主義者들의 所謂 民主主義의 中央集權制는 共産黨의 獨裁를 偽裝하기 위한 民主主義 用語의 濫用에 不過하다. 共産黨에는 오직 全体와 하나, 그리고 無限한 權力과 特權만이 있는 것이다.

⑧ 共産主義者들이 「國家를 階級支配의 道具」로 보는 것은 國家의 存在理由를 忘却한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이다.

여덟째, 共産主義者들이 國家를 階級支配의 道具로 보고 있는 것은 國家의 存在理由를 忘却한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이라 하겠다.

⑨ 共産國家는 本質的으로 一黨獨裁國家이며, 封鎖社會이며, 軍事的 好戰的 官僚國家이며, 同時에 秘密警察의 統制社會이다.

아홉째, 共産國家는 本質的으로는 一黨獨裁國家이며 封鎖社會이며 軍事的 好戰的 官僚國家이며 나아가서는 秘密警察에 의한 統制社會인 것이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共産社會는 人間의 基本權의 保障과 人間의 尊嚴性을 秋毫도 期待할 수 없는 非情의 社會라 아니할 수 없다.

가. 勞動 價值說

마르크스는 以上の 結論을 導出하기 위하여 「勞動價值說」과 「剩餘價值說」을 適用하였는 바 그 中에서 于先 「勞動價值說」의 主要 骨子에 대해서 說明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의 「勞動價值說」은 일찌기 英國의 아담·스미스가 그 研究를 試圖하여 그의 弟子 리카르도가 發展시킨 「投下勞動價值說」을 다시 그 나름대로 整理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投下勞動價值說」은 商品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따라 價值가 決定된다는 理論이다. 예를 들어서 한마리의 고래를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과 열마리의 사슴을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量이 같다면 한마리의 고래와 열마리의 사슴이 서로 같은 값어치를 갖고 交換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위의 理論을 土臺로 勞動을 具體的 勞動과 抽象的 勞動으로 區別하여 說明하고 있다.

具體的 勞動은 쌀이나 |보리처럼 人間에게 必要한 物件을 生産하여 「使用量值」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抽象的 勞動은 生産에 投下된 勞動의 量에 따라 「交換價值」를 形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抽象的 勞動이 어떻게 價值를 生産하는 가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社會的으로 |必要的 平均勞動量』이란 概念을 使用하였다. 例컨대 한필의 베를 짜는데 있어서 10時間의 勞動을 必要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時間을 必要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平均的으로 勞動者가 그것을 짜는데 있어서 5時間이 걸린다면 그 5時間의 勞動이 곧 베의 價值를 決定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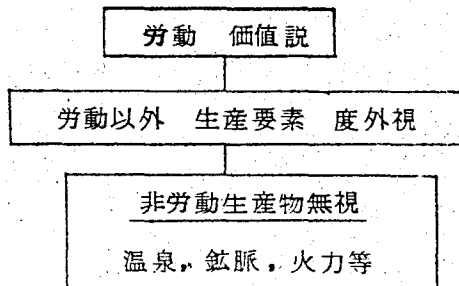
2) 批判Ⅱ 利潤平準化 現象 無視

둘째 勞動價值說은 近代資本主義社會에서의 利潤率 標準化 現象을 無視하고 있다는 點이다. 마르크스의 主張에 따르면 勞動의 比率이 相對적으로 높은 輕工業 分野에서의 利潤率은 높아야 하고 比較的 機械依存度가 높은 重工業 分野에서의 利潤率은 반드시 낮아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한다.

이렇게 되면 投下勞動量에 의한 價值와 生産費의 平均利潤을 보아야 비로서 現實의 商品價格이 形成된다는 一般的 價值決定法則과는 一致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一部 商品은 價值以上으로 販賣되고 一部 商品은 價值以下로 販賣된다는 것을 認定하여 價值法則은 個別的으로 妥當치 않으며 全体를 通해 平均적으로 作用한다고 主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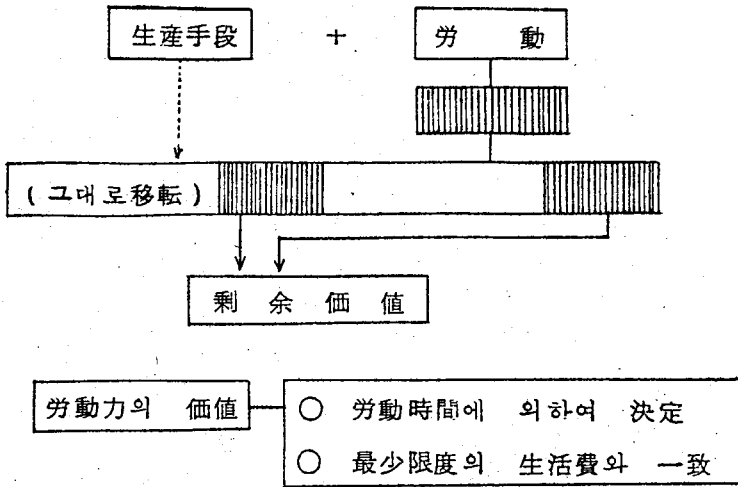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窮塞한 弁明에 지나지 않은 平均 概念의 濫用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要는 마르크스가 需要와 供給關係에 依한 價值變動을 充分히 다루지 못한데서 나타난 當然한 結論이라 하겠다.



3) 批判Ⅲ, 勞動生産物 以外の 商品 度外視

세째, 勞動價值說은 勞動生産物 以外の 商品을 전혀 度外視하고 있다는 點이다.

마르크스는 價值를 오직 勞動生産物에 만 局限시키고, 勞動以外的 生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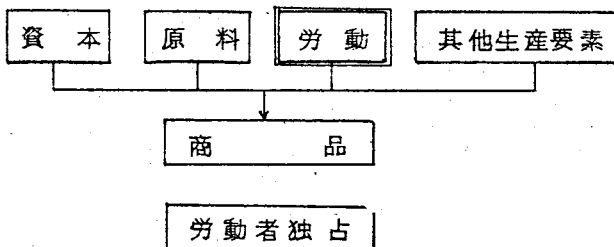


한편 그는 生産要素中 労働以外の 生産要素는 그 自体의 價值가 労働生産物에 그대로 移轉될 뿐이나, 労働力만은 生産過程에서 自体의 價值보다 더 큰 剰余價值를 生産한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労働力 自体의 價值는 労働時間에 依하여 決定되고 그것도 労働者들의 最小限度의 生活費와 一致하는 範圍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勞賃의 固定性を 主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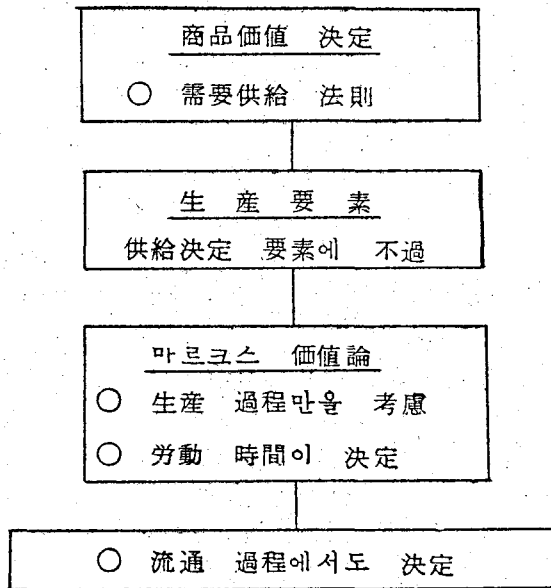
이처럼 마르크스는 剰余價值論을 통해서 利潤의 本質을 資本家에 依한 労働者의 搾取關係로 說明하였기 때문에 利潤의 源泉인 私有財産制度의 廢止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다. 剰余價值說 批判



스탈린은 1952年 <蘇聯에서의 社會主義經濟의 諸問題>라는 論文에서 剩餘價值論이 너무나 一般的인 것이기 때문에 現代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基本的인 法則이 될 수 없다 하여 剩餘價值論의 不合理性을 指摘한 바 있었다.

오늘날 一部 共產圈에서도 生産의 非能率性을 止揚키 위한 利潤導入說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農民들에게 小農具의 私有를 認定함으로써 剩餘價值說의 矛盾性을 自認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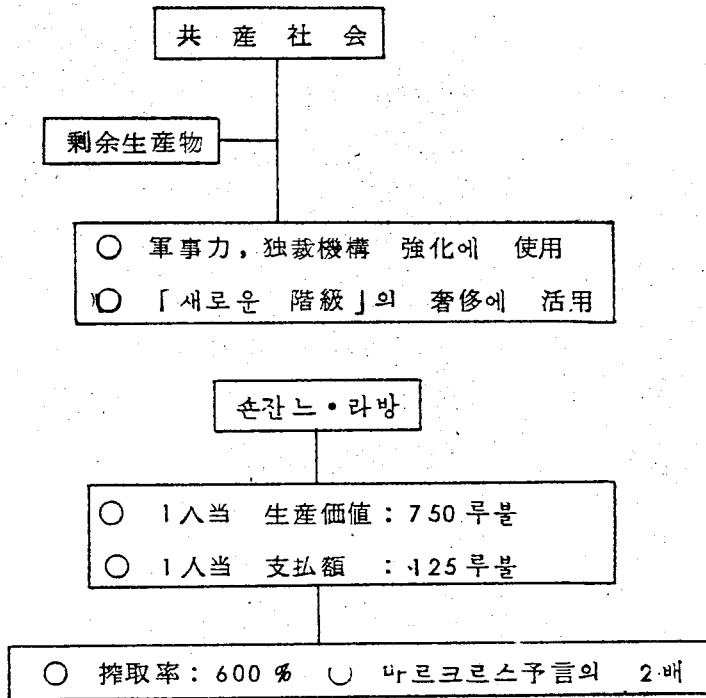
## 2) 批判Ⅱ, 供給과 需要法則 無視

둘째, 마르크스는 그 價值論에서 商品의 供給만을 問題視하고 需要問題는 전혀 無視하고 있다.

앞서 說明한 바와 같이 商品의 價值는 오직 投下된 勞動이나 其他의 生産要素에 의해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商品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대해서 價值의 決定이 左右되는 境遇가 더 큰 比

있어서 人口의 都市集中에 따른 過渡的인 現象에 지나지 않았다.

最近에 들어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이른바 「生産性 賃金制」라 하여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 措置를 取하고 있는 現象에 비추어 보아 共産主義者들이 아직도 이 陳腐한 마르크스의 剩餘價值論을 내세워 企業家들이 勞動者들의 勞賃을 搾取다 함은 時代錯誤的인 不當性을 立証하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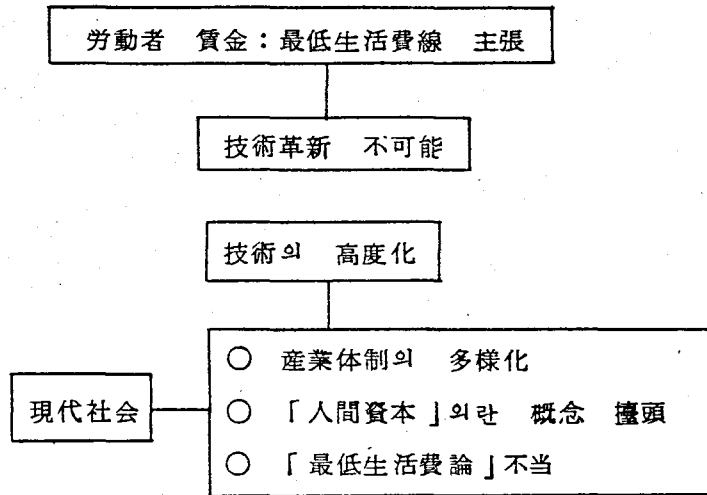


4) 批判IV, 勞動者의 搾取는 共産主義社會에서

내재; 勞動者에 對한 搾取現象은 오히려 「勞動者의 樂園」을 만들겠다는 共産社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共産社會에서의 剩餘生産物은 勞動者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強化나 独裁政權 維持에 使用되거나 所謂 새로운 階級の

이를 分析해 보면 勞動者의 搾取率은 約 800%以上이 된다. 이 같은 事實에 根拠하여 밀로반·질라스는 共産主義 内部에도 새로운 特權階級이 發生되고 그들에 依하여 새로운 搾取關係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하겠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勞動者의 賃금이 最低生活費線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資本家에 의한 勞動者들의 技術革新이란 想像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은 社會가 發達하고 産業体制가 날로 多樣化됨에 따라서 人間資本이란 概念이 漸漸 普遍化되어 가고 있으며 富의 概念도 物質的 富富以外에 人間에게 凝結된 富가 매우 重視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勞動者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근육의 力이 아니라 知識과 技術을 가진 人間資本이라는 點을 생각할 때 마르크스의 「最低生活費論」主張은 不當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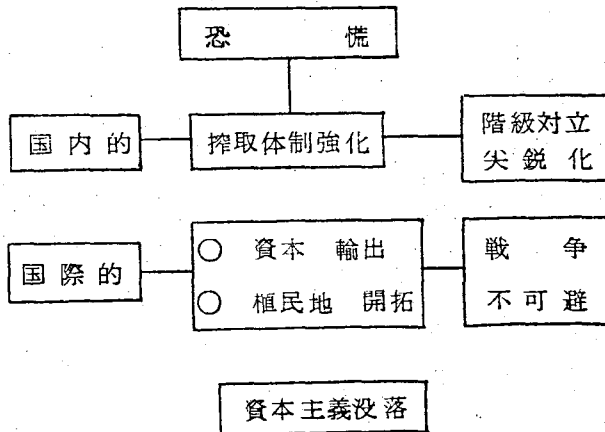
또한 그는 資本家들의 技術革新은 産業의 機械化를 促進시킴으로써 不變資本의 有機的 高度化를 造成하는 反面에 可變資本인 勞動의 減少現象을 일으킨다 하였다.

이 같은 勞動의 減少現象은 勞動에 依하여 發生한다는 剩餘價值를 減少시키게 되어 結果的으로는 資本家들의 利潤率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資本家들은 利潤率의 下落을 막기 위해서 資本의 蓄積에 의한 資本의 有機化를 더욱 高度化 시키고, 生産費를 줄이려고 努力하는 한편 國內의 劣等企業들을 吸收 併合함으로써 獨寡占에 의한 生産費를 擴大시키게 된다 하였다.

이에 反하여 勞動者들의 境遇를 보면 生産量이 擴大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技術革新 즉 機械化에 의한 것이므로 勞動者들의 雇用機會는 機械化된만큼 減少됨으로써 人口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失業者는 늘어나게 되며 結局 勞動者들은 貧困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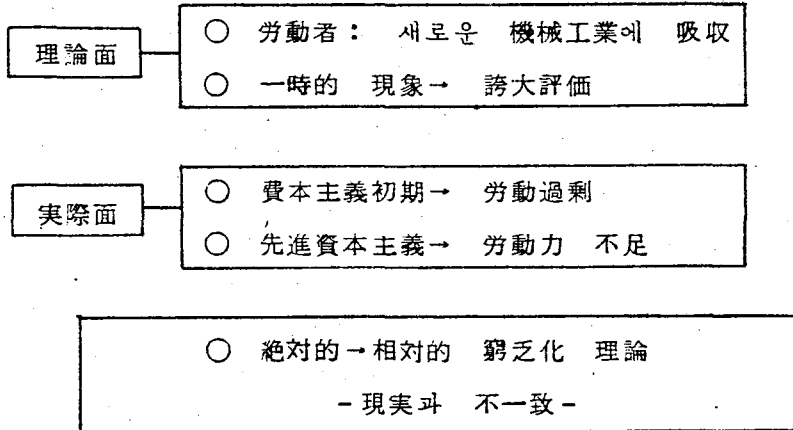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資本主義社會는 資本家들의 大量商品 生産과는 달리 勞動者들의 貧困에 따른 商品需要가 줄어들음으로써 商品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것이다.

그것은 人間의 嗜好가 恆常 變化하여 새로운 商品이 開發되고 이에 대한 需要도 늘어나기 때문이며, 새로운 宇宙産業이나 原子工業 등의 發達은 해마다 새로운 高率의 投資를 刺戟하기 때문이다. 한편 實際面에서 考察해 볼 때, 先進資本主義國家는 利潤率의 下落에 따른 經濟的 여러 矛盾으로 因하여 이미 沒落되었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高度의 成長을 보이고 있고 沈滯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 共産國家들인 것이다.



2) 批判Ⅱ, 勞働者 貧困이란 一種의 勞働者 煽動論

둘째, 共産主義者들은 産業의 機械化에 따른 勞働者의 貧困을 내세워 勞働者들에게 鬪爭할 것을 煽動하고 있다는 點이다. 于先 理論的인 面에서 볼 때, 勞働者들이 機械化로 因하여 部分的으로 解雇된다 하여도 새로운 機械製作工業에 就業할 수 있음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機械의 發明으로 因하여 一部 勞働者들이 그들의 職場을 當分間 잃는 局部的인 現象을 가지고 모든 勞働者들이 解雇되고 窮乏에 허덕이게 된다고 主張한 것은 매우 獨斷的이고 誇張된 判

3) 批判Ⅲ, 「恐慌의 發生」이란 獨斷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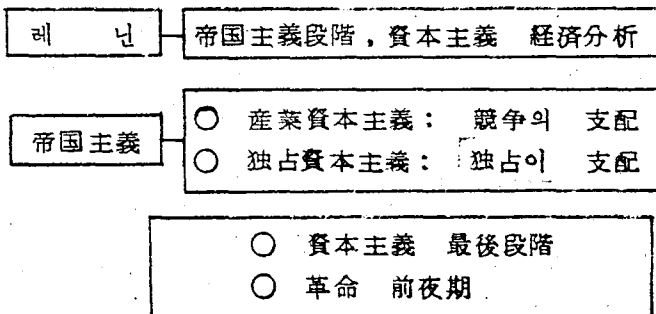
세계, 資本主義가 그 發生過程에서 内部的 矛盾 때문에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이 일어나서 一大 經濟恐慌이 隨伴되고 나아가 資本主義가 崩壞된다고 主張한 點은 現代 資本主義國家의 努力을 度外視한 獨斷論에 지나지 않는다.

實際面에서 볼때 資本主義 經濟體制에 있어서 恆常 均衡이 維持될 수는 없으며 境遇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經濟沈滯要素가 作用하여 景氣變動이 나타나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로 因하여 資本主義가 沒落한 나라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經濟의 持續的인 不均衡은 資本主義社會보다도 社會主義社會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現實이다.

단지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조그마한 不均衡도 당장에 表面에 나타나는 데 反하여 社會主義 統制經濟社會에 있어서는 보다 더 큰 不均衡도 表面化 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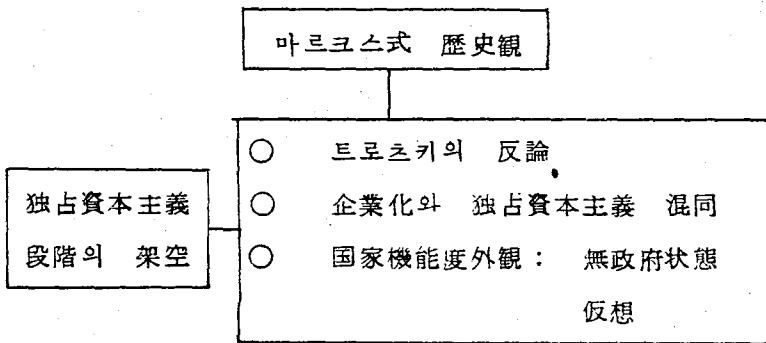
理論的인 面에서 볼때 오늘날 資本主義國家들이 恐慌抑制策을 講究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卽 國家는 財政金融政策을 中心으로 한 需要의 調整, 景氣變動을 自動的으로 安定시키는 失業保險이나 社會保障制度 그리고 累進稅率의 自動安定裝置 등을 活用하여 恐慌의 發生可能性을 事前에 抑制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主張을 經濟恐慌의 發生을 抑制하는 國家의 多様な 機能을 予想치 못한 것이라 하겠다.



네째, 國際独占體가 形成 됨으로써 世界分割이 이루어지며  
 끝으로 資本主義 列強 사이에 植民地 爭奪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世具的 規模의 戰爭이 不可避하고, 資本主義가 存在하는 限  
 國際平和는 결코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 帝國主義論 批判



1) 批判 I, 架空的인 段階設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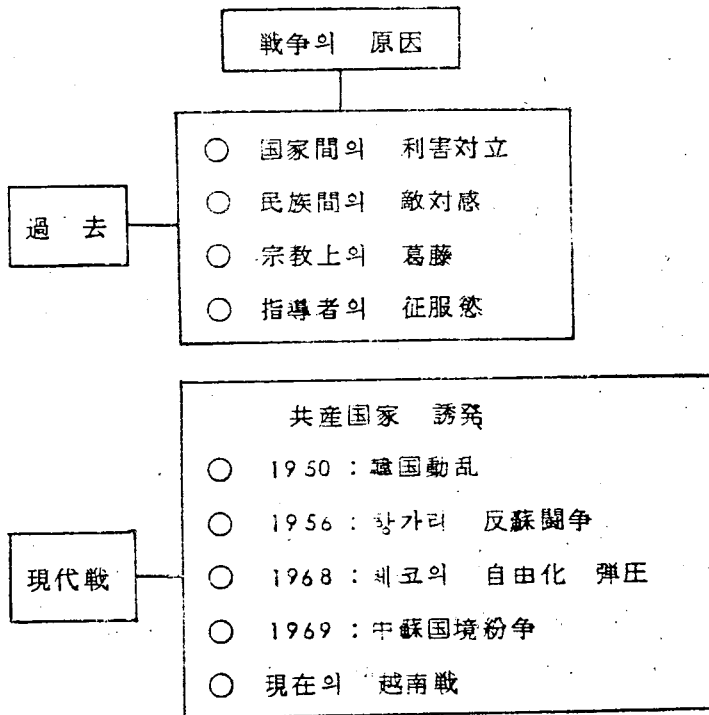
그러면 帝國主義論의 虛構成과 그 矛盾性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帝國主義論은 마르크스식 歷史觀이 가지는 理論의 貧困性을 그  
 대로 나타내고 있는바 「独占資本主義 段階」라는 概念 그 自体가 架空  
 的인 것이다.

蘇聯의 亡命者인 트로츠키는 그의 著書 <超帝國主義論>에서 레닌의  
 独占資本主義段階에 對해서 資本主義의 한 過程이 아니라 資本主義의  
 한 政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레닌의 帝國主義論에 反論을 提起한  
 바 있다. 勿論 境遇에 따라서는 資本主義國家에서 大企業이 盛行한  
 것도 事實이지 하지만, 大企業化 現象과 独占化 現象은 그 概念이 一  
 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共產主義者들이 大企業化의 現象을  
 独占現象과 混同하여 独占資本主義를 主張하였다면 이는 分明 理論上의  
 重大한 誤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의 擴大를 위해서 植民地 開拓을 하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虛爲性은 다음의 事實에서 立証된다.

오늘날 先進 資本主義國家들은 後進國國家에 대하여 無償援助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長期的인 低利 公共借款을 提供하고 있으며, 國際金融機關을 爲한 後進國 工業化에 最大의 便宜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産主義者들이 資本主義國家에 대하여 寡頭金融制니 植民地開拓을 위한 資本 輸出을 한다느니 하는 것은 先進國과 後進國의 住民들을 煽動, 相互 離間시킴으로써 그들의 窮極目標인 世界 赤化를 成取하려는 一種의 後進國 住民煽動論으로 밖에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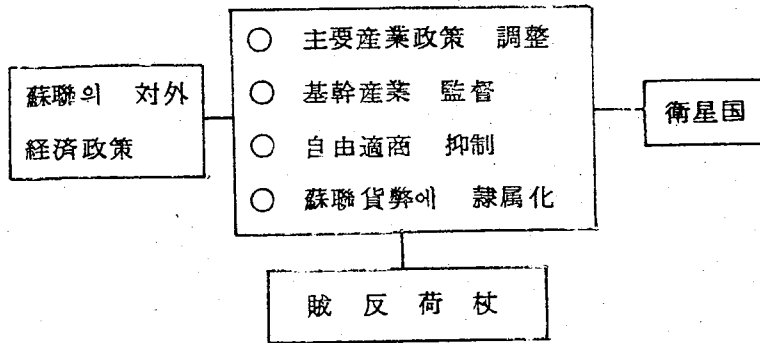


3) 批判Ⅲ, 戰爭 不可避論의 虛構性

세계, 레닌이 經濟的인 世界分割로 말미암아 資本主義 列強사이에

強制的으로 그들의 支配下에 넣었고。經濟的으로는 東獨으로부터 45 億 달라, 루마니아로부터 20 億 달라, 滿州에서 20 億 달라等 都合 85 億 달라를 收奪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經濟的 利權을 剝奪하여 衛星國家들의 自立的 經濟 體制 運營能力을 抹殺하고 말았다。



일찌기 共產圈 專門家로 널리 알려진 美國의 오버스트리트는 코메콘을 中心으로 한 蘇聯의 對外經濟政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한 바 있다。

첫째, 衛星國家의 主要産業政策을 調整하여 蘇聯이 指定해 준 商品만을 生産토록 하며

둘째, 衛星國의 基幹産業을 監督하는 管理者, 顧問 그리고 專門家들을 任命하고

셋째, 衛星國家와 資本主義國家와의 通商을 監督하며

끝으로, 衛星國의 銀行을 掌握함으로써 現地 通貨를 蘇聯의 루블貨에 隸屬토록 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처럼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主張과는 달리 새로운 赤色植民地政策을 쓰고 있어 賊反荷杖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세째, 共產主義者들은 마르크스의 剩餘價值說을 資本家の 私有財産을 奪取하는데만 活用하고 있을 뿐, 그들의 經濟現實에는 適用치 않고 있다.

네

④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崩壞되고 必然的으로 社會主義가 到來한다 하나 오늘날 經濟的 沈滯를 거듭하는 것은 오히려 共產國家들인 것이다.

네째,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崩壞되고 必然的으로 社會主義가 到來한다 하나 오늘날 經濟的 沈滯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가 아니라 오히려 共產國家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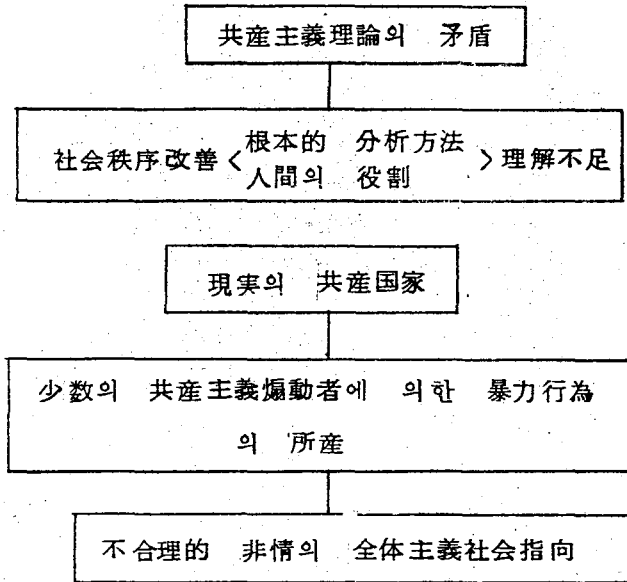
⑤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發展하면 勞動者는 貧困해진다 하여 勞動者 革命을 煽動하고 있다.

다섯째,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發展하면 勞動者가 貧困해진다 하여 富의 爭取라는 口實下에 勞動者 革命을 煽動하고 있다.

⑥ 마르크스는 恐慌 發生의 預言은 國家의 機能을 自由放任主義時代의 것으로 錯覺한데서 나타난다.

여섯째, 마르크스의 經濟恐慌 發生의 預言은 國家의 機能을 自由放任主義時代의 것으로 錯覺한데서 나타난 獨斷論이다.

5. 結 言



지금까지 共產主義 發生의 背景으로 부터 共產主義 基本哲學, 政治 그리고 經濟理論과 實際에 關하여 살펴 보았다.

共產主義者들은 社会秩序를 改造하고 보다 나은 社会建設을 約束하며 그에 따른 理論을 展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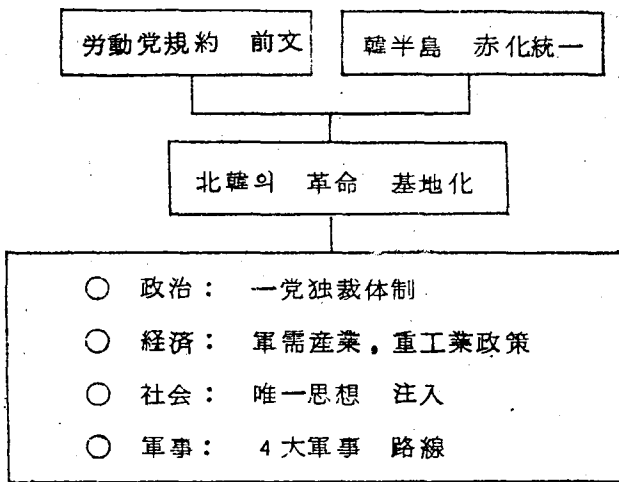
그러나 共產主義 理論은 社会秩序에 對한 根本的 分析方法和 秩序를 만들어 내는데 必要한 人間의 役割에 對한 理解가 없이 定立되었다는 點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 본 것과 같은 많은 矛盾點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비록 社会主義革命이 蘇聯과 中共을 비롯하여 其他 群少 国家에서 成就되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모두가 資本主義가 成熟된 나라도 아니거니와 마르크스가 予言한 것처럼 「必然的 歷史의 發展」에 따른 共產化 過整을 밟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小數의 共產主義 煽動者와 狂信者들의 政權奪取를 爲한 暴力的인

格으로 有効適切하게 驅使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버마에서 脫出한 蘇聯外交官이었던 카르나·체프도 共產主義者들이 그들이 窮極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힘의 哲學을 信奉하면서 힘의 培養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으며 힘의 蓄積되면 暴力에 의한 革命을 貫徹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暴露한 바 있다.



#### 나. 北韓 共產主義의 正體

그러면 우리의 對處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의 正體는 무엇이겠는가?

北韓共產黨은 그의 鬭爭路線을 뒷받침하는 黨規約前文에서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는 것이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明白히 規定짓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北韓의 窮極的인 目標가 全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으며 그 內容은 南北의 分斷狀態下에서 北을 支配하며 南韓을 北의 支配領域에 넣으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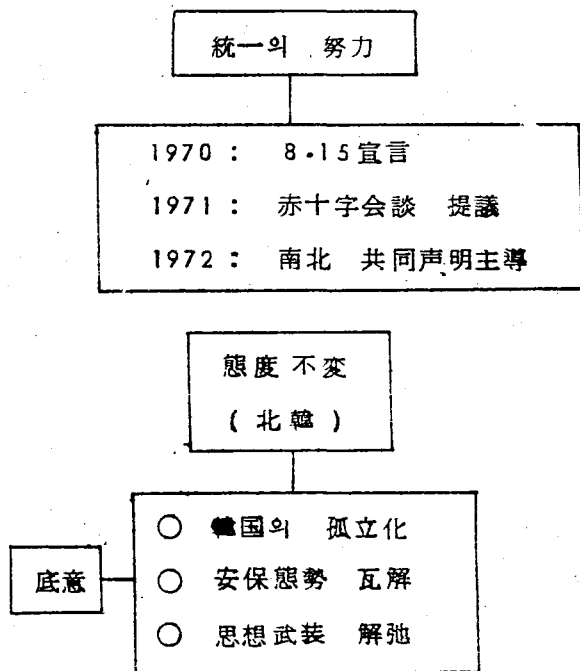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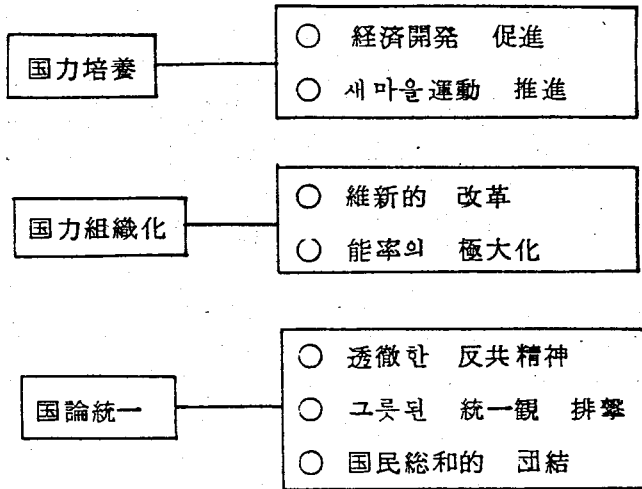
革命力량의 強化下에 窮極的으로 南韓內의 革命同調 勢力을 組進化하여 大韓民國의 顛覆에 注力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韓國內의 革命 同調勢力의 主力軍으로 判斷한 韓國의 勞動者들이 그 누구보다도 徹底한 反共精神으로 武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革命戰略에 決定的인 蹉跌을 주었던 것이다. 特히 그들은 南韓革命의 強化를 위한 主要 攻擊對象으로 美國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이 美國을 革命의 攻擊對象으로 보고 있는 것은 韓美間의 굳건한 紐帶關係가 韓國의 共產化革命에 決定的인 障礙가 된다고 評價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969年11月의 닉슨·佐藤共同聲明 以後에는 日本을 소위 美帝의 一環으로 보고 南韓革命의 主된 障礙要素로 보고 있다.





마. 우리의 使命

그러면 이 歷史的인 一大 轉換點에서 우리가 遂行해야 할 神聖한 責務와 使命은 무엇이겠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北韓共産主義者들이 감히 넘나 볼수 없도록 經濟開發을 促進하고 새 마을運動을 推進하여 우리의 힘을 하루 속히 培養하는 일이며, 다음은 그들이 赤化統一의 野慾을 完全히 拋棄하도록 維新的 改革과 能率의 極大化를 通하여 우리의 힘을 튼튼히 組織化하는 일이며,

끝으로 온 國民이 共産主義의 宣傳에 眩惑됨이 없이 共産主義의 正體를 올바르게 알고 透徹한 反共精神으로 武装하며 그릇된 統一觀을 排擊하여 國民總和的 團結을 이룩하는 일 等이다.

그리하여 우리 온國民의 念願인 民主統一을 期必코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는 集團의 公的 生活 및 集團을 構成하고 個人的 私的 生活의 바탕이 되는 風俗·習慣에 密着하지 않고서는 存立할 수 없다. 故로 共產主義運動이 理念上 아무리 프롤레타리아트 國際主義나 連帶성을 標榜한다고 할지라도 現實的으로 그 運動이 民族國家의 體制를 바탕으로 하여 實踐되지 않을 수 없는 限에 있어 全的으로 이데올로기의 問題에 還元될 수도 없었고 따라서 恒常 現實的으로는 民族問題와의 葛藤을 免할 수가 없었다.

마르크스主義의 國際主義的 觀念과 民族的 考慮 사이에는 恒常 衝突이 일어났으며 또 共產主義運動을 全的으로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의 問題로 統一 還元시킬 수 있었다는 點에서 世界의 共產化를 指向하던 普遍主義的 共產主義運動은 民族國家를 單位로 하는 個別國家의 共產化로서 存統하게 되었다. 이것은 國內政治的인 面에도 同一하다. 蘇聯을 例하면 볼세비키의 指導者나 그 後繼者들도 그들이 當面된 政治的 現實에서 外面치 못하는 限 이데올로기와 내쇼날·인트레스트의 對立에 있어 이데올로기 보다도 後者인 내쇼날·인트레스트를 挾하였다. 이와 같은 國家利益에의 依存을 民族國家를 土臺로 共產主義運動을 實踐하는 限 마르크스主義者들이 謀免할 수 없는 宿命的인 것이기도 하다.

現實的인 政治的 次元에서 본다면 蘇聯이 世界赤化를 위한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의 指示보다도 蘇聯의 國家利益과 勢力膨脹에 더욱 追從해 왔다. 이것은 國家利益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利用을 말하고 있다. 革命後 50年의 歷史를 통하여 蘇聯은 確實히 國際政治를 左右하는 超強大國으로서의 立場과 地位를 構築해 놓았다. 今日 蘇聯이 美國과 더불어 世界에서 超強大國으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虛構가 아니라 嚴然한 事實이다. 蘇聯은 軍事科學技術面에서 뿐만 아니라 工業生産力에 있어서도 美國 다음가는 世界 둘째의 國家로 發展하였다. 이와 같은 發展을 全的으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優越性

反抗運動이 일어났는데 러시아革命은 이와 같은 反抗運動을 繼承하여 發生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知識階級을 中心으로 發生한 反抗運動 가운데 1825年 12月 14日에 일어난 <12月党的 反亂> (Decembrist Revolt) 은 近代러시아革命史의 첫 페이지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歷史에 비추어 본다면 나폴레옹戰爭(1799~1813)은 러시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意味를 賦與한 셈이다. 卽 첫째로 프랑스軍이 러시아領土에 侵入하게 됨에 러시아의 產業 및 文化를 刺戟하고 또한 貴族的 인테리겐체를 刺戟하였다. 둘째 러시아軍이 對仏同盟의 一員으로서 聯合國의 立場에서 파리에 進擊하게 됨에 當時 러시아의 青年將校들은 프랑스에서 프랑스革命이 招來한 새로운 秩序에 感銘을 받아 러시아의 專制政治와 腐敗에 대한 自己反省의 機會를 가지게 되었음은 勿論 獨逸에 있어서는 나폴레옹打倒를 위한 各種의 秘密結社와 接觸할 수 있게 되었다. 專制政治, 奴隸制 그리고 文盲에 허덕이던 當時의 러시아의 實情에서 본다면 나폴레옹戰爭이 러시아에 미친 影響은 深且大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青年將校들은 歸國後 自國의 體制改革을 意圖하여 急進的인 貴族出身將校들이 各種의 組織을 만들었는데 때마침 아렉산더 1世가 病死하여 니코라이 1世가 即位하게 되었는데 이 때 將校들은 忠誠宣誓를 拒否함으로써 1825年 12月 14日에 政府軍과 衝突하는 事實이 發生하였다. 이것이 所謂 <12月党的 反亂>이다.

이 <12月党的 反亂>은 러시아革命의 第1段階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運動은 大衆的 基盤을 欠如하며 非組織的인 貴族의 觀念的 革命이었다는 점에서 失敗하였다. 然後 니코라이 1世의 專制政治가 苛酷의 度を 極甚하게 함에 따라 니히리즘運動이 1860年代에 展開되게 되었다. 當時 러시아에서의 니히리즘運動의 立場은 大体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一切의 精神的, 文化的 傳統에

③ 革命的 主力이 新興 프롤레타리아이며 ④ 戰爭方法으로서 大衆組織에 呼訴해야 한다고 보는데 있었다.

그러나 나로드닉運動이 理想主義的 인텔리겐차 中心이며 平和主義的啓蒙主義에 呼訴하는 非프롤레타리아運動으로서 農民이 社會主義 보다도 土地에 더 關心이 있었고 또 運動 그 自体가 非組織的인 데다가 政府의 彈圧도 甚함으로써 結局 失敗하고 말았다.

政府의 彈圧이 甚하고 나로드닉運動이 테러리즘化함에 따라 運動 그 自体도 内部的인 分裂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分裂現象에서 세 가지의 傾向을 發見할 수 있다. 即 첫째로 一部는 個人的 테러리즘에 呼訴하면서 니히리즘運動으로 發展되고, 둘째로 다른 一部는 思想的으로 나로드닉運動의 立場을 維持하면서 運動形態를 變化시켜 政黨運動으로 發展하였는데 1898년에 創設된 社會革命黨이 바로 이것을 意味하고 있다. 그리고 세째로는 根本的으로 나로드닉 運動의 立場을 清算하고 마르크스主義로 轉換하는 一派가 있었는데 그 代表的인 人物이 프레하노프였다. 프레하노프는 제네바에서 1883年 勞動者 解放黨 (Emancipation of Labour Group)이라는 것을 組織하였는데 이것은 러시아치고 마르크스主義의 最初의 政黨이었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를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主義의 始祖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以上 論한 것이 러시아革命運動의 背景的인 前史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歷史的인 背景에서 우리는 볼셰비즘의 이데올로기의 系譜를 理解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로드닉運動이 테러리즘化 하는 過程에서 農民中心의 나로드닉運動者 中心의 마르크스主義運動으로 變遷하여 갔다. 볼셰비키의 指導者 레닌이나 트로츠키도 나로드닉運動에서 마르크스主義에로 改宗한 者들이다. 어쨌든 이와 같은 過程에서 蘇聯共產黨 前身인 러시아社會民主勞動黨

으로 하는 英國의 古典經濟學, 그리고 상 시몬(Saint Simon)을 中心으로 하는 프랑스의 社會主義를 土台로 하고 있다. 그리고 西歐 社會의 資本主義發展의 不均衡에서 프롤레타리아트 獨裁와 革命에 의하여 無階級 社會(classless society)의 合理化를 試圖한 것이 마르크스였다. 그리고 이 革命的 傳統을 繼承하여 마르크스主義를 러시아의 革命的 實踐에 適用시킨 것이 볼세비키이다.

### 3. 레닌主義 (Leninism)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레닌主義는 러시아 共產主義의 第2 段階로서 마르크스主義의 適用實踐 段階를 말한다. 레닌主義는 레닌이 볼세비키의 領導者였다는 點에서 볼세비즘(Bolshevism)이라고 부른다. 레닌主義는 農民을 重要視하였다는 點에서 19 世紀 나로드닉 運動의 傳統을 繼承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로드닉 運動의 思想과 마르크스主義를 單純히 混合한 混合體는 아니다.

1917年 10月 볼세비키 革命 以前에 이미 러시아의 產業的 後進性 때문에 蘇聯 共產主義者間에는 意見의 對立과 分裂이 있었는데 이것은 大體로 세 個의 分派로 集約 表現할 수 있다. 即 멘세비키(Mensheviks), 트로츠키(Trotsky) 그리고 볼세비키(Bolsheviks)가 바로 그것이다.

멘세비키는 社會民主黨系였는데 그 指導的 人物이 되는 것은 프레하노프와 마르토프(Martov)였다. 이들은 첫째로 革命 段階로서 부르조아지 民主 革命과 프롤레타리아트 社會主義 革命이라는 두 個의 革命 段階를 是認하면서 勞動者 階級이 脆弱하기 때문에 社會主義 革命을 먼 將來之 事라고 하였다. 둘째로 勢力 基盤으로서 自由主義的·부르조아지와 同 盟을 主張하고 社會主義 革命 條件의 成熟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嚴格한 統制를 黨規律의 基本으로 하고 世界革命을 追求하였다. 民主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을 段階的으로 遂行해야 한다던 볼세비키의 主張은 1917年 10月 레닌에 의하여 볼세비키革命의 成功으로서 貫徹되었다.

마르크스 理論家라고 한다면 레닌은 戰略戰術家였다. 이들에게면 프롤레타리아트의 普遍的이며 一般的인 革命理論인 마르크스主義理論을 러시아의 後進的인 現實에 어떻게 適用. 實踐할 것이냐의 策略的인 立場에서 클라우제비츠(Clauswitz)의 戰爭論을 徹底히 研究하여 마르크스主義者로서의 立場에서 發展시켰다.

레닌의 基本的인 立場을 유럽革命의 同時性에 대한 期待와 世界革命에 관한 持論에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革命理論에 있어 멘세비키보다도 트로츠키派에 더 近似한 立場을 취한 그는 러시아革命을 世界革命의 烽火로 보고 러시아革命이 成功하면 유럽의 勞動者들이 이에 刺戟되어 各其 自國에서 革命을 일으키며 따라서 러시아革命과 유럽革命이 거의 때를 같이하여 일어남으로서 世界革命이 結果的으로 可能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러시아의 國際的 孤立을 打破하기 위하여 유럽革命으로서 러시아革命을 擁護해 보려는 戰略. 戰術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世界革命을 위한 參謀本部로서 1919年 코민테른을 創設하였다. 코민테른의 創設은 第1인터와 第2인터의 失敗를 다시는 反復하지 않으려는 經驗의 產物이었다. 그는 코민테른을 통하여 모스크바라는 하나의 中心地에서 世界의 共產主義運動을 指導하며 러시아에 樹立된 소비에트體制를 마르크스主義의 理想型으로 보고 이것을 유럽各國에 普及시키고자 하였다. 世界革命은 端的으로 유럽革命을 意味하였다. 對外的인 世界革命理論의 貫徹을 위하여 이미 國內的으로는 1918年부터 自然經濟를 意味하는 戰時共產主義(war communism) 政策을 追求했다. 戰時共產主義政策은 러시아革命에 대한 西歐列強의 國

現實政治的 要素를 考慮했으나 이데올로구 (ideologue) 의 立場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그의 執權時代에 全히 變化가 없는 것은 아니다. 事實上 그가 苦待하던 유럽 革命이 成功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볼셰비키 指導者들이 全히 豫期치 못하던 일로서 資本主義列強의 軍事的 干涉에도 不拘하고 蘇聯政權이 存統하여 事實上 兩体制의 共存狀態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突破해 나갈 것이냐의 問題가 提起되었다. 蘇聯代表가 처음으로 公式的으로 招聘된 國際會議은 1922年 4月에 제노아에서 開催된 世界經濟會議였는데 이 會議를 前後하여 蘇聯은 兩体制의 並存 또는 暫定的 存在의 現實的 價值를 言及한 바 있었다. 그러나 共存政策은 世界革命의 目標를 断定하거나 拋棄할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国内的으로 政策轉換을 한 新經濟政策 (NEP) 과 마찬가지로 國民經濟의 復興이라는 当面된 必要에 対応하기 위한 不可避한 讓步였다.

크론슈타트에서 일어난 水兵反亂이 端的으로 例示하듯이 峻嚴한 戰時 共產主義에 대한 民衆의 抵抗과 不滿이 頑強하였으므로 이들 不滿에 대한 臨床療法으로서도 戰時共產主義로 부터 新經濟政策으로 轉換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마르크스主義의 窮極目標에 到達하기 위한 臨時措置로서 취해진 것이 戰時共產主義였다면 新經濟政策은 資本主義에 의 部分的 復歸를 意味한다. 經濟의 主要要素로서 利潤動機와 交換經濟를 是認하고 資本主義에 의 部分的 復歸를 위하여 戰略的으로 後退함으로써 生産力을 回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国内的인 條件과 더불어 對外的으로는 西歐에서 革命狀況이 退潮期에 접어들므로써 이에 대한 対応策으로서 外部世界와 外交·通商關係의 再開를 보게 되었다. 이 모든 變化에도 不拘하고 스탈린과는 달리 革命의 恒久性의 信念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理論은 現實的으로 여러 가지의 矛盾에 逢着하게 되었다. 이것은 理論과 소비에트體制에 具體化된 實際間에 不均衡과 乖離가 생겼음을 말하여 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데올로기를 保有하는 限에 있어 그 源泉인 理論을 拋棄할 수는 없다. 여기에 特히 스탈린時代 以後에는 理論과 이데올로기가 다 같이 變形過程을 經게 되었다.

마르크스主義理論이 國家敎義로 化하고 正統主義理論이 儀式化되어 政策을 妥當化 시키는데 利用되었다. 이것은 理論이 그때그때의 現實的인 與件에 不適合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理論을 拋棄하거나 또는 다른 새로운 理論으로 代置하지 않는 것은 政治體系의 正當性이 理論을 바탕으로 하여 合理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政策의 案出과 더불어 理論에 대한 副次的이며 새로운 前提條件이 導出되고 또 이리 함으로써 正統的인 理論을 實質的으로는 無價値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理論과 政策의 顛倒關係에서 그들은 理論의 保存을 위해서는 現在 보다도 未來를 더욱 強調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리하여 理論은 大體로 現實에 無感覺한 채 그 自體의 自律的인 生存領域을 가짐으로서 現實과의 乖離를 나타낸다. 이렇듯 마르크스主義가 理論에서 國家의 틀 속에 짜인 이데올로기로 軛落하고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가 또한 政策에 逆으로 隸屬하게 되었다. 어쨌든 레닌은 스탈린을 비롯한 後世의 볼셰비키 指導者에 比하면 強力히 現實政治的인 要素를 考慮하면서도 典型的인 이데올로기로서의 立場에 自勉하였다는 點에 그 特色이 있다고 할 筈이다.

#### 4. 스탈린主義 (Stalinism)

革命의 恒久性을 信奉하는 레닌과는 달리 스탈린은 段階的인 社會主義建設을 指向한 보다 現實主義的인 政治家였다.

및 内部的 建設에 대한 要請에서 나온 것이다. 1920年代에서 1940年代에 이르기까지 革命 資本主義에 관한 레닌主義的 約束의 記憶이 생생하였으나 스탈린의 對外政策의 支配的인 動機는 階級鬪爭이나 革命 그 自体 보다도 蘇聯이 어떠한 危險한 關係에도 휩쓸려 들어가지 않겠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第2次大戦에서의 蘇聯軍의 勝利와 中央政權의 樹立은 그의 이와 같은 決意를 破壞하였다. 故로 그는 戰後의 對外政策에 있어 過去의 體制를 支配하던 思考方式인 一國社會主義의 觀念을 訣別하게 되었다. 中共和 東歐共產國을 中心으로 하는 共產國이 形成된 然後에도 그는 이들 個別國家의 國家利益을 蘇聯의 國家利益에 隸屬시켰다. 이것은 아이작크.도이처 (I. Deutscher) 教授가 指摘하듯이 스탈린이 一國社會主義의 建設을 基盤으로 社會主義帝國의 建設을 目標로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스탈린의 目標은 소비에트체제의 確立과 社會主義 經濟체제의 確立을 基盤으로 一國社會主義를 建設하고 나아가서는 社會主義帝國 (socialist empire)의 建設을 企圖하였다. 故로 이와 같은 目標은 이데올로기의 目標라기 보다도 社會主義國家로서 發展함에 要하는 蘇聯의 國家目標로서 蘇聯의 國家利益의 保存과 增進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은 이데올로기의 目標 보다도 蘇聯의 國家目標를 더 追求하였다.

1924년에 스탈린이 一國社會主義論을 提起하여 正統主義的 立場에 선 트르츠키의 永統革命論을 否認했다.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의 核心은 一國에서의 社會主義社會의 建設問題를 社會主義經濟의 組織 및 干涉, 舊制度復活로부터의 完全保障이라는 두個의 問題로 分割하여 前者에 대해서는 肯定하고 後者에 대해서만이 數個國家에서의 革命의 勝利가 必要하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革命의 完全勝利= 社會主義社會의 建

社會主義의 完全한 組織化를 위해서도 러시아만의 獨自的인 힘으로서 充分하다고 보았다. 卽 러시아는 廣大한 土地와 豊富한 資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의 一國社會主義論은 經濟的으로 본다면 充足經濟를 意味하였다. 이리하여 스탈린은 世界革命의 臨時的인 保留 내지는 段階的인 遂行을 指向하게 되었다.

그리고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退潮期의 產物인 만치 이것은 國際情勢에 관한 그의 判斷과 密接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게 됨은 當然한 일이다. 一國社會主義論은 레닌의 期待와도 달리 資本主義의 相對的 安定을 是認하고 이것을 前提로 兩體制間의 一時的인 힘의 均衡을 是認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39년에 出刊된 <레닌主義의 諸問題> (Problems of Leninism)에서 스탈린은 世界의 兩個의 陣營(Camp) 卽 美·英의 資本主義를 先頭로 하는 資本主義陣營과 蘇聯을 先頭로 하는 社會主義陣營으로 分裂되어 이 두 陣營의 힘이 一定한 一時的인 힘의 均衡에 到達한 것도 現在의 瞬間에는 特徵이라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 國際情勢에 대한 그의 判斷의 特徵은 두 陣營의 安定과 均衡에 있다. 이와 같은 그의 立場은 1950년에 出刊된 <蘇聯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經濟的 諸問題>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U.S.S.R)라는 그의 pamphlet속에 더욱 明白히 表現되어 있는것 같다. 同 pamphlet속에서 그는 資本主義 國家間의 戰爭은 다만 資本主義의 一國이 他國에 대한 優越性의 問題에 놓이게 하는데 反하여 蘇聯과의 戰爭은 確實히 資本主義 그 自体의 生存의 問題를 걸지 않으면 안되므로 蘇聯과의 戰爭은 資本主義 相互間의 戰爭 보다도 더욱 危險性이 濃厚하다는 情勢判斷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탈린의 情勢判斷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原則論上

하는 一國社會主義論이 終極的으로 스탈린主義的인 도구마로 形成되기  
 까지에는 時間的으로 長期間의 漸次的인 構成過程을 經由했다. 이와같  
 은 이데올로기의인 不連續性은 소비에트체제에 있어서는 日常的이며 흐  
 루시초프 體制下에 있어서도 同一하였다.

### 5. 흐루시초프主義 (Khrushchevism)

蘇聯에 있어서 마르크스主義의 第4 段階는 흐루시초프는 蘇聯의 政  
 治史에 있어 가장 轉換期의 人物로 登場하였다. 그는 스탈린主義的인  
 組織形態와 思想을 破壞하고 國際狀況의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이데  
 올로기의 「合」概念(Synthesis)을 提示하고자 하였다. 이 「合」概  
 念은 첫째 國內的으로는 새로운 經濟發展과 一元主義的인 黨의 繼續的  
 支配를 結合코자 試圖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蘇聯權力의 膨脹을 世界的인  
 單一領導 權力下에서의 獨立的인 革命勢力과 結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와같은 그의 像이 崩壞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56年 第  
 20次 黨大會는 非스탈린化의 第1 段階였고 第22次 黨大會는 그 第2 段階로서  
 解釋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發展段階를 意味하기도 하였다. 이 2회에 걸친 黨  
 大會에서도 恐怖政治의 非難을 비롯하여 世界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民  
 族共產黨의 自律性, 社會主義世界體系에서의 諸問題의 平等性 및 戰爭不  
 可避論等 여러 가지의 劃期的인 課題가 報告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報告에 드 不拘하고 第22次 黨大會는 이미 崩壞의 徵兆마저 보여 주었  
 다. 國際共產主義運動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政策의 基礎는 蘇聯의 利  
 益과 獨立的인 共產諸國에 의한 革命的 膨脹의 利益이라는 兩者 사이  
 에는 아무런 矛盾도 없다는 信念에 있다. 그러나 第22次 黨大會에서  
 中. 蘇의 對立이 露骨化됨에 이와 같은 假定은 破壞되고 말았다.  
 第20次 黨大會에 있어서의 非스탈린化運動이 黨 및 政府內에서 國內的인  
 抵抗을 자아내며 反하여 第22次 黨大會는 國際的 反撥과 危機를 造成

은 是認은 無條件的인 是認일 수는 없으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基本條件의 充足이 但書로 붙어 있다. 卽 그 條件은 첫째 基本的 生産手段의 共同所有, 둘째 農業의 社會主義的인 漸進的 改造, 세째 計劃經濟의 實踐, 그리고 네째는 프롤레타리아트 國際主義의 堅持로 되어 있었다. 이들 4個의 條件을 充足시키는 限 社會主義에의 民族路線을 許容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換言하면 社會主義의 多樣性이라고도 한다.

이리하여 東歐政變後에는 共產陣營内部에 대해서는 스탈린時代의 統制代身에 圈內協調를 原理로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原理의 採択은 名分上 共產諸國이 不均衡的인 經濟發展을 止揚하여 同時的인 社會主義建設과 均等한 經濟發展을 圖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적어도 勢力膨脹이라는 蘇聯의 政治的 目標의 次元에서 본다면 資本主義와의 經濟競爭에서 그 優越性을 立証코자 하는 對自由陣營 經濟攻勢의 一環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一國社會主義를 一國共產主義의 段階로 移行시키고자 하는 그들에 있어 蘇聯 自體의 資源의 不足을 補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社會主義帝國의 建設을 위하여 經濟的, 政治的 그리고 軍事的인 直接的인 統制와 榨取를 일삼던 스탈린과는 달리 흐루시초프가 直接的 統制를 緩和하고 社會主義聯邦의 建設을 指向하게 되기까지는 相當한 理由가 있지 않을 수 없다. 卽 흐루시초프는 政治的 強制나 이데올로기上的 指示 보다도 蘇聯의 經濟的, 政治的 優越性의 利用이 더욱 效果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共產圈内部에 대해서는 同時的인 共產主義建設을 名目으로 하여, 對自由陣營에 대해서는 經濟競爭을 展開하여 美國을 따라가고자 하는 戰略目標의 達成을 위해 코메콘(COMECON 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을 中心으로 하여 國際分業의 原理下에 共同市場의 建設을 위한 努力을 보여 주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는 孤立主義의

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經濟競爭과 더불어 資本主義批判을 理論面에서 實踐面으로 옮기고 있다.

어쨌든 스탈린 時代의 이데올로기가 教義上 社會主義의 建設로서 特徵 지워진 데 대하여 흐루시초프는 社會主義建設은 이미 遂行되고 20年計劃에 의하여 共產主義段階로 移行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흐루시초프의 言明은 蘇聯이 教義上의 最終目標인 共產主義社會에의 到達을 위하여 努力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故로 이것은 教義上 가장 困難한 段階이기도 하다. 過去에 있어 教義는 그때 그때 다이내믹한 呼訴를 통하여 維持되고 最終目標을 未來에 돌림으로서 現實을 超越하여 教義를 機能케 하였다. 이리하여 共產主義의 成就를 恒常 後日에 미룸으로서 教義上의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教義上의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方法은 날이 갈 수록 制限되어 있다. 萬一에 이데올로기가 國民이나 黨에 대하여 死亡化된 公式으로 되어 버리고 實質的인 機能을 다하지 못한다면 分派的인 社會勢力이나 利害의 對立을 止揚하고 黨 그 自体를 維持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内部的인 團結의 終末을 意味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境을 넘어서 對外的으로 이데올로기의 浸透를 試圖하게 될 것이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와 實際事件 사이에는 恒常 相互作用이 일어남으로서 이데올로기가 修正되어 왔다. 世界革命의 失敗에서 이데올로기는 國內政治에서 거의 適應力이 喪失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工業運動으로서 이데올로기의 正常化를 試圖하였다. 그러나 蘇聯이 하나의 國家로서 社會主義化되고 強大해 진다는 것은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危機를 增大시켰다. 國內政治에서 이데올로기는 團結을 呼訴하며 國民을 彈壓하는 道具로서 機能하는 外에 거의 無意味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리하여 이데올로기의 正常化를 위해서는 對外關係에서 生存能力을 摸索하게 된다. 이와 같은 努力의 表示가 코메콘을 中心으로 하는 國家主權의 障壁을 撤廢코자 하는 試圖로서 나타났다.

하여 國家間的 關係의 現狀維持와 一國內에서의 社會關係의 現狀維持의 두개로 大別하여 平和共存을 前者에만 限定시켜 適用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現代世界의 特質은 內政과 外交의 限界를 模糊하게 하고 있으며 一國內에서의 社會關係의 變動은 그대로 곧 國際關係의 變動에로 直結된다. 따라서 國際化된 內亂, 具體的으로는 民族解放鬪爭이 局地戰의 形態를 취했을 때 平和共存의 立場에서 어떻게 對処할 것이냐의 問題가 提起된다. 흐루시초프는 한때 現代의 戰爭을 全面戰爭과 局地戰爭 및 解放戰爭으로 分類하고 全面戰爭과 局地戰爭은 絶對로 回避하여야 하며 解放戰爭만을 正義의 戰爭으로서 어디까지나 支持한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類型論을 가지고서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은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흐루시초프는 美·蘇協調에 의하여 內亂의 國際化를 防止할 것을 期待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것은 곧 美·蘇의 世界支配를 위한 陰謀라 하여 中共에 의하여 猛烈히 指彈되게 되었다. 平和共存政策의 背後에 있는 經濟競爭도 經濟建設의 垂範에 의하여 自由國家 및 中立主義國家의 勞動者階級을 社會主義에 誘引하고자 하는 蘇聯의 基本立場은 先進國의 애고이즘을 代弁하는 論理에 빠질 弱點을 가지고 있다.

蘇聯에서의 마르크스主義의 第5段階인 브레지네프~코시건政權도 흐루시초프의 이와 같은 外交의 遺産을 大体로 踏襲하여 왔다. 蘇聯의 國際的 威信의 基礎가 社會主義諸國과의 紐帶에 있는 限 修正主義라고 非難하는 中共의 挑戰을 물리치는데 必要한 國際的 行動을 強化하지 않으면 안되는 反面에 國際的 連帶를 名分으로 하여 들고 나오는 東歐諸國의 民族共產主義的인 遠心的 傾向도 어느程度까지는 看過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蘇聯外交의 딜렘마가 있다 할 것이다.

東歐諸國의 自由化 氣風은 蘇聯의 國內的인 自由化에 대한 大衆의

重要性에 대한 是認이 顯著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이번의 브레즈네프  
 ~코시긴政權이다. 이번 政權의 特色의 하나로써 코시긴이 現在의 5  
 個年計劃을 作成함에 있어 重工業優先을 둘러싸고 專門學者들에게 徹底  
 하게 討論시키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討論에 있어  
 個中에는 重工業優先主義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擴張再生産論과는 아무  
 런 關係도 없으며 마르크스~레닌主義에는 社會主義에서 重工業優先主  
 義를 해야 된다고 言及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發言한 學者들까지 나  
 오게 되었다.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論争은 經濟計劃에의 利潤導  
 入에 관한 것이다. 스탈린時代의 計劃經濟가 過度하게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였으므로 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그것이 도리어 經濟의 能率을  
 低下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故로 스탈린式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를  
 經濟의 發展에 適応하도록 보다 더 合理化시킬 必要性을 認定하게 되  
 었다. 이리하여 스탈린式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를 어느 程度로 地方  
 分權化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背景에  
 서 1962年에 리베르만이 個個의 企業의 利潤率에 의하여 企業実績을  
 評價하고 또 이것을 基準으로 하여 物的報償基金을 積立시켜서 經營의  
 能率을 刺戟시킨다는 提案을 하였다. 리베르만은 表面上 自由市場을  
 認定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思想은 相當히 資本主義와 共通的인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思想은 스탈린時代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리베르만의 思想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의으로 批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단히 技術的인 批判만이 있었다. 흐루시  
 초프도 리베르만의 思想을 實驗하여 徐徐이 實施하는 方向으로 나왔다.  
 코시긴은 1965年 9月 비로소 現在 實施하고 있는 新經濟制度를 採  
 択하게 되었다. 그러나 現在의 新經濟制度는 리베르만의 理論과는 相  
 當한 距離가 있으며 또 리베르만이 主張하듯 이는 分權化도 되어 있



의 利害 보다도 蘇聯一國의 利害를 優先시키고 있다. 브레즈네프~코시긴政權도 이 新綱領의 基本路線을 繼續 踏襲하고 있다. 新綱領이 設定한 美國을 凌駕한다는 計劃의 實施는 新 5 個年計劃(1966~70)의 目標 數字가 大幅的으로 引下된 點에서 미루어 보면 拋棄된 것과 같은 印象이 없지 않다. 브레즈네프~코시긴政權의 最大의 努力은 蘇聯一國에서의 共產主義의 建設을 目標로 經濟成長과 消費生活水準의 急速한 向上을 實現하는데 두고 있는 것 같다.

國際關係面에서는 中·蘇關係의 改善을 위하여 各種의 努力을 支拂하였으나 結局 失敗하여 全面的인 決裂의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西歐諸國과는 設使 多少의 曲折은 있어도 平和共存路線을 一貫하여 追求하고 있다. 그리고 低開發國家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實質的인 經濟援助에 관한 限 흐루시초프時代의 規模를 下廻하고 있다. 이와 같은 類似性에도 不拘하고 흐루시초프時代와는 달리 狀況의 變化에 當面하고 있다. 卽 世界가 美·蘇兩體制의 共存과 平和競争을 軸으로 하여 움직이고 여기에서 社會主義世界의 指導國인 蘇聯이 世界모니를 掌握하고 있다는 形象이 現在로서는 相當히 妥當性을 喪失하고 그 代身에 美·中共兩國의 對決이 國際關係의 中軸으로 되어가고 있다.

어쨌든 蘇聯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國家와 國民을 綜合하는 土臺로 삼고 있는 社會主義國家이다. 美國에서 民主主義를 公公然하게 저버리는 政權이 存続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蘇聯으로서도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公公然하게 저버리는 것은 어떠한 政權이라 하더라도 自殺行爲이다. 故로 經濟機構의 改革도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觀點에서 正當化시키는 節次를 밟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恒常 政治的 配慮에서 疎忽할 수는 없다.

行政技術이다. 이것은 또 結果적으로 國家와 官僚의 役割을 逆으로 高度化시키는 傾向을 隨伴한다. 이와 같이 蘇聯이 國家의 消滅을 標榜하는 이데올로기와는 別個로 管理者層을 基盤으로 現實主義의인 方法으로 共產主義의 建設을 指向한다면 이데올로기와 現實 사이의 乖離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러시아革命의 世界史的인 意義와 理念을 高唱하고 그 實現을 위해 如何한 特性의 支搨도 不辭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理念과 實際의 連結이 政權存立의 基本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蘇聯은 날이 갈 수록 이데올로기의 딜레마에 逢着할 宿命에 있다고 할 것이다.

## 7. 結 論

大略 上述한 바와 같이 러시아에 있어서의 마르크스主義의 展開過程을 西歐思想인 마르크스主義를 러시아에 처음으로 導入한 프레하노프主義를 起點으로 하여 러시아에서 마르크스主義의 適用 實踐을 試圖한 레닌主義, 스탈린主義, 흐루시초프主義, 코시긴主義라는 一連의 歷史的 過程으로 捕捉하고 그 間에 있어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러시아의인 現實이 어떻게 相互作用해 왔느냐에 主眼點을 두고 蘇聯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役割과 變遷을 考察했다. 元來 마르크스主義는 共產主義者들에 있어 敎訓으로서, 國內外的인 政治에 對한 觀察方法으로서, 또 行動의 指針으로서 機能한다. 그러나 이미 分析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國內政治에 있어서는 政治宣傳物化하여 그 適應性이 거의 없어졌으므로 그 이데올로기의 使命의 履行과 生存方法의 摸索을 對外關係에서 찾고자 努力하여 왔다. 그러나 對外關係에 있어서도 마르크스主義의 正統性을 自負하는 毛沢東主義에 의하여 蘇聯은 修正主義라고 批判되고 있다. 이리하여 今日的 蘇聯은 內外的으로 이데올로기의 挑戰을 받고

에서 <豊饒한 社會主義>의 建設을 이데올로기의으로 어떻게 正当化 시킬 것이냐의 딜레마에 遡着하고 있다. 建設과 이데올로기의 共存을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社會主義모델과 哲學을 形成할 것이냐는 現政權에 맡겨진 基本課題이면서 이것의 具體적인 解決方式은 歷史의 審判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 第 3 章 中國 共產主義 批判

#### 1. 毛沢東思想路線의 過渡的 性格

1969年 4月 中國 共產黨 第9次 全國代表者大會에서 採擇된 黨規綱 總綱은 『中國 共產黨은 마르크스主義·레닌主義·毛沢東思想을 自己思想으로 引導하는 理論的 基礎로 삼는다. 毛沢東思想은 帝國主義가 全面的 崩壞에 향하고 社會主義가 全世界的 勝利에 향하는 時代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이다』고 했다. 그러나 蘇聯 共產黨 機關紙 <프라우다>는 그 9 全大會를 가르켜 『毛沢東一派의 軍事官僚體制 樹立을 위한 『不法集會』라고 非難했으며 또 日本 共產黨 機關紙 <赤旗>는 『毛一派의 黨私物化』 모임이라고 糾彈했었다. 다른한편 비록 少數라 해도 世稱『毛沢東主義者』(Maoist)들이 相當數國家에 散在해 있는것도 事實이다.

어쨌든 中國 共產主義는 現實的으로 「毛沢東思想」을 理論的, 指針으로 삼고있다. 그리하여 中共批判은 毛沢東路線의 生成·發展·衰頹에 焦點을 맞추게 된다.

1921年 7月の 12人集會로 出現한 中國 共產黨은 毛沢東이 創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35年 1月부터 黨의 主導權은 毛沢東에 의하여 掌握되어 왔으며 1945年 4月 7全大會에 이르러 「毛沢東思

② 이에 所要되는 內資를 捻出하며 아울러 農業의 後進성을 克服한다는데서 「農村經理集團化」를 強行한다.

③ 그 施策이 招來하는 耐乏生活과 強制動員으로 말미암은 民衆의 不平 不滿을 抑圧하고자 警察國家體制를 加一層 強化한다.

④ 對外的 緊張造成으로 統制를 正當化하는 口實을 찾으려하며 同時에 「思想教養」에 注力한다.

⑤ 後進社會의 權威主義的 英雄崇拜心理에 便乘하여 團結과 統制의 象徴으로 特定 獨裁者를 神格化시킨다.

바로 이러한 政治風土가 北韓으로 하여금 中共에 보다더 密着케 하는 社會心理的 基盤으로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中共黨의 執權過程 檢討는 아시아 共產主義者들의 慣用手法을 把握·對備하고 對共警惕心を 높이는 데 必要하다. 그 경우에 毛澤東思想이 中華思想 플러스 外勢排擊 플러스 共產主義로 엮어졌으며 그것이 家父長的 國家統治體制를 굳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中共黨의 발자취와 執權過程

中國共產黨은 1921年 7月1日 上海에서 열린 「1全大會」에서 正式으로 創黨되었다. 그것은 元來 <코민테른> (國際共產黨)의 中國支部였으며, 모스크바로부터 指導工作員으로 密派된 것은 보이틴스키와 마링이다.

創黨의 中國人主役은 陳獨秀였다.

第1次大會에는 全國의 黨員이 57名에 不過했던 形便에서 그 代表格인 12名이 參席하였고 湖南省을 代表했다는 毛澤東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 後 中共黨이 걸어온 길은 여러 共產黨중에서도 가장 險難했고 또한 錯雜했다. 그들이 敵對한 것은 이른바 「國內反動」뿐만 아니라 帝國主義外勢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中共黨은 前者와

主席으로 되었다. 上海에 있던 臨時中央指導部도 瑞金에 왔다.

이 「中央解放区」는 한때 30万兵力을 가졌는데, 드디어 蔣介石의 中央軍은 1930年부터 本格的인 討伐作戰을 폈다. 특히 1933년에 始作된 第5次 包圍討伐에는 百万大軍이 動員되었으며 共產軍은 더이상 瑞金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共產軍은 不得已 34年 9月부터 「中央解放区」를 버리고 「2万5千里 長征」이라는 逃避行軍에 접어들었다. 때마침 日本軍이 中国의 東北과 華北에 侵入했으니 「北上抗日」을 名分으로 내세웠다.

國民輿論에 깃들인 「內戰停止·全面抗日」要求에 呼訴한 것이다. 다른 한편 国民党은 「先安內後攘外」를 主張했으나 人氣가 없었다.

共產軍은 江西, 湖南, 貴州, 雲南, 西康, 甘肅등 各省을 轉轉하다가 1年後인 35年 11월에 陝西省 延安에 到着, 高崗등이 미리 마련한 生根地를 차지했다. 当初의 30万大軍은 3万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長征」途中인 1935年 1月 貴州省의 遵義會議에서 毛沢東은 비로소 党中央의 第1人者로 登場하는데 成功했다. 軍事的으로는 農民動員에 依拠하는 遊擊戰, 運動戰을 主張하고 實踐해온 毛沢東戰略이 全党的으로 採択된 것이다. 또 政治的으로는 敵對勢力을 孤立化시키려는 毛沢東의 統一戰線 戰術이 定立되었음을 意味한다. 이 統一戰線 呼訴는 「停止內戰, 一致抗日」을 부르짖는 輿論을 불러일으켜 급기야 蔣介石의 討伐作戰을 挫折시켰으며 드디어는 後日에 中国本土赤化的 政治的武器로 된 것이다.

1936年 12月 「西安事變」이 惹起되었다. 그때 蔣介石의 命令으로 共產軍討伐作戰에 動員되었던 張學良系의 東北軍은 視察은 蔣介石을 監禁, 內戰停止와 一致抗日에 同意케 한 것이다. 그리하여 1937年9月 第2次 國共合作이 實現되었다. 中国은 그 國共合作으로 1937年7月7日

(共産党人 發刊辭)라고 했다. 어쨌든 中共은 「國共合作」이라는 이름의 統一戰線에 가장 크게 힘입었던 것은 움직일수 없는 事實이다.

統一戰線의 手法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 ① 「主要敵」의 孤立化
- ② 中間勢力의 中立化 내지 包攬
- ③ 革命勢力의 扶植・擴大

그런데 「主要敵」은 各個擊破方式으로 移轉시킨다. 實例로 中共은 「一致抗日」을 위해 統一戰線이 必要하다고 宣傳했다가 日帝가 敗亡한 다음에는 그 「主要敵」이 어제까지의 合作者였던 國民黨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統一戰線에 參加했던 「民主人士」와 中立系 政黨 및 社會團體들은 共産党에게 利用당 할대로, 利用당하다가 全國이 赤化되자 共産党的 事實上的 捕虜로 되고 말았다. 그나마 人民政治協商會議에 一時 參與하기도 했으나 中共이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定立하는데 따라 完全히 버림받거나 심지어는 反動으로 물리고 말았던 것이다.

毛沢東은 말하기를 『革命的 中心任務과 그 最高形式은 武裝에 의한 政權奪取이다. 즉 戰爭으로 問題를 解決하는데 있다』고 했다(戰略與戰術問題). 그러나 毛는 「單純軍事觀點」을 排擊했으며 暴力行使에 앞서 「敵後瓦解工作」과 地下黨建設이 必要하다고 強調하였는데 이 경우에 統一戰線 手法이 頗 有用했던 것 같다.

元來 「코민테른」은 1935年 7月 「反蔣소 人民戰線」戰術을 採択하면서 中國에 대해서는 「廣範한 抗日統一戰線」을 結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37年에 第2次 「國共合作」이 成立되자 中共은 그 「解放區」에서 이른바 「3·3制」原則에 立脚한 聯合政府를 實踐한다고 宣傳하였다. 즉 政府委員이나 參議員은 ① 共産黨員 ② 黨外進步人士 ③ 中間派가 각기 3分之1을 차지함으로써 構成된다는 것이었다.

#### 4. 矛盾論의 矛盾

毛沢東은 1937년에 <矛盾論>을 發表, 그후 1957년에 <人民内部의 矛盾을 正確히 處理하는 問題에 대하여>를 내놓았다. 그의 代表的인 哲學的 勞作이라는 것이며 또 中共黨의 政策決定과 實踐에 있어 「理論的 指針」이 된다고 한다. 한편 中·蘇紛糾過程에 蘇聯側은 그것을 가리켜 「마르크스主義의 化粧을 한 似而非革命理論」 「弁証法的唯物論의 冒瀆」이라고 糾彈하였다.

毛沢東에 의하면 「事物發展의 根本原因은 그 事物의 内部에 있는 矛盾性」이라고 한다. 즉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의 矛盾, 中國에서의 國民黨과 共產黨간의 矛盾등이 發展의 原因이라고 한다.

그 矛盾運動은 「相互依存」, 「相互鬭爭」, 「相互轉化」의 過程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弁証法的 古典的인 3大法則, 즉 「對立統一」, 「質量互變」, 「否定의 否定」을 말할 뿐 새 것이 전혀 없다. ( 弁証法的 唯物論에 대한 總括的 批判은 別途教材論文을 參照할것.)

그런데 「相互依存」을 說明하면서 毛는 『生이 없으면 死가 없고 死가 없으면 生이 없다. 위가 없으면 아래가 없고 아래가 없으면 위가 없다. 困難과 順調, 小作農과 地主, 프롤레타리아 階級과 부르조아階級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蘇聯學者들은 그것은 老子的 引用이며, 同一要素의 機械的 對立이란 內的矛盾(本質的인 發展의 原動力)일 수 없다고 한다. 死는 生으로 轉化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相互鬭爭」에 관하여 『矛盾하는 兩側面은 서로 排斥하고 서로 鬭爭』하며 『서로 位置를 바꾸는데 이는 事物發展에서의 矛盾의 兩側面의 鬭爭의 增減程度에 따라 決定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蘇聯側은 量的인 增減으로 發展을 論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새것은 낡은것 속에

習慣을 모조리 破壞하고 새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知的勞動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들도 肉體勞動에 參加해야 한다고 強制하면서 그것을 「實踐」이라고 불렀다. 그 소용들이 속에 文化遺産의 繼承이 忽視되었으며 人間의 個性은 余地없이 蹂躪되었다.

文化革命에서 標榜된 것은 「四舊破壞」外에도 난데없이 「奪權鬭爭」 「階級鬭爭」 「批修鬭爭」 「幹部教育」 등이 包含되었으며 한때는 그 力點과 本質이 어디 設定되었는지 알송달송했으나, 一段落되고 보니 뚜렷하게 된것은 劉少奇派의 沒落과 毛沢東의 神格化이다.

그리고 文化革命의 組織的 推進勢力은 黨組織도 政府도 아니었으며 그 代身 靑少年들로 構成된 「紅衛兵」과 林彪가 指揮하던 「解放軍」이 모든 事態進行을 주름잡았던 것이다. 그나마 劉少奇로 代表되는 黨權派 (實權派)가 沒落하자 곧이어 紅衛兵이 抑制되었으며 林彪도 叛亂끝에 肅清(脫出中 墜落死)되고 말았음이 判明되었다.

결국 文化革命의 結果는 毛沢東의 「奪權鬭爭」勝利와 神格化이고 毛路線의 絶對的權威確保로 나타났다.

또 그것은 黨組織이 疎外당했으며 批判과 自我批判이 暴力앞에 窒息당하다싶이했으나 革命후임에도 不拘하고 「人民内部的 矛盾解決」方式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毛沢東이 새삼스럽게 「奪權」을 말했으며 또 그것이 「批修」와 結付된 理由는 무엇인가에 文化革命의 本質을 糾明할 열쇠가 있다. 어차피 그것은 中共黨의 自家撞着과 末期症狀을 觀察케 한 것이다.

「奪權」이란 文化革命直前까지 劉少奇派가 毛沢東派보다도 黨과 政權에서 優勢했다는 反証이고 「批修」란 劉少奇를 現代修正主義로 烙印적이고 批判함으로써 毛沢東路線을 復活시킨다는 志向이었다.

元來 毛沢東은 1935년이후 59년에 이르는 24年間 黨内에서 누구에게도 挑戰받지 않는 獨裁者의地位를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毛沢東은 1958年 7月부터 「人民公社」의 全國 擴 延에 着手, 그 年末까지 全國 農家戶數의 99%를 이에 網羅했으며 都市人口도 約80%를 加入시켰던 것이다. 人民公社는 末端行政單位와 生産協同組合을 一體化시켰으며, 「組織의 軍隊化, 行動의 戰鬭化, 生活의 集團化」를 標榜하는 가운데 家族制



## 第4章 東歐 共產主義 批判

### 1. 東歐 概觀

#### 가. 東歐의 概念

東歐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東獨, 유고슬라비아等 8個國을 가르킨다.

그러나 東歐란 말은 地理的으로 극히 曖昧한 表現이다. 그 位置에 따라 中部유럽, 발칸等 部分的인 이름으로 불려왔다. 今日에 있어 東歐란 말은 政治的인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

第2次大戰以後 所謂 「鐵의 帳幕」이 유럽을 分割한 後로는 政治的 概念으로서 明確한 內容을 갖게 되었다. 東歐를 政治的 概念으로서 말하면 그것은 社会体制의 差異点이란 点에서 西歐와 區別된다.

東歐를 理解하는데 重要한 것은 그 多樣性이란 点이다. 現在 東歐는 相當한 程度의 自立性을 獲得하여 独自の 路線을 指向하고 있는 것도 그 背後에 固有의 歷史, 民族, 文化, 宗教가 있기 때문이다.

東歐 8個國은 總面積 約 128 万km<sup>2</sup>이고 總人口는 約 1億 2千 100 万으로서 各各 유럽全體의  $\frac{1}{4}$ 程度이다.

東歐 8個國中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全然 바다에 接하고 있지 않다.

東歐各國은 面積 人口가 적고 地理的으로 近接하고 있지만 그 歷史 民族, 言語, 宗教는 各樣各色이다. 複雜한 民族構成과 領土關係로 東歐 諸國의 紛爭의 原因이 되어 왔으며 外部로 부터 侵略, 支配당해은 原因이기도 하다.

第1次大戰은 보스니아(現유고)로 부터, 第2次大戰은 폴란드로 부터 二回에 걸친 世界大戰이 東歐를 發火點으로 해서 勃發한 것을 보면

먼저 共産黨은 他政黨과의 聯立政權에 黨員을 보내고 內相等 要職을 黨員이 占하고 指導勢力을 孤立시킨후 政權을 強奪한다.

여기에서 重要的 役割을 한것은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黨指導者와 蘇聯軍의 壓力이다.

그러나 유고는 티토의 指導下에서 빨찌산의 抵抗運動을 통해 國內의 支配的勢力을 掌握했으며, 체코는 戰前부터 共産黨을 合法政黨으로서 勢力을 擴張하고 48년에 無血쿠데타를 통해 政權을 獲得했다.

47年 3月 12日 美國大統領트루만에 의한 트루만·독트린, 同年 6月 5日 마셜·플랜의 發表는 스탈린에게 더욱 東歐諸國支配強化를 서두르게 만들었다. 蘇聯은 47年 9月 코민포름(共産黨情報局)을 結成하여 共産圈의 內政을 干渉하고 이데올로기統制를 始作했고 49年 1月 蘇聯의 支配下에 코메콘(COMECON)을 設置해서 東歐經濟支配를 始作했다.

48年 유고를 코민포름에서 除名하고 그後 東歐各國의 民族共產主義指導者들을 追放했다.

그後 西方側 나토(NATO)에 對抗하기 위하여 設置된 바르샤바(Warsaw)條約이 前提가 되어 蘇聯은 東歐諸國에 軍隊를 駐屯시키고 있으며 이들 軍隊는 主要基地에 配屬되고 實質的인 命令者로서의 役割을 더욱 強化했다.

## 2. 政治 動向

### 가. 蘇聯影響力の 減少

1944年에서 48년까지 東歐全體가 蘇聯에 의해 共産化된 후 53年 스탈린이 死亡할 때까지 東歐는 一元主義的 蘇聯의 強力한 支配와 統制下에 있었다. 그러나 그 후 蘇聯政策의 變化, 中, 蘇紛爭 그리고 東歐內의 民族主義 擡頭와 自由化運動의 發展으로, 東歐에서의 蘇聯의 支配力은 弱화되었고 68年 체코事件이후 蘇聯의 統制權 回復努

하고 있다. 또한 蘇聯의 影響圈에서 벗어나려는 政治的意圖도 作用하고 있다. 東·西緊張緩和를 위해 東歐와 接觸을 일찍부터 積極的으로 推進하던 프랑스에 이어 現在는 西獨과 美國도 積極的인 東歐接近을 推進하고 있다.

### 3. 經濟動向

#### 가. 經濟沈滯

中央集權의 計劃經濟方式의 矛盾이 原因이 되어 蘇聯을 비롯하여 東歐諸國의 經濟는 60年代 以來 沈滯되고 있다.

先進資本主義經濟를 『얼마후 쫓아가 앞지를 수 있다』던 主張이 이제 는 不可能함을 알고 있다. 經濟沈滯를 回復하기 위하여 65年을 前後하여 東歐諸國이 新經濟制度를 採択하였으나 市場經濟制度를 完全히 導入하지 않고 局部的인 技術的 改革만 한것으로 큰 成果를 못보고 있다.

#### 나. 코메콘 ( COMECON ) 의 現象

蘇聯과 東歐諸國간의 長期的 經濟計劃의 調整, 生産의 分業化, 專門化, 加入諸國貿易擴大等を 目標로 하였으나 오히려 蘇聯이 이 機構를 통해 東歐諸國의 經濟를 蘇聯에 隸屬시키고, 西方과의 交易을 制約하려는 政治的 意圖가 많이 作用하여 円滑히 運用發展되지 못하므로서 一部 東歐國家들의 反撥을 사고 있다.

#### 다. 蘇聯經濟援助의 減少

蘇聯 역시 自體의 經濟沈滯에 苦悶하고 있으므로 東歐諸國에 充分한 援助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蘇聯은 自國의 政策에 充實히 追從하는 國家들에게만 援助하고 政策을 挾하고 있다.

즉 援助를 政治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였고 68年 10月에는 체코와 臨時駐屯協定을 締結하였다.

現在 東獨에 45萬,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15萬以上の 軍隊가 駐屯하고 있고 東歐國家들은 莫大한 駐屯費를 負擔하고 있다.

蘇聯海軍은 潛水艦을 主力으로한 艦隊가 발틱海, 北極海, 黑海에 駐屯하고 있고 蘇聯의 戰術空軍이 폴란드, 東獨, 헝가리, 체코에 駐屯하고 있다. 現在 蘇聯의 東歐駐屯 地上兵力은 特히 체코에서는 東歐諸國의 離脫을 防止하려는 政治的 役割도 하고 있다.

다. 유럽安保体制와 東歐

東歐諸國은 軍事費의 節約, 蘇聯兵力의 減少, 西方과의 關係改善等 여러 動機에서 一般的으로 유럽安保會議의 開催를 바라고 있다.

## 5. 域外主導國과의 關係

가. 對蘇關係

東歐諸國의 對蘇關係는 갈지 않다.

(1) 알바니아는 東歐에서 中共代弁者 役割을 하며 反蘇政策을 取하고 있다. 코메콘(COMECON) 體制에 머물러 있으나 거의 無關係狀態이고 바르샤바(Warsaw) 條約에서는 脫退하였다.

(2) 루마니아는 東歐에서 唯一한 라틴民族國家로 強한 民族主義가 擡頭되고 있다. 蘇聯으로 부터의 自主·獨自路綫을 扞하고 있다.

(3) 체코는 元來 親蘇國家였으나 68年後 國民들은 強한 反蘇感情을 가지고 있다. 現政權은 親蘇政策을 扞하고 있다.

(4) 폴란드, 헝가리는 56年後 比較的 잠잠하고 親蘇政策을 扞하고 있다.

(5) 東歐는 西獨과의 對決關係上 意識적으로 蘇聯과 強한 約束을 繼續 維持하고 있으나 西獨과 蘇聯間의 關係改善以後 前과 같은 密着 現象은 弱化될 可能性이 많다.

項중에서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고 宣言함으로써 明白히 政策變更을 하였으므로 非敵性共產圈 特히 東歐와는 앞으로 非政治的關係로 樹立·發展될 것이다.

東歐諸國은 유엔에서 韓國問題 表決때 恒常 北韓을 支持하였고 72年 유엔總會에서도 모두 韓國問題-一括延期案에 反對投票를 하였다.

#### 나. 北韓

北韓은 48年에서 1年間に 걸쳐 유고를 除外하고 모든 東歐國家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韓國動亂後 北韓은 東歐로 부터 相當한 援助를 받아 復興計劃에 使用하였으나 中·蘇紛爭의 激化後는 東歐와의 關係가 많이 弱화되었고 現在 北韓과 東歐間의 交易量은 오히려 北韓과 西歐와의 交易量보다 적다. 北韓과 東歐間에는 軍事同盟關係는 없다.

### 7. 問題點 및 展望

#### 가 問題點

##### 1). 自由化, 自主化의 限界

東歐諸國에서의 自由化, 自主化運動은 繼續 強化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比例하여 蘇聯의 警戒과 壓力, 東歐內 保守派勢力의 牽制도 強化되고 있다. 따라서 東歐의 自由化, 自主化運動에는 앞으로 얼마동안 크게 制約을 받을 것이다.

##### 2). 經濟發展의 困難

65年代 中盤에 新經濟制度를 採択하였으나 이것은 不完全한 것이다. 共產主義經濟體制의 모습, 蘇聯의 東歐經濟隸屬化政策, 西方과의 經濟協力の 限界性 등으로 經濟發展은 繼續 어려울 것이다.

## 第 5 章 中 · 蘇 紛 爭

### 1. 中 · 蘇 紛 爭의 發端

오늘날 中 · 蘇 紛 爭을 考察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提起되는 質問은 그 紛 爭이 언제부터 始作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歷史적으로 어떤 戰 爭이나 紛 爭은 그것이 일어난 時期와 原因이 比較的 뚜렷하다.

그러나 中 · 蘇 紛 爭은 그렇지 않다. 그 理由로서는 中 · 蘇는 各各 『너희가 먼저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式으로 紛 爭의 勃發時期와 原因에 대해서 달리 主張하고 있으며 責任을 서로 轉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가. 蘇 聯의 主張

蘇 聯이 처음 中共을 公開적으로 非難한 것은 1963年 7月 14日 이었다. 그날 蘇 聯은 푸라우다紙에 發表한 「蘇 聯의 全黨組織과 全 共 産 黨 員에 보내는 蘇 聯 共 産 黨 中 央 委 員 會 公 開 狀」에서 中 · 蘇 紛 爭이 始作된 것은 1960年 4月 中共이 「레닌主義 萬歲」라는 題下의 論文集을 發表한 때 부터라고 말했다.

1960年 4月 22日은 레닌誕生 90周年을 맞는 날이었다. 이 날을 前後해서 中共은 다음과 같은 3篇의 論文을 發表했다.

- ① 「레닌主義 萬歲」(1960年 4月 16日 紅旗編輯部の 이름으로 <紅旗>第 8号에 掲載)
- ② 「偉대한 레닌의 길에 따라 前進하라」(1960年 4月 22日 人民日報 編輯部の 이름으로 人民日報紙에 掲載)
- ③ 「레닌革命의 깃발아래 團結하라」(1960年 4月 22日 陸定一黨 宣 傳 部 長의 講演)

이 3篇의 論文에 대해 蘇 聯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 國際共產主義 運動에서 提起한 過程의 大部分은 잘못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反逆하는 것이며 特히 이른바 個人崇拜反對를 구실로 스탈린을 全面的으로 否定한 것과 所謂 「議會의 길을 통해서 平和的으로 社會主義에 移行한다」고 한 두가지 問題는 매우 重大한 原則的인 잘못 이라고 말했다.

#### 다. 中·蘇紛爭의 發出

그러면 中·蘇紛爭은 언제부터 始作되었을까? 中·蘇紛爭의 遠因으로서 中國共產黨 以前의 中·露關係에서 라고 보는 있는 見解도 있다.

그것을 于先 參考삼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징기스칸의 러시아 席捲 : 1237年 ~ 1240年 징기스칸의 蒙古軍이 러시아를 席捲, 中·蘇紛爭이 激化됨에 따라 모스크바에서는 「黃禍論」이 떠들석했다.

○ 네르친스크條約 : 1689年 9月 7日 네르친스크 (東部시베리아 치타州)에서 清朝 (康熙 28年)와 피터大帝의 러시아間에 締結, 아므스江地域과 시베리아沿海州地方에서의 國境線 劃定, 越境者 處理, 通商自由 등을 規定 (中共은 1963年 3月 7日 北平放送을 통해 1842年의 廣東條約 1858年의 愛羅條約, 1860年의 北平條約, 1881年의 이리條約, 1887年의 리스본議定書, 1895年의 下關條約, 1901年 條約 등을 不平等條約이라고 말했으나 中共은 네르친스크條約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다. 그러나 自由中國은 네르친스크條約에서 알타條約에 이르기까지 不平等條約이라고 함)

○ 愛羅條約 : 1858年 5月 28日 러시아와 清朝間에 愛羅에서 締結.

① 아르군江과 黑龍江을 兩國의 國境으로 할 것. ② 우스리江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地域을 兩國의 共有領地로 할 것. ③ 黑龍江, 松花江, 우스리江의 航行權은 두 나라만이 가진다는 것 등등이다.

(中共은 이 條約을 不平等條約이라고 말하고 있고 自由中國은 러시아

第 20 党大会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格下와 平和共存을 내세웠다. 그러나 中共은 이와 같은 흐루시초프演說에 대해 1956年4月5日字 人民日報 < 프롤레타리아 独裁의 歴史的 經驗 > 이라는 論文을 통해 「平和共存」에 대해서는 그것은 레닌政策을 변함없이 実行해 나가면 되고 『스탈린格下問題에 대해서는 잘못된 点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는 冷泠한 態度를 보였다.

특히 中·蘇紛爭의 原因을 생각할 때 그것은 흐루시초프와 毛沢東과의 權力鬭爭(支配權다툼)에서 始作했다고 볼 수 있는만치 中·蘇紛爭은 흐루시초프의 登場과 때를 같이한다고 보아야 한다.

흐루시초프가 蘇聯共産党 第1書記가 된 것은 1953年9月7日, 首相이 된 것은 58年3月31日이었다. (스탈린死後 50年3月6日 말렌코프가 首相으로 就任했으나 55年2月8日 辭任하고 불가닌이 就任)

56年2月の 党大会는 흐루시초프의 路線을 強化하는 契機가 되었음을 注目해야 한다 (흐루시초프는 56年6月22日~29日 그의 政敵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를 反党分子로 肅清)

## 2. 中·蘇紛爭의 原因

中·蘇紛爭의 原因으로서 이데올로기 民族利害, 国境問題, 前記한 바와 같은 遠因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흐루시초프对 毛沢東의 指導權鬭爭 내지 權力鬭爭이라고 보는 것이 妥当하다.

勿論 叙上한 事項들도 原因이 될 수 있으나 中·蘇紛爭은 흐루시초프对 毛沢東의 對抗意識→ 蘇聯共産党对 中国共産党→ 蘇聯政權对 中共政權의 对決로 擴大되었고 그러한 過程에서 理念問題, 民族利害, 国境問題等이나왔으며 그 震源은 역시 흐루시초프对 毛沢東의 指導權다툼 내지 權力鬭爭으로 보는 것이 妥当할 것이다.

스탈린 生存時까지 共産圈은 이른바 「1枚岩」으로 團結되어 있었다.



### 3. 中・蘇紛爭의 擴大

中・蘇紛爭이 世界的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63年이었으나 이 미 그 以前 56年 第20次 党大会 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前記한 바 와 같다.

中・蘇紛爭은 段階的으로 擴大되었는데 그것은 大体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第1段階：1956年 2月 第20次 党大会에서 60年 6月 부카레스트會 議때까지：이 段階의 特徵은 中・蘇間의 內密的인 紛爭段階였으며 公開 되지 않았다. 이 때의 紛爭은 蘇聯共産党和 中共이 서로 霸權을 隱密히 競爭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竞争的인 對立期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 일어난 主要事件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東歐의 危機 (1956年 6月 28日 포즈난事件, 同年 10月 23日 - 11月 4日 헝가리義挙)：中共은 不干涉을 主張했으나 蘇聯은 武裝介入을 主張

㉡ 모스크바宣言 (57年 11月 7日 蘇聯革命 40周年을 契機로 모스크 바에서는 11月 14日 - 16日 12個国共産党 및 労働者代表會議, 11月 16日 - 11日 19日 64個国 共産党 및 労働者代表者會議를 열고 前者 에서는 모스크바宣言, 後者에서는 平和宣言採択)：中共은 모스크바宣言을 反對했는데 特히 平和的의 移行을 反對 (非平和的의 移行의 길도 있다는 것) 했고 修正主義를 反對했다.

㉢ 毛沢東의 모스크바大學演說 (57年 11月 15日)：『社會主義陣營은 하나의 領袖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고 그 領袖는 蘇聯邦이다』 (이는 흐루시쵸프의 指導權을 認定해서가 아니라 毛沢東이 가까운 時日안에 奪取할 수 있다는 競爭意識) 라고 말하고, 『東風制西風』 (蘇聯의 I C B M의 威力이 아니라 人口의 威力) 이라는 말을 했다. (46年 8月 毛는 延安에서 안나·루이스·스트롱女史에게 原子彈은 종이 호랑이다

㉞ 흐루시초프 失脚 ( 64年 10月 14日 ) : 中共은 修正主義過誤범했기 때문

(3) 第3段階 ( 66年 8月 8日 8中全会 - 72年 닉슨訪中 ) : 이 段階의 特色은 中·蘇의 決裂的인 對立, 中共内部에서 反蘇·反修正主義運動, 1969年 4月 9全大會 黨規約 總綱『美側打倒와 蘇聯修正主義背信集團打倒』規定, 武力衝突 ( 69年 3月 2日 : 다만스키島 ( 珍寶島 ), 7月 고르진스키島 ( 八分山島 ), 8月 新疆위그르·카자프地區, 69年 7月 27日 뉴욕타임즈 솔즈베리 中·蘇戰爭說 )

(4) 第4段階 ( 72年 2月 닉슨訪中以後 ) : 敵對的인 軍事的 對決期, 臨戰體制確立 72~73英戰略研究所 : TV 16 ( 中距離爆擊機 ) 100台配置, MRBM ( 準中距離 彈導彈 ) 20~30基配置, IBCM實驗段階, 中·蘇全面戰爭說까지 있음.

#### 4. 主要 紛爭 事項

##### ① 現代世界的 基本的 矛盾問題

中共은 現代世界的 基本的 矛盾에 대해 ( 63年 6月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總路線에 대한 提案 ) ㉞ 社會主義陣營과 帝國主義陣營間的 矛盾, ㉞ 資本主義國 内部的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矛盾,

㉞ 被壓迫民族과 帝國主義의 矛盾, ㉞ 帝國主義國과 帝國主義國, 獨本. 그룹 과 獨占資本그룹의 矛盾.

㉞의 矛盾이 매우 날카로운것이지만 世界的 規模의 矛盾은 單純히 兩陣營間的 矛盾이라고만 볼 수 없음.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㉞의 矛盾은 重要하며 이것이 民族解放運動의 勝利로 處理되면 다른 矛盾의 處理도 容易하다고 봄. 그러나 蘇聯共產黨指導部는 ㉞ 資本主義國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矛盾 ㉞ 被壓民族과 帝國主義의 矛盾, ㉞ 帝國主義諸國間 獨占體制間的 矛盾, ㉞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

中・蘇抗爭的 對立期의 北韓은 대체로 中共을 支持했으나 (62年 쿠바事態때 中共支持等), 中・蘇決裂的 對立期에 접어들면서 等距離政策으로 나아갔다. 北韓은 1966年 8月 12日 勞動新聞 論說 <自主性を 擁護하자>는 것을 發表한 以來 中・蘇紛爭에 對해서는 中立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다.

中・蘇紛爭이 北韓에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 하는 것인데 그 옛날의 中・蘇・北韓의 統一戰線은 崩壞되었다. 그러나 中・蘇・北韓은 分裂되었다 하더라도 3者는 共히 韓國에 對한 威脅勢力이라는 것은 過去나 現在나 變함이 없다.

# Ⅶ. 對 南 戰 略

## 第 1 章 共產主義 戰略·戰術論

## 第1章 共產主義 戰略·戰術論

### 1. 머릿말

마르크스가 主張하고 있는 『戰爭은 革命의 產婆役』이라는 表現에서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이 戰爭을 革命의 達成이라는 側面에서 如何히 聯關시키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戰爭과 革命의 相互聯關性」 即 共產主義革命戰爭에 있어서의 戰略·戰術論에 實際性を 賦與한 者는 레닌이었다. 따라서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論이라는 立場에서는 마르크스~엔겔스時代는 具體적인 言及을 볼 수 없으며 레닌의 <帝國主義論> (1917年)과 <國家와 革命> (1917年) 그리고 스탈린의 <1933年의 러시아 빨찌잔에 관한 指針> 등에서 實際에 適用시키고자 하는 努力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닌~스탈린時代의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論은 그 基本이 「帝國主義戰爭의 內戰化」라는 觀點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民族解放戰爭이니 人民戰爭이니 하는 範疇에서 論議하고 있는, 예컨대 越南戰爭의 경우, 이러한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論에 影響을 크게 준 理論은 亦是 毛澤東의 게릴라戰略 思想에서 浮刻되는 戰略·戰術論인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論을 後進國次元에서 分析·批判할때 一次的으로 研究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戰略理論은 毛澤東革命戰略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後進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革命의 達成手段으로서의 戰略·戰術論을 처음으로 體系化한 實踐的 理論家가 다름아닌 毛澤東이기 때문이다. 보·구엔·지압의 5段階論이나, 체·게바라의 게릴라戰爭 理論은 亦是 그 母體가 毛澤東革命戰略思想인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지압의 <人民戰爭·人民軍隊>는 毛澤東의 著述한 <遊擊戰의 3部作>의 亞流에 불과하며 시바라는 그 變種이라고 볼 수 있다.

레닌~스탈린의 戰爭觀의 基礎를 이루는 것이다. 가르토프는 一次的으로 마르크스~엔겔스가 設定하고 나중에 레닌 특히 스탈린이 發展시킨 戰爭의 2大別化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가. 正義의 戰爭 ( just war )

征服戰爭이 아니라 人民을 他國의 侵略과 奴隸狀態에서 防禦하기 위한 戰爭, 人民을 資本主義의 奴隸狀態에서 解放하기 위한 戰爭, 또는 마지막으로 植民地와 隸屬國家를 資本主義의 名에에서 解放하기 위한 戰爭이 正義의 戰爭이라고 한다.

나. 不正義의 戰爭 ( unjust war )

他國 및 그의 國民을 征服하며 奴隸化하기 위한 戰爭이 不正義의 戰爭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인 戰爭觀을 一次的으로 表明한 마르크스~엔겔스의 데게는 結局 資本主義 社會가 必然적으로 孕胎하는 戰爭은 不正義의 戰爭이므로, 이것은 革命의 產婆役구실을 하여, 歷史發展의 論理에 따라 必然적으로 資本主義社會는 崩壞되어 社會主義社會가 到來한다는 도그마를 代弁케 된다.

그러면 「歷史發展의 必然性」이라는 論理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하나의 社會體制는 物質的 生産力이 그 社會體制內에서 더이상 發展할 餘地가 없을 정도로 充分히 發展하지 않는 限, 결코 沒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生産力의 發展과 더불어 資本은 少數의 부르주아지에게 集中되고 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大衆은 날로 貧困에 허덕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프롤레타리아大衆의 反抗도 增大하여 이들은 階級意識을 覺醒하고 團結하여 組織化된다. 生産手段의 集中과 勞動의 社會化는 드디어 資本主義的體制와는 兩立할 수 없는 時點에 이르게 되어 資本主義體制에 弔鐘이 울리게 되며 革命을 통하여 社會主義體制가 出現하게

主張이다.

마르크스~엥겔스가 史的 唯物論에 土台를 두고 展開한 社會革命理論은 物質的 生産力의 發展에 依한 「아래로 부터의 革命」( Revolution Von Unten )이었다. 몇몇 職業革命家들에 의한 「위로 부터의 革命」( Revolution Von Oben )과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 마르크스는 人間이 歷史를 創造한다고 學論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人間이 自己가 원하는 대로 任意로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는 主張이 아니라 주어진 歷史的 狀況內에서만, 즉 歷史의 必然的 法則에 順應해서만이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는 程度의 意味 內容인 것이다.

그러나 資本의 集中이 貧困을 增大하고 資本主義의 沒落을 招來한다는 <資本論>에 土台를 둔 마르크스~엥겔스의 社會革命論은 從來 實現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豫言과는 달리 産業革命期의 爆發現象을 克服한 先進資本主義諸國은 1870年代 이래 技術開發과 植民地獲得 등에서 오는 利潤으로 말미암아 急進的인 富의 蓄積과 함께 프롤레타리아階級の 括目할만한 生活水準의 向上을 가져왔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은 暴力革命을 통하여 부르조아政權을 打倒함으로써만이 自己들의 利益을 保障할 수 있다는 政治鬪爭보다는 現秩序內에 다시 말하면 體制內的인 志向性 속에서 漸高하는 生活水準의 促進과 享有를 爲한 經濟鬪爭에 더 關心을 쏟게 되었다.

### 3. 레닌의 革命戰略·戰術

레닌은 마르크스~엥겔스의 古典的인 「社會革命論」에 具體的인 戰略과 戰術의 衣裳을 입힌 典型的인 實踐家였다. 그것은 傳統的인 마르크스主義에 클라오제비츠의 <戰爭論> ( 1833年 )을 加味시켜 政治와 軍事 즉 革命과 戰爭의 相互密着을 더욱 實際的으로 聯關시켜 帝國主義諸國家間의 戰爭을 內戰化하여, 武裝暴動의 結果로서의 社會主義革命을 實地 러시아땅

共産黨은 革命에 있어서 數 많은 兵士들을 戰爭터에서 現地調達하여 이들을 指揮統率할 職業的 將校요 下士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黨은 「閉鎖的 組織」을 特性으로 한다. 그리고 이 黨은 「秘密」에 土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레닌이 마르크스에 비해 發展시켰다고 하는 武裝鬭爭은 어떤가.

레닌은 必要時 언제나 使用할 수 있는 「武裝部隊」를 黨이 直接 갖고 있어야 한다고 強調한다. 政權의 奪取가 共産黨의 窮極的 目標이고 이 目標의 實現은 武裝鬭爭을 통해서만 可能하며, 따라서 武裝鬭爭의 手段으로서의 武裝部隊의 確保는 決定的으로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武裝部隊는 奪權鬭爭形態와 方法面에서 어떠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가.

레닌은 奪權鬭爭의 具體的인 方法을 提起함에 있어서, 마르크스에 비해 暴力에 呼訴하는 政治的인 鬭爭形態를 더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戰術的인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레닌은 決定的 時期에 短期間의 都市暴動戰術에 의해 既成政權을 打倒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이러한 빨찌산活動의 革命鬭爭에로의 適用問題에 있어서는 戰術的階段에 거무르고 있다고는 하나 그 意義의 重要性은 無視할 수 없다.

레닌이 1906 年에 刊行한 <빨찌산戰>에 따라 빨찌산의 活動目標・原則과 빨찌산鬭爭의 制限事項을 檢討해 보자.

레닌에 의하면 빨찌산活動의 目標는

- 1) 軍과 警察 및 政府의 高級官吏나 下級官吏를 射殺하려는데 있고
- 2) 政府나 特定個人으로부터 資金을 奪取하는 데 있다.

고 말함으로써 테러活動과 資金의 奪取活動으로 局限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빨찌산活動은 『自由獲得의 鬭爭手段이며, 危機가 심각해 짐에 따



여기에서 레닌이 示唆하고자 하는 바는 러시아에서의 社會主義革命을 위해서도 世界革命을 위해서도 다같이 그 先行條件으로서 帝國主義戰爭의 內戰化가 不可缺하다는 點을 強調하자는데 있었다. 레닌에게 있어서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 되어있고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 原料供給市場의 確保 그리고 過剩資本의 輸出을 위해서는 植民地가 必要하거나 이 植民地의 平和的 分割의 不可能性 때문에 資本主義國家간의 植民地 爭奪을 위한 帝國主義 戰爭이 不可避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帝國主義戰爭의 不可避性을 前提로 하여 帝國主義戰爭을 內戰으로 轉換시켜 帝國主義國家의 支配階級이 軍事的 敗北의 結果 危機狀態에 到達하게 되는 狀況을 利用하여 社會革命을 遂行코자 하였다.

이러한 「帝國主義戰爭의 內戰化에 의한 後進國에서의 革命可能性 提起」 즉 「東方迂廻戰略」은 後述하게 될 毛澤東의 「農村으로부터 都市를 包圍」한다는 戰略思想에 寄與했다고 볼 수 있다.

#### 4. 코민테른의 戰略·戰術

코민테른 (Comintern - Communist International의 略字)의 戰略·戰術을 1928년에 發表된 <코민테른의 綱領>에 따라 알아 보자.

코민테른의 戰略·戰術은 아래와 같은 前提에 立脚하고 있다. 즉 『帝國主義는 國際關係體制를 摧壞하여 놓을 戰爭을 「不可避하게」 惹起할 것이다. 그러므로 帝國主義는 全世界프롤레타리아 革命으로 [假借없이] 引導될 것이다』

투하체브스키가 強調한 바와 같이 『帝國主義戰爭이 全世界프롤레타리아 革命을 孕胎한다』는 前提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鬪爭이 國家的次元 (national scene)에서 提起된다는 傳統的인 마르크스主義의 理論을 代替하는 것이다.

第1次世界大戰의 結果 蘇聯과 世界 資本主義國家사이에는 根本적인

### 5. 스탈린의 共産化戰略・戰術

世界革命論에 立脚한 레닌主義는, 스탈린의 執權으로 말미암아 「一國社會主義論」으로 代替케 되었다. 스탈린의 주된 關心은 對內的으로는 蘇聯을 社會主義國家로 建設하며, 對外的으로는 革命의 輸出보다는 社會主義基地 蘇聯을 防衛하며 安全을 保障하려는데 있었다.

스탈린은 레닌과 같이 透徹한 理論家는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社會主義國家 蘇聯을 防禦하며 建設하는데 온갖 努力을 傾注한 政治的 實務者였다. 共産黨이라는 機構를 運營하므로써 政治에 關하여 広範한 經驗을 쌓은, 經營管理 能力을 所有한 冷靜한 實踐家였다. 장차 닥쳐 올 戰爭의 危急性에 對해서 레닌時代와는 달리 國際革命을 위하여 準備하느니 보다도 「祖國防衛」(자. 로지누)를 위해 愛國主義에 呼訴했다.

獨蘇戰爭이 勃發된 以來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나 國際革命보다도 소비에트大國主義나 내셔널리즘이 앞서게 되었다. 스탈린은 나치·獨逸과의 戰爭을 「祖國防衛戰爭」이라고 부르고 國際共産主義革命運動의 指導者로서가 아니라 蘇聯이라는 國家의 現實政治(Realpolitik)의 指導者로서 登場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反轉이 아니라 對獨戰爭의 處理를 위하여 人的, 物的 全資源의 動員을 위해서는 不得已했다는 政治的 現實感覺의 產物로서 理解되었다. 스탈린은 결코 暴力으로써 유럽革命을 遂行하려는 近代의 冒險主義者하고는 立場을 달리했다. 이러한 意味에서 1933~41年의 스탈린의 戰略은 從來의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教理와는 距離가 있었다. 스탈린은 단 한번 스페인內亂時에 國際戰爭을 內戰으로 轉換시키고자 하여 從來의 레닌主義公式을 따랐을 뿐, 그 밖의 다른 곳에선 國際關係를 現實政治의 觀點에서 理解하고 蘇聯을 하나의 革命國家로서 보다도 強力한 軍事力을 가진 「活動하는 國家」로 看做했다.

하여 可能한 限 많은 나라에 衛星國家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兩大陣營論으로 說明될 수 있는 스탈린의 共產化戰略・戰術에  
 따라 共產化革命의 새로운 類型인 東歐의 共產化戰略이 登場케 되었다.

## 6. 東歐의 共產化戰略

2次大戰後 東歐地域에 進駐한 蘇聯軍은, 코민테른內에서 活躍하고  
 있었던 東歐出身 共產主義指導者들 즉 「모스크바의 優等生들」과 現地  
 共產主義者들을 앞세워 共產化戰略을 展開했다.

후. 세튼. 왓슨教授는 東歐共產化戰略 類型을 漸進的 3段階政策이라고  
 特徵짓고 있는데 그 要旨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第1段階에서는 劣勢한 共產黨이 蘇聯軍의 힘을 背景으로 하여 強大한  
 民族主義諸政党和 聯合戰線을 먹고 聯立政府를 樹立하여 共同計劃을 遂行  
 한다. 이 段階는 흔히 聯立政府段階로서 眞正한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  
 者가 區別되기 어려운 時期이며, 共產黨은 그 勢力을 날로 增大하는 한  
 편 強大한 民族主義諸政당에 浸透하여 內部的 分裂과 弱化를 企圖한다.

第2段階는 假面의 聯立政府段階이다. 이 段階에 이르면 有能한 非共  
 產主義的 指導者들을 하나 하나 除去하고 民族主義政당들을 無力한 傀儡  
 政당 내지는 둘러리政당으로 變質시켜 名目上의 議會民主主義를 維持한다.  
 軍隊와 警察을 비롯한 모든 要職은 共產黨과 共產黨의 偽裝政당에서 掌  
 握한다. 外面上으로만 假裝된 假面의 聯立政府가 存在하는 段階로서 權  
 力의 階級的 性格面에서는 勞動者 農民의 指導下에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  
 에 利用할 수 있는 階級만 둘러리階級으로 남겨 놓는다.

第3段階가 共產黨一黨獨裁의 段階이다. 人民民主主義라는 이름아래 反  
 對黨을 帝國主義의 앞잡이로 몰아 抹殺하여 버리고 한두개의 裝飾用 둘  
 러리政당만을 남긴채 거의 完全한 共產黨의 一黨獨裁가 實現되고, 이로써  
 共產黨의 奪權鬭爭이 終了된다. 특히 이 段階의 權力의 階級的 性格은

「社會革命論」에서는 考察될 수 없으며, 레닌主義와 스탈린 戰略에서 言及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第2次大戰時의 東歐圈의 社會・經濟 構成은 封建的 要素와 初期資本主義的 要素가 混合된 狀態에 있었으며, 또한 外國資本의 浸透와 나치즘의 支配・影響下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混合된 社會・經濟的 狀態와 外勢의 桎梏을 打破해야 할 벨리케이트한 階級問題와 民族問題를 包容하고 있었다.

工業은 發達되었지만 아직도 農業國의 地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아직도 農業革命이 未解決인채 남아 있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農業部門에 있어서 反封建土地革命의 課題가 山積된 불가리아等 東歐諸國은 總體的으로 複雜하고도 混合된 社會・經濟 狀態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나치・獨逸과 팟쇼 이탈리아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東歐國家가 그 支配나 影響下에 있었다. 예를 들면 民族的 國家機構가 崩壞되어 나치 히틀러軍의 直接 占領下에 놓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나치 獨逸과 同盟關係에 있었으며, 알바니아 亦是 파시즘의 支配下에 있었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事實上 東歐人民民主主義革命에 대하여 積極的인 支柱役割을 한 것은 蘇聯의 볼셰비키 이데올로기와 나치 獨逸軍을 무찌르고 進駐한 蘇聯軍이었다.

그러면 東歐人民民主主義의 成立과 發展에 대해서 蘇聯이 끼친 影響力을 알아보자.

- 1) 蘇聯軍은 東歐諸國을 나치 獨逸의 侵略으로 부터 直接 解放한 解放軍으로서 自處할 수 있었으며, 占領軍으로서 그 地域 共產主義者들을 直接 援助하고 反對派를 除去할 수 있는 背景勢力이 되었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除外)

<類 型 3>

共産黨 主導下의 對獨抵抗運動이 弱勢였던 國家로서 獨逸의 直接的인 占領時, 民族的 國家機關이 存続할 수 없었기 때문에 解放後 一時 亡命政權과 聯立政府를 樹立한 例에 속한 國家로서 民主主義의 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境遇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類 型 4>

廣範한 對獨抵抗運動이 없고 民主勢力의 結集이 弱해 主体的 條件이 成熟하지 못했기 때문에 人民民主主義政權의 樹立을 위해 解放後 若干의 期間을 거쳐서 漸進的으로 到達된 國家 (루마니아, 헝가리)

7. 毛沢東의 革命戰爭戰略・戰術

1) 毛沢東의 革命戰略論

毛沢東은 레닌의 <帝國主義論>을 發展시켜 戰爭과 革命의 相互關係를 密着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中國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歷史的 經驗의 產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레닌의 影響을 中國의 特殊한 狀況에 適用시키는 오랜 歲月의 흐름속에서 表出되어 나온 毛沢東의 表現은, 예컨대 職業革命家들이 웅크리고 있는 黨의 重要視에서 農民大衆에 根據를 둔 軍隊로 그 重點이 바뀌어 지는데 이 경우 우리가 直視해야할 點은 「中共軍=中共黨」이라는 名實相符合한 「二位一體性」이다. 이 「黨과 軍의 二位一體性」確認은 結局, 레닌이 主張한 職業的인 革命家 엘리트爲主에서 脫皮, 農民的 性格을 지닌 大衆路線의 重要性을 淸로 示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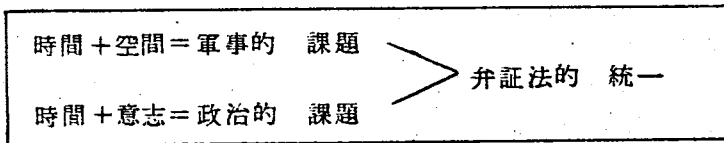
이리하여 毛沢東은 <戰爭과 戰略의 問題>(1938年)에서 이렇게 主張하고 있다. 『中國에 있어서 鬪爭의 最高形態는 戰爭이며 組織의 最高形態는 軍隊이다.』

毛沢東의 境遇, 革命과 戰爭은 同一現象이므로 共產主義革命을 위한

「軍事作戰」의 形態에 있어서는 게릴라戰의 教義와 게릴라戰 ( guerrilla warfare ) 에서 運動戰 ( mobile warfare ) 에로의 漸次的인 轉換原理로 發展되었다.

그러면 毛沢東이 主張하는 『革命戰略에 있어서의 哲學的 課題』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毛沢東은 軍事的으로는 遊擊隊의 生存根據地인 「空間」을 組織하여 「時間」을 얻고 또 政治的으로는 持久戰戰略概念에서 浮刻되는 「時間」을 組織하여 政治思想工作的 果實인 「意志」를 形成하는 것이 革命戰略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哲學的 課題라고 主張하고 있다. 「面積+障害物-交通通信網」인 「空間」그리고 「時間」 및 「意志」의 3者 關係는 基本的으로 「時間」을 媒介的인 軸으로 하여 軍事와 政治 즉 戰爭과 平和의 兩者關係를 密着시키자는데에 毛沢東의 基本意圖가 있다.

上述한 毛沢東의 革命戰略에 있어서의 哲學的 課題를 簡單히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 나. 毛沢東戰略思想에 있어서의 革命的 게릴라戰의 特徵

게릴라戰을 純軍事的 앵글로부터 民族解放鬪爭이란 歷史的 눈이까지 發展시킨데에 毛沢東의 게릴라戰 特徵이 窺보인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從來 主張되어온 戰術 ( tactics ) 로서의 게릴라戰이 아니라 戰略 ( strategy ) 的 次元으로 昇格된 意味를 간직하고 있다. 왜냐하면 中共의 게릴라戰 展開過程은 곧 中共軍의 共產革命過程인 것이며 그 歷史的 考察은 中共黨史와 人民革命戰爭史에 求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毛沢東의 3段階論이 提示되고 있는 <持久戰論>에서 우리는 弁證法的

大端히 큰 大衆을 動員한다. 이러한 遊擊戰術은 마치 投網하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지 必要에 따라 網을 띄고 또 언제든지 必要에 따라 網을 좁힌다. 띄서 大衆을 獲得하고 좁혀서 敵에 對抗한다。」』

그런데 毛沢東은 16字戰法을 단지 軍事的 作戰을 展開하는 戰術로서만 限定치 않고 더 나아가 二次的으로 戰略的 高地를 構築했다.

그러면 革命的 게릴라戰을 戰略的 次元으로 昇格시키고 있는 毛沢東의 革命戰略思想을 檢討하려면 革命戰爭의 3段階論을 言及할 必要에 直面한다. 前述한 R.C. 서그스와 B.M. 윌러의 論文<毛의 3段階 - 事實 아니면 幻想?>에 依據하여 分析해 보자.

段 階		毛 沢 東 「持久戰論」(1938)	보.구엔.지암 「人民戰爭,人民軍隊」(1959)
1	戰態 略勢	敵 = 戰略的 攻擊 中共 = 戰略的 防禦	關 爭
	戰形 爭態	從來의 大部隊를 使用하는 運動戰이 主役割 게릴라戰 陣地戰이 補助役割	게릴라戰이 主役割 陣地戰, 運動戰도 存在
2	戰態 略勢	敵 = 戰略的 防禦 中共 = 攻擊, 準備	均 衡
	戰形 爭態	게릴라戰이 主役割 運動戰, 陣地戰이 補助役割	게릴라戰의 役割이 減少 陣地戰, 運動戰의 役割增大
3	戰態 略勢	敵 = 戰略的 後退 中共 = 戰略的 攻擊	逆 攻 勢
	戰形 爭態	運動戰이 主役割 陣地戰, 게릴라戰이 補助役割	運動戰, 陣地戰이 支配的 게릴라戰의 重要性 減少

對하여 10의 힘으로서 對應하는 것이 敵을 擊破하는 秘訣』이라고 強調했다. 이것은 圧倒的으로 優勢한 兵力配置로 戰爭을 早速히 終結코자하는 傳統的인 戰爭理論(西洋의 一般的인 兵學思想)에 對立되는 立場이다.

요컨대 우리는 毛沢東의 革命的 게릴라戰略思想에 있어서의 3部作 即 <中國革命戰爭의 戰略問題>(1936年), <抗日遊擊戰爭의 戰略問題>(1938年) 및 <持久戰論>(1938年) 등에서 結局 다음과 같은 根本的인 提제를 抽出할 수 있을 것이다. 即 毛沢東은 時間, 空間, 歷史的 特性 등의 相關關係를 考察한 孫子兵法을 그의 大前提인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加味하여 게릴라戰을 獨特한 革命的戰略으로 發展시킨 張本人이라는 事實이다.

## (2) 毛沢東戰略思想에 있어서의 革命的 게릴라戰의 行動主体

毛沢東의 게릴라戰爭觀은 『戰鬪力의 가장 깊은 根源은 民衆안에 있다』는 確信과 『게릴라와 人民은 물고기와 물과의 關係에 있다』는 信念에 立脚하고 있다.

이것이 다름아닌 게릴라戰의 行動主体를 人民=農民大衆에 둔 毛沢東戰略思想의 重要한 特徵이다.

農民의 革命主体性を 強調하는 毛沢東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中國革命의 成功에 10點을 준다면 都市民과 軍隊는 3點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7點은 農民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確實히 農民을 「文明時代의 野蠻人」이라고 規定한 마르크스~엔겔스의 提제하고는 동떨어진다.

毛沢東은 일찍이 井崗山鬪爭時 그 鬪爭目標을 다음과 같이 宣言했다. 『現在의 中國은 아직도 부르조아民主革命의 段階에 있다. 中國民主革命의 綱領에는 對外的으로는 帝國主義를 打倒하여 徹底한 民族解放을 꾀하고



戰爭의 歷史는 아래와 같은 證據를 提示하고 있다. 卽 처음에 弱하고 少數였던 人民革命軍이 強力한 大軍으로 成長한 것은 人民戰爭의 普遍的인 法則이다.』다음으로 <敵을 輕蔑하라>는 項目에서 이렇게 指摘하고 있다. 『毛沢東同志는 우리는 敵을 戰略적으로 輕蔑하고 戰術적으로 充分히 參酌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 農村의 革命根據地 確立과 시골로 부터의 都市包圍에 關한 毛沢東同志의 理論은 現在 모든 被壓迫國家와 人民의 革命鬪爭을 위해 顯著한 重要性을 갖고 있다. .... 中國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地域國家들에 있어서 農民問題는 大端히 重要하다. 農民은 帝國主義者와 그 追從者들에 對抗하는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의 主要勢力을 構成한다』또한 <大都市를 包圍하라>는 項目에서 林彪는 다음과 같이 毛沢東의 大戰略인 包圍戰略을 現代世界戰略에 適用시키고 있다. 卽 『帝國主義者들은 侵略을 敢行할때 普通 大都市를 占領하나 廣闊한 農村을 統制할 수 없다. 시골은 革命軍이 自由롭게 起動할 수 있는 廣闊한 地域을 提供한다. 萬一, 北美와 西歐가 世界의 都市라고 불리울 수 있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世界의 農村을 構成한다. .... 이런 意味에 있어서 現代 世界革命은 農村地域에 依한 都市包圍를 나타내고 있다』.

## 8. 毛沢東革命戰略論의 亞流와 變種

### 가. 보.구엔.지압

보.구엔.지압의 戰略.戰術은 革命戰爭 즉 人民戰爭의 「5段階論」에 立脚하고 있다. 그런데 이 5段階論은 毛沢東의 3段階論앞에 2段階의 事前準備 段階를 플러스한데 不過하며, 그 基本戰略에 있어서는 毛沢東의 革命的 게릴라 戰略思想에 決定的으로 힘입고 있다. 따라서 지압의 <人民戰爭, 人民軍隊>는 毛沢東의 「革命戰爭戰略.戰術의 3部作」을 基本的으로 이어 받은 亞流라고 볼 수 있다.

5段階(或은 3段階) 게릴라戰略 戰術을 中樞로하여 디엔비엔푸陷落에서 보여지는 抗仏民族解放戰爭에서 勝利를 거두었다.

지암은, 그의 著書<人民戰爭, 人民軍隊>(1959年)에서 毛沢東의 主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즉 『抵抗戰爭을 勝利로 引導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戰略原則을 갖는것만으로는 充分치 않고 適切한 作戰方針이 必要하다. 우리의 抵抗戰爭은 게릴라戰으로부터 차츰 正規戰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게릴라戰으로부터 部分的인 陣地戰과 結付된 運動戰으로 옮겨갔다. 基本的으로 우리들은 이 一般法則을 把握하고 있었기 때문에 成功했던 것이다』.

그리고 越南戰爭에 있어서의 越南臨時革命政府 즉 베트남공의 게릴라戰略 戰術은 말할 나위도 없이 「毛沢東-지암」의 革命的 게릴라戰略・戰術을 踏襲한 것이다.

#### 나. 체·게바라

체·게바라의 게릴라戰爭理論에 있어서의 戰略과 戰術을 要約해서 說明하려면 毛沢東의 革命戰爭戰略・戰術論과의 對比에서 考察하는 것이 必要하다.

以下 세 가지 側面에서 分析해 본다.

1) 革命戰爭의 3段階論 解釋에서 差異점을 들어내 놓고 있다. 毛沢東은 이 3段階의 發展에 主要關心을 가져 運動戰, 게릴라戰, 陣地戰 등의 性格을 糾明하고 있는데 반하여, 게바라는 第1段階를 가장 重要視하여 3段階發展論에는 關心을 별로 表明치 않고 있다. 그것은 原게릴라와 新게릴라의 相關作用에 主要關心을 가지고 있는 點에서 表明되며 또한 「革命條件早期成熟論」의 強調에서도 立証된다.

2) 게릴라戰線의 組織등에 具體的인 力點을 두어 根據地問題, 軍需産業問題, 其他 情報, 訓練, 教化 등 組織構成에 仔細한 言及을 하고 있는 게바라는, 結局 「물과 물고기」關係에 있는 人民大衆과 게릴라戰士의 密接한

# VIII. 統 一 方 案

## 第 1 章 分 斷 國 의 統 一 政 策

## 第1章 分断국의 統一政策

### 1. 序 言

第2次 世界大戰以後 独逸·越南·中国 그리고 韓國의 4個分断국이 存在하고 있다. 이 外에도 國家分断이란 現象만으로는 몇個의 國家가 追加될 수 있는 反面 中国과 越南은 戰前부터 이미 鬭爭이 激化하였으며 또 植民地解放戰爭의 性格을 內包하고 있다는 点에서 이른바 「戰後處理過程에서 어느 一國家의 影響圈에 編入되지않고 潛定的으로 分断되어 強大國의 影響力이 二分화된 國家라는 嚴密한 意味의 分断國範圍에 包含되지 않는다.

그러나 独逸·越南·中国 그리고 韓國은 自由·共產勢力의 對立下에 統一問題를 解決하여야 한다는 点에서 基本的으로 같은 分断國概念에 包含되며, 특히 共產側은 独逸에서는 「東獨의 國際法的地位同格化에 의한 東·西獨分断의 固定化」 越南에서는 「사이공政府와의 聯立政府樹立」, 그리고 中国에서는 「台灣政府의 吸收에 의한 이른바 第3次國共合作의 實現」등 政治的與件의 成熟度에 따라 多樣한 統一戰略을 驅使하고 있으나 共產側의 統一戰略은 基本的으로 同一하다는 意味에서 以上 各分断國의 統一政策研究는 우리의 南北統一問題解決에 啓示하는바 클 것이다.

### 2. 独逸의 統一政策

#### 가. 独逸統一與件의 特殊性

独逸은 戰後 分断 4個國中 가장 本格的으로 東·西獨接觸을 維持해왔으며 이미 基本條約을 締結하여 兩獨關係를 正常化함으로써 새로운 次元에서 統一을 摸索하고 있다.

西獨은 유럽 共同体(EC)의 核心國家로서 經濟力을 主軸으로한 越等한

稅同盟組織必要性的 稀薄 等 共產主義經濟体制의 特異性에 따라 「歐共市」와 같은 水準의 經濟統合은 實現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나 1970年 5月 「코메콘」 國際投資銀行設立을 契機로 國際的 社會主義分業의 促進에 따른 經濟統合이 加速化되었다.

이같이 經濟統合으로 成長해온 東西歐經濟体制은 經濟的 繁榮을 持續시키기 위한 政治的 安定을 要求할 뿐만아니라 規模拡大의 經濟論理에 따라 東·西歐 經濟圈의 接近을 誘發하였다. (4) 다음 具體的으로 美·蘇의 對유럽政策의 同調現象이 東·西獨 接近을 促進하였다.

첫째 政治的 側面에서 美國이 西獨의 對蘇提携牽制政策과 蘇聯의 東歐支配權確立政策은 事實上 獨逸分断의 固定化에서 妥結點을 發見하였으며, 둘째 軍事的 側面에서 美國의 西歐駐屯美軍의 減縮政策과, 蘇聯의 中蘇國境地帶와 유럽地域에서 兩面戰線維持를 回避하려는 政策은 유럽의 緊張緩和를 招來하였다.

특히 中·蘇國境地帶에 全地上軍 160個 師團의  $\frac{1}{4}$ 인 44個 師團을 配置하고 東歐에 31個 師團을 配置하므로써 軍事力을 分散시키고 있는 蘇聯은 유럽의 緊張緩和를 早速히 實現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經濟的 側面에서 美國은 東·西歐經濟의 接近을 支援함으로서 美國經濟의 對東歐圈進出의 先導的 役割을 要求할 뿐만아니라 美·西歐間 經濟的 摩擦을 鈍化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蘇聯은 對西獨經濟提携로서 國內 經濟發展의 沈滯를 克服하려고 企圖하므로써 美·蘇는 東·西歐經濟結合에서 妥結點을 發見하였다. 특히 蘇聯은 西獨에 天然가스를 供給하고 西獨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있으며 1972年中 蘇聯·西獨間 交易量은 10億달러로 急增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의 國際政治的 背景뿐만아니라 東·西獨은 戰後 社會文化的·經濟的 接觸을 維持하여 왔기 때문에 1970년에 비로소 이루어진 東·西獨 頂上會談은 오히려 때늦은 感이 있었다.

다. 東独은 「國家聯合」을 統一의 中間解決形態로 規定하였으며 「國家聯合」은 東·西独間의 「國際法的條約」締結을 통하여 構成되며 「國家聯合」下의 東·西独은 相互主權不干涉原則이 適用된다고 主張하였는바 여기서 「國際法的條約」이나 「主權不干涉」云云은 亦是 東·西独地位同格化를 위한 意圖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東独은 國家聯合構成의 前提條件으로서 東·西独의 非核化,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로 부터 東·西独의 脫退, 東·西独間 同水準의 減軍 및 外國軍의 即刻 或은 段階的 撤収實現을 위한 努力등 軍事的問題의 先決을 主張함으로서 當時 中歐의 軍事的 中立化를 企圖한 蘇聯의 立場을 反映하고 있다.

여하튼 軍事的問題가 解決되면 「國家聯合」의 政府機能을 担当하는 「全独委員會」를 構成하고 關稅·通貨聯盟의 創設을 비롯한 各分野의 交流를 「段階的」으로 擴大하여 統一與件을 造成하고 「全独議會」構成을 위한 全独 單一選舉를 實施하여 獨逸統一을 實現하자는 要旨이다.

한편 西独의 統一政策은 1949년부터 1965年頃까지 西独의 单独代表 權主張, 東独의 合併孤立化, 自由選舉實施主張등 「힘의 政策」을 堅持하여오다가 대체로 1966年 基民·社民聯立政權樹立後부터 「接觸을 통한 東独變化論」에 立脚한 平和統一政策으로 轉換하여 1969年 社民·自民聯立政府에 이르러 브란트西独首相의 有名한 「東方政策」에 따라 「事實上的 東独承認」, 「規制된 共存概念」適用에 의한 劃期的統一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은 獨·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 統獨推進의 國際的與件을 造成하고 東独의 「事實上承認」, 東·西独間의 現存境界線認定 및 變更禁止등 現實認定政策으로 부터 出發하여 戰爭再發禁止와 東·西独相互間 國內最高權不干涉에 立脚하여 兩獨關係를 規制하는 「基本條約」을 締結하므로써 이른바 「單一獨逸民族의 兩個 獨逸國家」概念을 適用한 새로운 哲學에 따른 統一接近方法이다.

即 統一의 實現하기 위하여 東·西獨分断을 穩定的으로 固定化시킨 國際

에서 自身の 統一接近原則이 貫徹되었다고 解釈할 것이고 東獨은 基本 條約을 國際法的 條約締結에 의한 東·西獨同格化的 實現으로 看做하고 「國家聯合」으로 가는 過程으로 看做하고 自身の 統一接近原則이 貫徹된 것으로 解釋할 것이다.

여하튼 이와같은 東·西獨의 迂廻的 統一接近方式은 統一을 事實上 拋棄한 消極的 政策이라고 評價할는지 모르나 異質的 政治·社會·文化體制로 固着된 斷絶社會를 連結하는 「커뮤니티」의 形成이 前提되지 않고는 統一이 不可能하다는 點에서 가장 合理的이며 最短의 統一實現方法이 될는지 모른다.

### 3. 越南의 統一政策

#### 가. 越南統一問題의 歷史的 背景

越南戰은 軍事의 問題와 政治的 問題의 二元的 次元에서 解決이 摸索되고 있다. 軍事的 問題와 政治的 問題의 解決이 相互 密接한 函數關係에 있음은 勿論이다. 南北越南(越盟과 越南)의 統一은 越南戰에 따른 越南內의 政治的 問題가 解決된 後에 拳論될 것임으로 第二次的 課題이나 越南戰의 政治的 問題의 解決方式에 따라 南北越南의 統一方法 및 時期의 短縮과 遲延이 決定될 것이라는 點에서 越南統一問題의 歷史的 特殊性이 있다. 즉 越南戰의 政治的 問題의 解決過程은 統一問題解決의 過程으로 分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越南戰의 政治的 問題의 意味는 프랑스 植民政策으로 부터 登壇을 본 越南의 政治史의 背景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1858年 나포레옹 3世때 宣教師 処刑에 대한 報復의 名目으로 다낭에 대한 艦砲射擊을 開始한 以來 1884年頃에 이르러 越南을 퉁킨(北部), 안남(中部), 고친차이나(南部)로 3分하고 完全保護領化하여 植民政策을 遂行하였다.

決의 基礎가 된다. 제네바 會談에는 越盟, 越南 ( 바오다이 政權 ) 캄보디아, 라오스 및 英 美 · 仏 · 蘇 · 中共의 9個국이 参与하였고 休戰 協定은 프랑스와 越盟, 라오스 및 캄보디아 各國間의 兩者協定으로 成立되었으며 印支全域의 國際的 中立保障을 宣言한 最終宣言에는 美國 과 越南은 直接 署名하지 않고 다만 이를 支持한다는 单独聲明을 表하였다.

「제네바協定」은 (1) 北緯 17 度 軍事境界線은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것으로서 如何한 意味로서도 繼續的 政治的 或은 領土的 境界를 設定한 것이 아니며 (同協定 6 項), (2) 越南의 總選舉 (南地베트남統一의) 는 제네바 協定이 規定한 國際監視委員團의 監視와 管理下에 1956年 7 月에 實施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同協定 7 項). 그러나 이 越南의 統一을 實現시킬 수 있었던 唯一한 總選舉는 그後 越南 및 印支事態가 單純한 植民地解放戰의 次元을 넘어 東西冷戰體制間의 對立疎相으로 變貌함으로서 實施되지 못하였다. 傳統的 植民政策에 批判的 態度를 取하여 온 美國은 越南事態의 性格轉換에 따라 제네바協定締結直後인 1954年 9月 8日 「東南亞條約機構」 (SEATO) 의 創設과 더불어 越南의 高 · 딘 디엠政權에 對한 軍事 · 經濟援助를 始作하였고 軍事顧問團을 直接 派遣하여 越南軍의 強化를 企圖하였다.

이와같은 情勢變化의 背景 밑에서 디엠 政權은 越盟에서는 自由選舉가 實施될 수 없다는 理由로 제네바協定이 規定한 南北統一選舉를 拒否하므로서 暫定的으로 베트남의 分断이 固定化되었다.

#### 나. 共產側의 統一戰略과 對應戰略

國際共產主義의 前衛로 登場한 越盟은 越南戰遂行過程에서 數次 「越南에 樹立될 새로운 政權과의 協商을 通하여 平和的 方法으로 南北越南의 統一을 實現시킨다」 라고 標榜하고 있다.

越南戰은 共產側의 軍事的 劣勢속에서 이른바 「越南人民을 掌握」 하므로서



대한 発砲를 契機로 全国的으로 拡大된 激烈한 反政府鬭爭에 부딪쳐 마침내 11月1日 두응·반·민將軍의 軍事쿠데타로 政權이 倒壞되었다. 이후 1964年1月30日 구엔·칸將軍의 쿠데타, 1965年6月19日 구엔카오·키將軍의 政權掌握등등 前後6回의 쿠데타의 連発로 越南政局은 激動을 거듭하여 오다가 1967年 新憲法에 따른 구엔·반·티우大統領 就任後 政治的安定을 維持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政治的安定을 維持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政治的 混亂과 併行하여 共産側은 1960年12月20日 구엔후토 (前사이공弁護士)를 中央委幹部會議長으로 하는 이른바 「越南民族解放戰線」(NLF)을 組織하여 越南에 대한 共産主義浸透를 強化하였다. 이 「民族解放戰線」은 民族의 獨立, 中立 및 南北越南의 平和的 統一을 希求하는 越南의 모든 階層, 勢力의 結集이라고 表明하고,

(1) 美国과 사이공政權을 打到하여 民族民主聯立政府를 樹立하고, (2) 平和中立外交政策을 遂行하며, (3) 南北關係의 正常化와 平和的 再統一의 實現을 主張하는 政治綱領을 標榜하고 있으며 특히 1968年 旧政攻勢直後 이른바 「民族民主平和勢力聯合」을 組織하여 사이공 政府에 反對하는 民族主義勢力의 擡頭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이것은 「統一戰線論」에 立脚한 共産主義的 偽裝戰術에 不過하다.

共産側은 이미 1969年6月8日 이른바 「越南臨時革命政府」를 樹立하여 國家承認의 劃策等 对内外的인 政治基盤擴大에 全力하고 있으며 『(1) 平和, 獨立, 中立을 贊成하는 越南各階層人民 및 各政治勢力과 더불어 臨時聯立政府를 樹立하고. (2) 이 臨時聯立政府 監視下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國會를 構成, 新憲法을 制定하고, (3) 이 憲法節次에 따라 聯立政府를 樹立한다』는 共産主義의 基本公式에 따라 戰略을 推進하고 있는바, 共産側은 이와같은 戰略으로 越南이 赤化된 이후에 南北越南의 協商에 의한 全越南의 赤化統一을 構想하고 있다.

問題를 南北越南의 自由民主總選挙實施라는 새로운 課題로 提起할 것이다.

#### 4. 中國의 統一政策

##### 가. 中國統一問題의 歷史的背景

中國의 統一問題는 1949年 共産党的 本土掌握을 契機로 비롯되지만 實際的으로는 國共鬭爭時期까지 遡及되어야 한다.

1911年 辛亥革命에 의한 清朝崩壞後 新中國의 建設, 社會改造의 風潮가 高潮되고 列強의 反植民地狀態로 부터 解放되려는 運動이 急激히 일어나 1919年 5月 14日 日本이 袁世凱政府에 強要한 이른바 「21個條 要求」에 反對하는 學生데모(5.4運動)가 勃發 中國近代化運動의 先驅를 이루었다.

이와같은 過程에서 中國統一問題와 가장 密接한 關係가 있는 事項은 「國共合作」의 成立이다. 1921年 中國共産黨을 創立한 陳獨秀는 孫中山의 「聯蘇容共」政策에 따라 1922年 8月 國民黨에 入黨하여 「國民黨改造起草委員」으로 任命됨으로서 國共間의 實質的인 「合作」이 成熟되어 1924年 1月 「國民黨 第1次全國代表者大會」에서 마침내 國共合作이 結實을 보았다. 그러나 第1次 國共合作은 1927年 8月 中共黨이 「南昌」暴動을 勃發시키고 國際共産主義指令에 따라 소비에트政府 樹立을 企圖하자 「武漢政府」가 共産黨肅清을 實施함으로써 滿5年만에 瓦解되었으며 1937年 第2次 國共合作이 成立될 때까지 9年間 流血鬭爭이 繼續되었다. 第1次 國共合作이 決裂하게 된 具體的過程은 極히 復雜하지만 基本的인 原因은 國民黨의 民族主義와 共産黨의 國際主義間의 革命的 主導權爭奪戰때문이다.

第2次 國共合作은 表面上 1937년부터 1945년까지 8年間 繼續되었으나 이 동안에도 國共間의 摩擦이 繼續되었으므로 實質的으로는 1年間

그러나 台灣政府는 1954年 11月 1日 總統直轄機關으로 「大陸光復設計委員會」를 設置하고 約 1,500名 規模의 國民代表와 (行政院所屬設計委員等 總 2,000名規模(1969年 現在)의 汎國民的人士로 構成되어 大陸光復에 關한 多角的 諸方案을 研究하므로서 積極的인 統一政策을 追求하고 있다. 이와같은 努力에도 不拘하고 現在の 國際情勢로 보아 台灣政府의 「大陸反攻」概念은 軍事的 概念이라기 보다는 中共内部指導層의 紛糾등 中国本土의 情勢變化에 期待를 걸고 있다는 點에서 基本的으로 政治的 概念이다.

한편 中共의 統一政策도 「하나의 中國觀」에 立脚하고 있다. 다만 1955年頃을 고비로 「武力解放」政策에서 「平和解放」政策으로 統一戰略이 變化되었을 뿐이다. 1955年 바르샤바 美·中共會談을 前後하여 「平和解放論」이 擡頭된바 있으며, 1970年 中共政治局의 左傾路線代表者인 陳伯達의 退脚 및 「周恩來外交路線」의 登場과 1971年 美·中共接近으로 中共의 統一戰略은 漸次 이룬바 「平和解放戰略」으로 交貌되고 있다.

中共指導層은 1945년부터 1949年間 이룬바 內戰期에 티베트等 台灣以外的 여러 地域을 戰爭없이 平和的으로 中共에 歸屬시킨 事實을 想起하여 이룬바 第3次國共合作에 의하여 台灣을 中共主權下의 하나의 「自治區」로 만들려는 構想을 갖고있는듯 하다.

事實 「하나의 中國觀」은 美·中共會談過程에서 漸進的으로 浮刻되었다. 1955年 8月 1日 「바르샤바」會談에서 1972年 2月 27日 美·中共上海共同聲明에 이르기까지 國際情勢는 中共側에 有利하게 움직여 유엔 中國代表權問題가 解決되었으며 이룬바 「台灣은 中國의 一部」이고 駐台美軍의 撤収에 關한 基本方向이 確定되었다.

여기서 「中國」은 반드시 中共을 指稱하는 것은 아니지만 美國이 「二個의 中國觀」대신 「하나의 中國觀」을 確認한 것은 事實이며 美

특히 共産側의 統一政策은 政治的 与件의 相異에 따라 多様な 様相을 나타내고 있으나 赤化目的을 가장 쉽게 達成하기 위한 戰略戰術上의 差異에 不過하다는 點을 確認하였다.

韓半島의 統一与件은 南北韓이 대체로 相互勢力均衡狀態에 있고 周邊強國이 「現狀維持政策」을 取하고 있다는 點에서 이상 分析한 3個分断國중 에서 比較한다면 獨逸類型에 類似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韓半島와 獨逸의 統一問題는 基本的으로 差異가 있으며 同時에 兩獨逸統一方式이 韓半島에 같이 適用될 수는 없다.

첫째로 統一与件面에서 獨逸을 圍繞한 國際情勢는 緊張緩和現狀이 이미 制度化段階에 있을뿐만 아니라 東西獨은 戰後 持續的 或은 間歇的으로 社会文化 및 經濟的 接觸을 維持하여 왔으나 韓半島 周邊情勢와 南北韓關係는 그렇지 못하였으며, 둘째로 共産側의 統一政策面에서 東獨은 西獨에 대한 「힘의 隔差」를 認識하고 「國際法上 地位同格化現實이라는 消極的 統一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實情이나,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收, 平和協定締結, 南北聯邦制의 實施 등 強奪的 要求를 主張하고 對南赤化戰略을 拋棄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로 統一實現의 緊迫性面에서 獨逸은 聯邦國家形成의 歷史的 經驗에 따라 「1民族2國家觀」이 어느 意味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同時에 緊迫性이 없으나 新羅統一이래 單一民族國家를 維持해온 韓民族으로서는 戰後強大國政治에 의한 國土의 分断固定을 어느意味에서도 受諾할 수 없으므로 統一은 可能한 限 實現되어야 한다.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은 獨逸類型과도 다른 統一指向的 次元에서 새롭게 構想되어야 할 것이다.

## Ⅸ. 教 職 科 目

第 1 章 教 育 的 社 會 化

第 2 章 統 一 教 育

# 第 1 章 教育의 社会化

## 1. 社会의 教育的 機能 및 過程

### 가. 社会의 教育的 機能

社会의 教育的 機能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첫째, 社会化의 機能이다. 社会化의 機能이란 社会가 갖는 教育的 힘으로서, 모든 社会의 制度나 価値, 倫理 등이 教育에 끼치는 影響을 말한다.

따라서 그 社会가 바람직한 경우에는 教育에 미치는 影響도 바람직하기 마련인 것이다.

둘째로, 教育 支援的 機能이다. 이는 教育環境 提供的 機能을 意味하며, 여기에는 우리 人間을 包含한 모든 社会構成員이 包含되는 것이다.

셋째로 強制的 機能이다. 이는 社会가 教育을 強制한다는 機能으로서 여기에는 政治的 関与가 重大한 比重을 차지하게 된다. 此外에도 社会輿論을 통한 教育目的設定에의 压力 등이 包含되며 特히 매스. 콤의 役割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끝으로 統合的 機能을 들 수 있다. 社会는 人間의 行動을 變化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 그 變數라 볼 때, 多樣한 社会에서의 人間의 變化樣相도 多樣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할 경우 社会變化의 方向은 곧 教育에의 間接的인 方向을 暗示하게 된다.

그러한 過程에서 社会는 教育에 대하여 統合的 機能을 發揮하게 되는 것이다.

以上の 諸 機能을 통해 社会는 教育에의 影響을 미치게 되나 本講議에서는 教育社会學의 一般論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그 中 「統制的 機能」으로서 政治 社会의 教育的 過程만을 간추려 說明키로 한다.

교육은 흔히 行動變化의 原動力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君主國家에서는 대개 教育에 對해서 恒時 危險視하고 既存 政治體制에 對한 批判이 생긴다. 두려워 教育이 기르기 쉬운 理性의 培養을 抑制한다. 特히 獨立的 思考方式이며 質問이나 分析 等의 特性은 危險性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抑制하고 때로는 禁止 때로는 処罰까지 한다.

君主 自身の 教育도 君主政府에 適合하도록 하는 教育을 實施한다. 예컨대 君主가 가져야 할 特性 즉 굳은 信念의 培養은 勿論 이를 實踐하기 위한 實踐力을 重視하며 君主로서 權威를 損傷시키지 않는 方法이라든가, 住民에게 服從을 強要하는 方法들이 그 主要内容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君主國家의 官僚들이 變化를 싫어하고 劃一的 思考方式을 좋아하고 權威主義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모두 이상과 같은 教育에서 緣由되는 것이다.

엘리트 養成機關을 最少化하고 그것도 保守的 養成機關으로 君臨시키는 것도 모두 君主政體에서 일할 수 있는 官僚를 養成하기 위해서이다.

이같은 教育을 받은 사람들은 未來志向의이기 보다는 過去 志向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創案해 내는 힘이 적다. 왜냐하면 改革은 保守體制를 破壞하는 것이기 때문에 歡迎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身分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 (2) 貴族政治社會

貴族政治社會는 君主政治社會와 民主政治社會의 中間段階 社會라 할 수 있다. 貴族政治體制의 長點은 ① 最終 政策이 決定되기까지는 數多한 엘리트의 意見이 反映될 수 있고 ② 一人獨走를 防止할 수 있으며 ③ 能率에 있어서도 比較的 좋은 편이며 ④ 說得과 指導力의

나 過程도 一脈相通한 바 있다.

少數者만이 政治의 權座에 앉기 때문에 人材養成에 있어서도 門戶가 極度로 閉鎖되어 있고 競爭도 甚하다. 一般大衆教育을 위해서도 힘쓰면서도 高等教育이나 研究에는 매우 制限을 한다. 精粹分子의 教育에 關心이 많고 投資도 아끼지 않으나 一般 庶民에 對한 教育에 對해서는 소홀히 한다.

教育은 力動的이고 實驗的이기 보다는 오히려 靜的인 것이며 思想을 批判한다기 보다는 受諾한다는 面에 力點을 둔다.

이를 좀 더 分析해 보면 貴族社會는 比較的 少數人이 支配하는 社會이기 때문에 高級人力( high level man power )은 많이 養成하여도 消化할 수 없으므로 社會政策的으로 高等教育의 門戶를 좁히는 것이다. 萬一 消化도 할 수 없는데도 不拘하고 많은 高等人力을 培養하였을 때는 오히려 이들이 不平不滿과 함께 挫折感에 사로잡혀 社會問題化할 可能性이 많기 때문이다.

貴族政治體制下에서의 教育方法은 一般的으로 標準化되어 있고 劃一化되어 있다. 教師의 境遇도 政府가 配給한 教材를 學生의 個人差 關係 없이 注入式으로 가르치며 教師는 權威로서 學生을 대하게 되며 學生들의 머리를 洗腦시키는 것이 그 主 任務로 되어 있다.

### (3) 民主政治體制

사람은 理性的인 動物임과 同時에 政治的인 動物이기 때문에 自己의 市民으로서의 權利와 義務의 重大性을 認識하고 社會의 一員으로서 個個人이 相互協同下에 相扶相助의 美德을 發揮하지 않으면 안된다.

民主社會下에서 教育에 對한 態度는 積極的이며 協調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民主社會는 啓蒙된 民衆을 갖지 않고서는 成立이 不



教育이라는 概念보다 더 넓은 概念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社会的인 立場에서 보면 教育보다 社会化라는 概念이 더 넓은 뜻을 갖는 概念이라 할 수는 있다. 그 까닭은 社会化라는 概念에서는 社会的 環境 要因을 더 重要視하기 때문이다. 社会化라는 概念으로 說明하려는 対象과 強調點이 教育이라는 概念으로 說明하려는 対象과 強調點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教育과 社会化를 同一概念으로는 볼 수 없으나 教育을 広義로 解釋하면 社会化와 같은 뜻을 포함한다고는 할 수 있다.

#### 나. 社会化의 樣相

社会化에 關한 보다 体系的이고 科学的인 研究를 試圖하기 始作한 以來 많은 問題와 社会化에 關聯된 變因들이 取扱되고 있으나 대충 다음과 같은 세가지 領域에 屬하는 問題들로 分離할 수 있다. 즉 첫째, 社会化되는 行動特性, 둘째, 社会化를 担当하는 機關 乃至 社会化의 代行者, 셋째, 社会化를 爲해 使用하는 方法이다. 이를 차례로 簡略히 說明해 보기로 한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社会化를 通하여 形成되는 行動特性으로는 知識이나 技術보다는 強하게 社会的 性格을 띤 社会的 意識, 人生, 態度, 動機, 價值觀, 信念등이 包含된다. 社会化를 通하여 어떠한 行動特性이 形成되느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는 範圍內에서 어떠한 行動特性을 分析해야 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社会化에 關한 研究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打字치기, 럽뛰기, 水泳等과 같은 行動特性에 關해서는 별 關心을 가지지 않고 주로 社会的 行動特性으로 알려진 人生, 動機, 價值觀, 態度, 信念등의 行動性向에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다. 社会化에 關한 研究에서 되도록이면 單一行動特性을 取扱하려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複合的인 行動體

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의 社会化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사람 내지 機關을 研究해서 分析하고 그 代行者 및 機關의 特性을 考察하여 個人의 社会化에 미치는 影響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어느 機關에서나 마찬가지로 家庭이 兒童의 社会化를 担当하는 가장 重要한 機關이며 그 中에도 어머니가 兒童의 社会化를 担当하는 一次的인 責任을 가진 社会化의 代行者이다. 그 밖에 다른 家族成員도 兒童의 社会化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要素가 되며, 親舊, 教師, 牧師, 이웃, 親戚等도 社会化의 重要한 代行者의 구실을 担当하고 있으며 機關으로서도 家庭, 學校, 教會, 職場等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도 新聞, 雜誌, 冊, 映畵, 라디오, 매스.콤等도 兒童, 學生, 成人의 社会化에 큰 影響을 미치는 社会的 要素가 되고 있다.

社会化의 代行者가 兒童의 社会化를 爲해 具體的으로 어떠한 方法을 使用하고 있는지는 代行者 個人에 따라 혹은 文化를 달리한 社會마다 各其 다른 것이며, 여기에 그 方法을 다 列挙하기란 不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 꾸짖고, 稱讚하고, 罰을 주고, 說明하고, 愛情을 주고, 要求를 拒絶하고, 統制하는 등의 訓育方法은 家庭에서 흔히 쓰는 方法이다. 같은 父母라도 아들과 딸에게 對하는 態度나 使用하는 訓育方法도 다르며 長男, 次男, 혹은 막내아들에게 各其 달리 대한다. 이렇게 父母가 兒童에게 대하는 態度나 兒童의 行動 統制를 爲해 使用하는 訓育方法의 如何에 따라 兒童의 反應樣式이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兒童의 行動特性의 形成과 變化에 있어서도 달리 影響을 미치게 된다.

父母들이 使用하는 兒童 養育方法(大小便을 가리게 하고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食事を 하게 하고, 잠을 재우는 方法과 訓育方法은 文化를 달리하는 社會마다 다르고 같은 文化圈에 屬하는 社會内部에서도 地域에 따라 社會階層에 따라 혹은 父母의 教育程度에 따라 혹은 父母의 性格에 따라 各其 다르며 이러한 訓育方法의 差異에 따라 兒

다. 사회화 학습

그러면 사회화를促進시키기 爲한 사회화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다음의 課題가 된다 하겠다.

사회화의 학습이란 人間關係를 通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過程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他人과의 相互作用을 通하여 社会的 行動을 학습하는 過程을 社会的 學習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社会的 學習은 주로 價值, 理念, 他人과 接하는 紐帶方法, 社会的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 社会的 概念, 態度, 動機, 感情, 特히 自己와 他人에 對한 態度, 感情 등의 學習을 包含한다. 이러한 社会的 學習은 한 個人의 社会的 行動이 發達해 가는 過程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한 個人이 누구를 接하게 되든지 간에 그와 相互作用하게 되면 서로 影響을 주고 받는 社会的 學習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우선 사회화 학습의 類型을 다음에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模型學習

兒童의 社会的 學習은 他人의 行動을 模倣함으로써 始作된다. 兒童은 父母의 行動을 模倣하고, 學生은 教師나 다른 學生들의 行動을 模倣하고, 오늘날과 같이 TV나 映面에 나타난 人物의 行動을 模倣한다. 模倣的 行動은 人間の 學習을 가장 可能케 하는 가장 基本的인 行動이기 때문에 模倣的 行動을 人間の 本能으로 解釋하기도 했다. 最近에 이르러 大部分의 學者는 模倣的 行動을 人間の 本能으로 解釋하고 있지는 않고 自己에게 有利한, 즉 補償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의 模型으로 알고 그의 行動을 模倣하게 된다고 解釋들을 한다. 兒童이 어머니의 行動을 模倣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가 自己의 慾求를 充足시켜 주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學習의 模型으로 삼고 어머니가 行動하는 것을 觀察하여 그대로 模倣하게 된다.

을 模倣하는 境遇도 있을 것이며 한 學生이 그 學級의 學生中 知能  
이 높은 學生의 行動을 模倣할 수도 있고, 特殊한 知識이나 技術을  
가진 學生의 行動을 模倣할 수도 있을 것이다. 如何間 한 個人이  
다른 사람을 學習의 模型으로 選擇하게 되는것은 無作為하게 選擇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어떤 理由에서 選擇하게 된다. 어떤 理由에서  
學習의 模型을 選擇하게 되며 또한 選擇한 模型의 行動을 어떻게 模  
倣하느냐를 理解하면 보다 效果的인 社會的 學習을 促進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 (2) 役割學習

役割學習이란 同一한 地位를 가진 사람이 思考하고, 行動하고,  
느끼는 바를 學習한다는 뜻이다. 役割學習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役割  
學習에서 說明한 바 있는 概念들을 다시 想起해 볼 必要가 있다.  
즉 地位, 役割, 役割期待, 役割知覺, 役割行動 等の 概念을 理解하면 自  
然히 여기서 說明하려는 役割學習의 뜻이 밝혀질 것이다.

어떤 地位를 차지한 個人은 그 地位에 賦課되는 役割期待에 따라  
行動해야 할 것이 要求된다. 期待되는 行動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우  
선 무엇이 要求되며 누가 무엇을 自己에게 期待하고 있는지를 學習하  
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問題를 包含한 役割學習의 內容, 役割學習의 過  
程, 그리고 役割學習을 促進 乃至 沮害하는 要因等에 關해서 論議해  
보기로 한다.

役割學習의 內容이란 文化的으로, 制度的으로 혹은 接하는 他人에 依  
하여 한 地位에 要求되는 期待이다. 兒童은 兒童으로서, 學生은 學生  
으로서, 教師는 教師로서 어떤 行動을 할 것을 文化的으로, 制度的으로  
혹은 同僚들에 依해서 期待하는 것이 있다. 文化的으로 規定되는 役

될 수도 있다.

### 3. 共產主義的 社会化와 그 對策

지금까지 政治体制와 教育的 過程의 形態를 살피고 教育的 社会化에 對한 一般的 論理를 展開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多少 緩和된 것은 事實이긴 하지만 南北이 對峙 狀態下에서 四半世紀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얼마동안에 걸쳐 그러한 狀況下에서 살아야 할런지 모르기에 北韓의 共產社会化 過程을 簡略하나마 살펴봄이 앞으로 教育的 社会化를 爲해 도움이 될 것으로 考慮된다.

北韓에서는 人間像의 理想으로서 全面的으로 發達한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을 教育的 最終目標로 삼아왔다. 따라서 教育的 社会化 過程도 以上の 目標에 依拠 學校에서 社會에서 그리고 家庭에 이르기까지 內容이며 形式上의 一元化를 꾀해 왔던 것이다. (이에 對한 具體的인 內容은 別途 政治教育에서 取扱) 이러한 結果로 말미암아 北韓에서의 洗腦教育으로서의 社会化는 金日成과 黨에 對한 偶像化 및 階級革命의 信仰化 過程이라 말할 수 있다. 卽 빨지산 革命活動 教養과 階級教養에 結付하여 社會主義的 樂天主義에 對한 信念을, 鼓吹시키는 同時에 時와 場所를 不拘하고 所謂 「美帝」에 對한 憎惡心 「到來할 大事變에 主動的으로 맞이 할」 力量備蓄과 犧牲的 精神을 비등시키며 「南半部 解放의 革命鬪爭에 對한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戰略戰術」을 說得시키는 過程이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關心事는 以上과 같은 共產社会化 過程이 얼마만큼 成功하고 있는가 하는 點이다. 勿論 가보지도 못한 處地에다, 人間의 意識 乃至 價值觀이 問題이기 때문에 그 結論의 客觀性이 疑心되는

있다는 點이다.

以上の 點을 감안할 때 앞으로 統一에 對備한 教育의 社會化課題로 다음과 같은 點들이 想定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韓國의 젊은 學生들은 우리의 悲劇的 現實에 對한 感覺에는 相當히 뿌리가 얁다. 卽 6.25以後의 諸狀況을 단 既成世代의 罪過로 돌리고 體驗的 認識을 度外視하는 한편, 靛念世界로의 꿈만이 가득 차 있는 감도 없지않다. 오늘날 10月 維新以後 많이 달라지고 있는 事實이긴 하지만 歐美의 自由世界에의 文化에만 執着한 나머지 共產主義 理論이나 共產黨에 對한 知識은 타부시해 왔으나 앞으로 南北 對話를 主導해 가기 爲해서는 이에 對한 問題가 重視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反共教育이 政府 P. R로 錯覺하는 線을 넘어 學問的 體系로 整備되어야 하며 教育目標 理念內容 方法들이 서로 聯繫性을 가져야 하는 內容의 一元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境遇를 보면 以上에 對하여 인식하였고 더욱이 社會教育과의 關係는 더욱 그러 하였다.

끝으로 教育內容의 一元化와 더불어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의 一元化가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에서는 思想教育體制를 完全 整備한 後 學校 社會가 一元化된 教育을 實施함으로써 被教育者로 하여금 價值觀의 混亂을 最少化하고 있는데 反해 우리 韓國의 境遇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즉 學校에서 듣고 보는 教育과 社會에서 듣고 배우는 教育의 內容이 다른가 하면, 매스콤의 境遇는 더욱 그러한 實情인 것이다.

題가 考慮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經濟体制의 變化를 들 수 있다. 特히 經濟体制의 變化의 特徵으로는 自給自足の 形態가 屬儻爲主로 變化되었다는 點, 資本과 勞動力의 性質이 變化되었다는 點, 그리고 自由競爭의 減退現象을 들 수 있다. 이같은 狀況下에서의 教育課程은 經濟變化에 適応치 않을 수 없는 人間像의 定立인 것이다.

끝으로 政治環境의 變化를 들 수 있다. 이미 「教育社会」의 講座에서도 言及한 바 있드시 政治体制의 變化는 教育的 過程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特히 오늘날 思想教育的 側面에서 볼 때, 政治教育的 環境의 變化는 하루가 멀다하게 變化되고 있다. 즉 國際政治의 變化樣相이 그러하거나와 南北對話가 그 좋은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政治教育은 端的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反共教育으로 定義되어 왔다. 이러한 反共教育體系는 收復統一을 目標로 하는 冷戰型의 憲法構造下에서 強力히 뒷받침 받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난 4半世紀 동안 비록 體系性도 欠如되어 있었지만 그런데로 對共警戒心, 對共憎惡心을 振作시켰고 이로 因해서 體制維持의 政治教育的 目的을 達成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冷戰의 國際情勢는 漸次 解氷의 徵兆를 보이기 始作했고 급기야 70年代에 이르러서는 힘의 二元的 分配를 前提로 하는 兩極的 對決體制는 東西間의 平和共存을 目標로 하는 多極化 體制로 轉換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한 南北對話도 結局 以上の 國際情勢의 變化의 一環으로서 國際情勢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処한 結果로 評價해 볼 때, 統一에 對備한 教育課程도 以上과 같은 事實들이 考慮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變化와 教育課程과의 關係를 有機化시키기 爲한 課題로서

수 없다. 一切의 反民主的인 行爲가 우리社會에서 排摯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共產主義가 우리 教育課程 속에 스며들 수 없음을 말할 것도 없고 反民主的인 要素나 色彩가 스며드는 것 마저도 막아야 할 責任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民主主義가 人類가 發展시켜 온 最上의 政治形態이며 最高의 行動樣式이기 때문이다.

그럼 教育課程 構成要素로서의 自由主義 및 共產主義의 內容을 相互比較해 보기로 한다.

가. 自由主義와 共產主義의 比較

(1) 目的面

自由主義	共產主義
1) 人間의 自由와 平和 追求	1) 이데올로기에 依한 世界赤化
2) 個人의 幸福 및 福祉 向上	2) 個人의 要求나 代價無視

(2) 批判

自由主義	共產主義
1) 變化와 改革에 對한 個人의 批判權 強調	1) 個人은 國家의 決定에 順應
2) 抗議에 對한 制限이 없고 오히려 勸獎	2) 抗議에 對한 嚴格한 統制와 處罰
3) 아이디어의 交換이나 批判은 社會 發展의 過程으로 評價	3) 國家政策的인 思想統制와 現象 維持 強要
4) 政策의 立案이나 執行에 對하여 批判이 可能	4) 政策의 妥當性 與否批判 可能 性



(5) 選舉

自由主義	共產主義
1) 選舉의 自由	1) 選舉의 不自由
2) 法에 依한 選舉	2) 政府命令에 依한 選舉
3) 投票	3) 單一候補의 黑白投票
4) 投票結果에 따라 當選者 決定	4) 投票結果와는 關係없이 事前 決定

(6) 雇傭

自由主義	共產主義
1) 職業選擇의 自由	1) 雇傭의 政府統制
2) 正當한 事由없이 解雇不可	2) 政府의 命令에 따른 解雇의 自由
3) 勞動條件의 勞使契約	3) 勞動條件의 強制性

(7) 政府

自由主義	共產主義
1) 民權에 依한 立憲政府	1) 共產黨에 依한 獨裁政府
2) 國民을 爲한 國民에 依한 國民의 政府	2) 國民과는 無視한 政府
3) 國民의 意思 尊重	3) 政府意思 尊重
4) 政府는 個人을 爲해 存在	4) 個人은 國家를 爲해 存在
5) 法에 依한 統治	5) 사람에 依한 統治
6) 多數黨의 支配	6) 少數黨의 支配
7) 國民에 對한 責任	7) 國民에 의 無責任
8) 輿論 政治	8) 輿論을 外面
9) 合法的 政權交替	9) 政權交替 否認
10) 三權分立	10) 名分上의 三權分立
11) 政策立案 公務員만 選舉	11) 共產黨이 政策決定과 立法活動

5) 公開裁判	5) 非公開 裁判
6) 公正裁判의 保障	6) 法庭은 執權 共産党的 手段
7) 秘密警察의 不在	7) 秘密警察에 依한 独裁力 強化

(10) 政党

自由主義	共產主義
1) 多数政党에 依한 權力의 牽制	1) 共産党에 依한 權力의 集中
2) 政党構成員의 制限없음	2) 共産黨員의 嚴選

(11) 所有權

自由主義	共產主義
1) 個人 所有權 保障	1) 個人 所有權 嚴格히 制限
2) 財産処分權의 自由	2) 個人所得없는 個人所有權에 局한 処分權 認定

(12) 宗教와 道德

自由主義	共產主義
1) 精神과 傳統에 基盤을 둔 人生觀	1) 唯物論에 基礎를 둔 人生觀
2) 宗教의 自由는 個人的 信念에 依存	2)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을 爲해 宗教抹殺
3) 宗教團體權의 認定	3) 宗教活動의 國家制限
4) 宗教教育의 自由	4) 宗教教育의 排除
5) 道德은 傳統에 基礎	5) 共產主義 目的을 爲해서만 認定

(13) 勞動組合

自由主義	共產主義
1) 自体組織 運營	1) 國家의 統制
2) 機能：勞動業體의 改善	2) 機能：生産增大訓練
3) 勞動爭議權	3) 勞動爭議權 否定

## (2) 學習經驗의 選定組織과 指導面에 對

다음은 自由主義와 共產主義의 比較는 教育課程上으로 그 實際面에서 다음과 같은 意義를 갖는다.

첫째, 學習은 環境과의 相互 力動的 作用을 包含하는 것이라 볼 때, 政治環境의 變化에 基本이 되는 兩主義의 比較는 學習者의 必要를 손쉽게 解決해 주는 役割을 担当한다.

둘째, 兩主義의 比較는 民主市民의 行動의 特性인 批判力 및 思考力 形成의 基準이 될 수 있다. 民主市民이라면 困難한 問題에 直面했을 때, 優柔不斷한 蒼白한 인테리의 行動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盲目的인 試行錯誤의 方法으로 左衝右突하는 非知性人의 行動도 가져서는 안될 것이며 南北對話와 關聯, 思想的 彷徨을 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自己決定의 基本指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民主主義는 集團思考의 指針이요, 行動의 傾向性이며, 生活의 原理인 것이기 때문에 政治思想教育 實際의 素材인 것이며 나아가 教育結果를 評價하는 指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現在까지의 反共教育이 새로운 政治思想教育으로 轉換되기 爲해서는 最少限 教育課程 作成者는 勿論 一線教師들이 이를 하나의 信念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 3. 韓國과 北韓의 政治教育 現況

## 가. 韓國의 政治教育의 問題點

現行 韓國의 政治教育의 問題點을 分析함에 있어서는 크게 教育政策的인 次元과 學生的 側面으로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于先 政策的인 次元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點이 問題視되고 있는 것이다.

欠如로 問題되고 있거나와 特히 社会科와 道德科와의 關係가 曖昧模稜하여 教育의 実効를 거두기에 어려운 點이 있다.

(9) 反共教育을 效果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專門的 訓練을 받은 教師가 거의 없는 狀態이며 現職教育에 있어서도 그때 그때의 必要에 따라 實施하는 實情이 体系的인 教育이 어렵게 되어 있다.

(10) 道德教育이라 하여 實施하고 있는 統一教育은 時期適切한 指針이 隨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時間性을 띤 教育의 方向이 曖昧하다는 것이 一線教師들의 적지 않은 隘路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11) 教材에 담겨진 共產主義批判이나 民主主義의 解説은 그 自體의 專門的 知識을 效果的으로 提示하는 것이 못된다고 教科書 內容 批判者들은 共通的으로 意見을 提示하고 있다.

(12) 統一教育의 內容組織에 있어서는 學生들의 発達段階를 充分히 考慮치 않은 채 配列되었는가 하면 系列性和 体系性이 疎忽히 되고 있다.

(13) 教師들의 教授活動은 거의 教材解説에 그치고 그것도 暗記에 依한 方法을 通하는 것이 考作이며 때에 따라서는 道義, 즉 倫理的인 內容만을 教授하는 傾向도 없지 않다.

(14) 生活指導를 通한 思想教育은 揭示物에 依한 경우가 大部分이고 學校行事に 있어서도 短篇的인 內容이 大部分이며, 있다고 해야 帰順者의 강연히 그 全部인 境遇가 많다.

(15) 學校長을 비롯한 學校行政家들은 統一教育은 하나의 重要的 領域으로는 認定하고 있으나 그 專門的 方法論에 있어서는 거의 自身을 갖지 못하는 實情에 있다. 特히 行政家들의 統一에 對備한 教育의 機會는 거의 閉鎖된 狀態에 있어 教師들의 意慾이 阻止당하는 境遇도 없지 않다는 것이 教師들의 隘路點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行動 領域別 傾向을 보면 <表-2>에서 보는 바와같이 知的 領域에서는 比較的 낮은 得点 傾向을 보이고 있다.

<表-2> 行動特性別 点数比較

區 分	知 識	態 度	批 判 能 力
平 均 点	60.31	68.00	69.10

이와 같은 結果는 高等学校 學生들이기 때문에 批判的 思考나 態度는 比較的 良好한 것으로 評價되나, 知的 土台없이 갖는 行動特性이라 보아 바람직하지는 못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知共教育」 내지 「勝共教育」을 強調하는 立場에서 볼 때, 앞으로의 統一教育은 相當한 水準의 知識의 內容을 土台로 態度와 能力을 培養하여야 할 것으로 評價된다. 이는 南北의 對話나 國際情勢의 急激現象을 감안 할 때 知的內容의 土台없이 共產主義의 心理戰에 対処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學生들의 잘못하고 있는 몇가지의 特記事項을 살펴보면 더욱 興味있는 傾向을 살필 수 있다.

①우리의 統一方案, ②民主統一에 對한 學生들의 信念, ③南北統一에 對한 學生들의 傾向, ④統一方案中 가장 合理的인 方案의 選擇 等に 對하여는 講議로서 充當할 것이므로 省略.

結論적으로 統一에 對備한 教育은 組織的이어야 하며 体系的이어야 하고 그리고 一元的 體系下에서 意圖적으로 實施하여야 한다는 데서 그 方向을 찾아야 할 것으로 判斷되는 것이다.

#### 나. 北韓의 政治思想教育

北韓에 있어서 政治思想教育은 教育의 그 全部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의 政治思想教育의 理解를 爲하여는 北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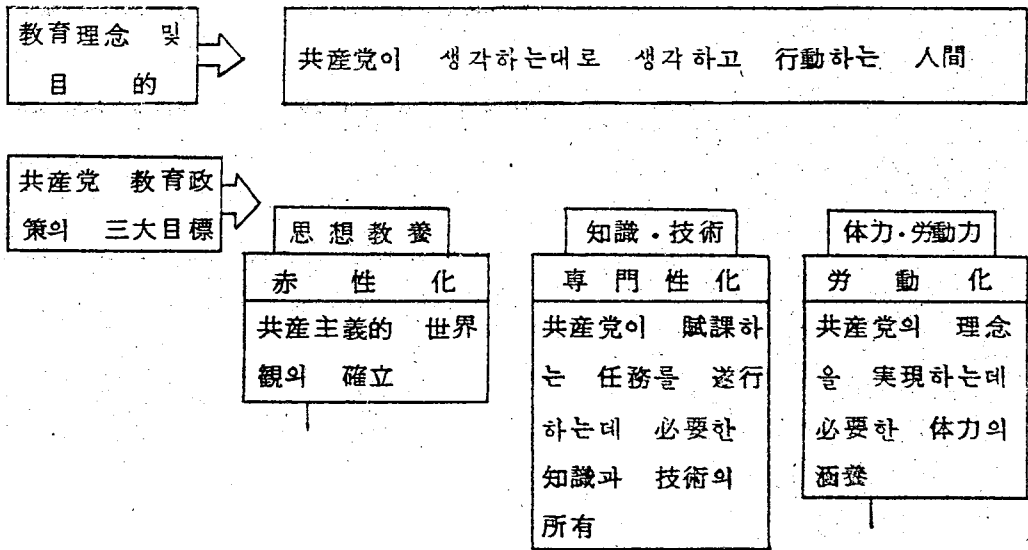
모든 教育活動이 展開된다. 이를 教育實際와 結付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 階級性, 思想性 教養: 思想教養은 政治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으며 그 方向은 ①一般教科를 통한 思想教養, ②革命傳統學習 및 共產主義 道德을 통한 思想教養, ③勞動을 통한 思想教養, ④學校에서의 團體生活를 통한 思想教養으로 定立되어 있다.

2) 革命傳統 教養: 金日成의 抗日 빨찌산 鬪爭을 中心으로 한 內容으로 이를 教育하기 爲한 方針으로서 ①革命傳統 研究室의 設置와 ②革命傳統 研究의 날을 設定하고 있다.

3) 思想檢討會: 所謂 自我批判으로서 群衆의 審判을 받게 한다. 以上과 같은 北韓教育의 政策, 目標 및 教育理念을 公式化하면 다음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

### 北韓政治思想教育體系圖



## (2) 北韓 教科書 內容

北韓教科書內容을 보는 것은 보는 사람의 關心 領域에 따라 各樣各色일 것이나 여기에서는 주로 思想教育의 側面에서 檢討하기로 하되 國語科의 一學年 教材에 致重하겠다.

國語科를 全體的으로 보면, 教育目標로서 金日成 偶像化, 反美 反日意識 鼓吹, 黨과 國家와 全體的 優先意識, 社會主義 讚揚, 革命精神 鼓吹, 그리고 國家에의 參與意識 鼓吹 等を 들 수 있다.

于先 金日成 偶像化를 爲한 그들의 教育目標는 金日成의 人品과 行動이 훌륭함을 認識시켜 그에 對한 尊敬心을 갖게 하고 그의 行動을 模倣케 하는데 두고 있다. 金日成의 人品과 關聯되는 表現을 보면 「어린 사랑」 「부하사랑」 「나라사랑」 「근면」 「면학」 「효성」 「자매」 「친근감」 「인자함」 「슬기로우」等を 그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마치 카리스마적 救世主로 讚揚하고 있다. 特히 金日成의 行績이 越等함을 認識시키기 爲해 提示한 內容의 例를 보면, 「解放과 獨立의 實現을 爲해 鬪爭한 行績」 「北韓의 建設者, 勞動黨의 指導者며 領導者」 「北韓住民의 幸福의 源泉」으로 浮刻시키고 있는 事實들을 볼 수 있다.

둘째, 反美·反日意識의 境遇를 보면 韓國의 貧困의 原因이 美國의 侵略때문이라는가 하면 韓國의 「蠻行은 美國이 主導한다」 「統一의 妨害者는 美國이다」는 것등을 強調하고 있다. 例컨데 「권총으로 그 놈들의 대가리를 까다」 「美國놈들의 기관총을 까주다」는 것 등이다.

셋째, 全體的 優先을 爲한 內容으로는 黨과 祖國을 爲해서는 生命도 불사한다는 犧牲精神이 그 主된 目標이며,

넷째로, 社會主義의 優越性을 讚揚키 爲한 內容의 例로는, 韓國의 貧

특히 算數科의 境遇에도 思想教育을 實施한다는 事實에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算數科中 思想教育的 內容要素는 總 43 個 項目인바 그中 金日成 偶像化가 39.7%로서 그 比重이 가장 높고 其他의 思想教育 德目도 빠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特히 應用問題는 韓國의 實情 날조비난이 그 大部分이고 그 例로 「南朝鮮에서 피를 팔러오는 사람은 46 名이고, 눈을 팔러오는 사람은 14 名이다. 모두 몇名인가?」 하는 것이 그 좋은 例이다.

끝으로 「음악」 「글씨」 「공산주의 혁명활동」 등의 教科에서는 全部가 金日成 偶像化의 內容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것에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3) 北韓住民의 性格 및 行動特性

以上과 같은 共產主義的 社會化 過程을 거친 北韓住民의 性格과 行動特性을 推定해 본다면 大体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考慮된다.

各種 組織生活의 強要하며, 黨政策의 強要, 餘他 全体主義的 傾向으로 말미암아 住民들의 性格特性은 ①內政的 性向에 따른 自己喪失性과 ②強要의 生活化에 따른 性格의 單純化 ③그리고 集團生活 내지 全体主義의 生活로 말미암은 權威主義的 性格으로 變化되어 있지 않나 判斷되며 그 結果 住民들의 一般的인 行動特性은 다음表와 같은 內容들로 構成되어 있을 것으로 豫見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진데 北韓教育은 金日成의 一言之下에 움직이는 道具로 轉落되었거나 아니면 體制守護의 方便으로 活用되는 것 外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南北對話를 즈음하여 學制의 改編은 勿論, 教科書까지를 改編하므로써 思想教育을 強化하였다는 事實은 우리에게 重大한 示唆點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우리가 拈하여야 할 思想教育의 方向은 무엇이며 이에 對処하여야 할 教育對策은 무엇인가를 다음에서 言及해 보기로 하겠다.

#### 4. 새로운 政治教育의 方向

##### 가. 南北對話와 政治教育

8.15 宣言, 南北赤의 會談, 7.4 共同聲明 등의 南北對話가 進展됨으로써 韓國에서 政治教育을 支配하는 環境에 重要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從前에는 北韓을 볼 수 있는 門이 完全히 닫힌 채 反共教育을 實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對話와 接觸을 통해서 어느정도 그 門이 열려 있으므로 해서 從來와 같은 反共教育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點이 隨伴되고 있다.

南北赤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 會議과 關聯하여 北韓에 對한 取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報道를 통하여 北韓에 對한 새로운 情報가 普及되고 있다. 여기에다 7.4 聲明을 통한 南北相互 誹謗을 中斷키로 合意했기 때문에 갑자기 相對方에 對한 否定的인 報道가 制約되고 있어서 市民에 對한 政治教育에 斷切現象이 일어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北韓은 南北對話와 關聯하여 報道의 制限은 勿論 教科書까지를 改編하여 教育의 斷切現象을 最少化 하고 體制守護를 爲한 教育內容을 強化하고 있는 實情이다.

얼핏 생각하면 共產主義 내지 北韓에 關한 教育의 現實化란 觀點에

体制의 相보다 理想的인 民主主義가 낫다고 해 보았자 現体制에 對한 支持가 增大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情報가 統制되지 않은 狀況에서 學生들은 理想的인 民主主義가 實現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것이기 때문에 事實 教科書에 그려진 民主主義는 美國이나 英國에서는 實現되고 있지 않다. 學生들은 이런 教育의 結果로 韓國体制에 對해서 必要以上の 不信感과 不滿感을 얻게 될 可能性이 더욱 커질 것이다.

經驗的 事實로서 民主主義를 가르치고 民主主義의 實現을 爲해서 먼저 있어야 할 條件이 무엇이라는 것을 認識시킴으로써 韓國의 現實에서 實現possible한 政治建設의 限界를 알게 하여야 한다.

또한 韓國의 政治教育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國民의 民族意識이다. 解放後 韓國은 學問의으로 理念的으로 西歐民主化 된 점이 적지 않다. 그래서 顯在意識面에서 韓國人을 支配하는 價值體系는 充分히 西歐的인 것이다. 이의 부수적인 事實로 韓國的인 것에 對해 消極的 내지 否定的인 態度를 가지게 된 것이 事實이다. 그래서 韓國的인 것은 부끄럽고 못났고 그래서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강한 것 같다. 必要한 것은 韓國的인 것을 國民이 멋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發展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民族的 矜持를 가지게 하는 教育的 努力이 切實히 要望된다고 하겠다.

한편 政治教育에서 重要한 것은 國民모두의 國際的 眼目이다. 오늘날은 世界가 一日生活圈으로 바뀌는 傾向마저 없지 않은 現實인 만큼, 國際潮流의 變化에 敏感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에 賢明하게 對處할 수 있는 能力이 必要함은 勿論 韓國의 統一問題도 이와 關聯지워 解決하려는 努力이 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政治教育에서 考慮되어야 할 事項으로는 南北會談와 展望과

10月維新 앞장서서 平和統一 앞당기자

<禁無斷轉譯載>

民 主 統 一 論

1973年 8月 日 印刷

1973年 8月 日 發行

發行處: 統一研修所

電話 ㉔ 4 5 4 7

印刷處: (株)新進商事

電話 { ㉔5584•1344  
㉔1344

<非 賣 品>